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문학석사 학위논문

백제의 화성·오산 일대 진출과 지역 장악

2022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사학과

한 지 선

백제의 화성·오산 일대 진출과 지역 장악

지도교수 권 오 영

이 논문을 문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1년 10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사학과
한 지 선

한지선의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21년 12월

위 원 장 정 요 근

부위원장 권 오 영

위 원 성 정 용

국문초록

본 논문은 화성·오산 일대 2~5세기 생활 유적(주거·생산·성곽)과 분묘 유적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백제의 진출 전략과 지역 장악 과정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주요 분석 범위는 자연지형과 연혁, 고분군의 분포·특징을 고려하여 2~3세기대 지역 집단의 존재가 확인되는 화성·오산 일대 동부 내륙 지역으로 한정하였다. 황구지천, 발안천, 진위천, 오산천 유역으로 나누어 유적군을 분석한 결과, 화성·오산 일대 지역 집단은 권역별로 지역색 유지 여부·위상·백제와의 친연성 측면에서 다른 성격을 지녔음을 확인하였다. 황구지천과 발안천 유역에서는 주거·분묘 유적에서 다양한 문화상이 확인되어 지역색이 비교적 약했던 반면, 진위천과 오산천 유역은 5세기까지 지역색이 유지되었다. 위세품 등 출토 유물 측면에서 볼 때 진위천과 오산천 유역의 위상은 한성기 말까지 높게 유지된다. 백제와의 친연성 측면에서는 발안천 유역이 특징적이다.

백제는 4세기 이후 거점 취락 형성, 취락 재편, 축성, 위세품 사여 등의 방식을 통해 화성·오산 일대를 장악해갔다. 4세기 전반경 백제가 한강 유역에서 남진할 때에는 발안천 유역을 먼저 개척하고 거점 취락을 형성하였다. 서해안에 인접해 있는 발안리 취락 유적은 입지·구조 측면에서, 백제 주도로 운영된 물류 유통 시설과 유사하다. 이에 백제 지방도시의 시원적 형태이자 거점 취락으로 판단된다. 백제가 발안천 유역에 먼저 진출한 배경으로, 진위천 유역의 길성리토성 축조 집단과 오산천 유역의 주구토광묘 축조 집단을 의식하여 지역 집단의 통합도가 미약한 발안천 유역에 진출했을 가능성을 생각해볼 수 있다.

4세기 중엽 이후 백제는 기존의 중심 취락을 재편·이전하고 성곽을 축조하면서 새로운 거점을 마련하였다. 진위천 유역의 길성리·요리 일대에서는 4세기 중엽 재지 집단이 축조한 길성리토성이 폐기되고 취락이 재편되었으며 5세기대 백제 주도의 축성 작업이 이루어졌다. 소근산성은 군사·행정적 기능을 갖춘 거점성으로서 백제 중앙에서 중시했던 시설이

었다. 백제는 취락을 재편하고 소근산성을 축조하는 과정에서, 지역 장악력을 강화하고 경기 남부 지역 교통로와 연결되는 성곽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했다. 오산 지역에서도 4세기 중엽 이후부터 취락이 재편·이전되는 현상이 확인된다. 오산천 유역에서 농경, 저장 등 특수한 성격을 지닌 중심 취락이 백제에 의해 조성되고 대규모 저장수혈군이 확인되는 점을 고려하면, 4세기 중엽 이후부터 오산-화성-평택을 잇는 선이 백제의 주요 교통로로 활용되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4세기 중엽 이후 진위천과 오산천 유역에서 취락 재편 현상이 진행되는 가운데, 주요 분묘 유적인 오산 수청동 유적과 화성 요리 고분군에서는 위세품류가 부장되었다. 분묘 출토 위세품류에는 중앙 권력에 협조적인 세력을 선택하여 지역 사회 질서를 재조정하고자 한 백제의 의도가 함축되어 있었다. 수청동 유적에서는 4세기 후반 백제 위세품류가 결여된 대형 분묘가 별도의 입지에 조성되다가 5세기 이후부터 그 계보가 단절되고, 위세품류가 부장된 주요 분묘는 다른 묘역으로 이동하는 현상이 확인된다. 한편 금동관모·식리를 사여 받은 요리 1호 목곽묘 피장자는 빈약한 공반 유물 조합·단순목곽묘제·백제 주도의 인근 취락 재편 상황을 고려할 때, 지역 내 권위를 지닌 최상위 수장층은 아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화성 요리 목곽묘에서 출토된 착장용 금공품은 지역 집단의 권위를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백제 중앙에 협조한 인물이 받은 대가 혹은 백제가 지역 장악을 위해 활용한 도구였을 가능성이 크다.

백제는 시기별로 방향을 달리 하여 화성·오산 일대에 진출하였다. 4세기 중엽 이후부터는 거점 취락을 조성하는 것에서 나아가 적극적으로 기존 지역 집단의 취락을 재편하거나 거점성을 쌓는 방식으로 지배력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한편으로는 지역 집단에 위세품을 사여함으로써 백제 중앙에 유리한 방향으로 집단 내부의 질서를 조정하였다.

주요어 : 백제, 한성기, 화성, 오산, 거점성, 위세품
학 번 : 2019-23928

목 차

머리말 ····· 1

一. 연구 방법론 검토 ····· 6

二. 화성·오산 일대 지역 집단의 존재 양태 ····· 17
1. 세부 권역 설정 ····· 17
2. 권역별 지역 집단의 특징과 성격 ····· 25

三. 백제의 경기 남부 지역 장악 과정 ····· 50
1. 백제 주도의 거점 운영과 취락 재편 ····· 50
2. 분묘 출토 위세품의 의미 ····· 62

맺음말 ····· 73

참고문헌 ····· 77
Abstract ····· 86

표 목 차

[표 1] 분묘 유구에서 고려할 기준 ····· 11
[표 2] 주거 유구에서 고려할 기준 ····· 11
[표 3] 화성·오산 일대 하천 유역별 주요 유적 ····· 25
[표 4] 황구지천 유역 주요 유적 현황 ····· 26
[표 5] 발안천 유역 주요 유적 현황 ····· 30
[표 6] 봉담읍 일대 석실묘 현황 ····· 32
[표 7] 진위천 유역 주요 유적 현황 ····· 35
[표 8] 오산천 유역 주요 유적 현황 ····· 43

그 림 목 차

[그림 1] 화성·오산 일대 토양 지형 ····· 18
[그림 2] 화성·오산 일대 주요 유적 분포도 ····· 24
[그림 3] 황계동 유적 동쪽 단벽 토층도 ····· 28
[그림 4] 화성 마하리·관항리 고분군 석실묘 분포 전경 ···· 32
[그림 5] 2003년 조사 당시 길성리토성과 주변 유물 산포지 37
[그림 6] 길성리토성 발굴 조사 지점 ····· 37
[그림 7] 화성·오산 일대 출토 암키와편 ····· 38
[그림 8] 요리고분군 1호 목곽묘 연대 관련 자료 ····· 41
[그림 9] 요리고분군 1호 목곽묘 출토 금동관모·식리 비교 자료 41
[그림 10] 오산 내삼미동 유적 25호 주거지 ····· 45
[그림 11] 오산 내삼미동 유적 내 수혈 밀집 지역 ····· 46
[그림 12] 거점 취락 유구 배치도 ····· 51

[그림 13] 거점 취락의 입지 ····· 53
[그림 14] 소근산성과 길성리토성의 입지 ····· 59
[그림 15] 경기 남부 지역 한성기 백제 성곽 분포 ····· 61
[그림 16] 오산 수청동 유적 5-2 지점 18호 주구이중목관묘 63
[그림 17] 오산 수청동 유적 유구 분포도 ····· 64
[그림 18] 요리 1호 목곽묘 금동관모·식리 공반 유물 ····· 66
[그림 19] 요리고분군 유구 분포도 ····· 68
[그림 20] 송산리 유적 3-1-4구역 1호묘 ····· 68

머리말

3세기 중엽 상황을 보여주는 《三國志》 韓條에서는 '伯濟國'을 포함한 馬韓 50여 개 '國'이 열거되어 있는데, '目支國'이 마한 정치체를 주도하며 백제는 '伯濟國'이라는 일개 소국으로 존재하는 양상이 확인된다.[1] 백제가 주변 '國'을 정복하고 南進하여 목지국을 병합하는 과정은 伯濟國이 고대국가 百濟로 성장하는 것과 연동되어 있다. 그간 선행연구에서는 《三國史記》 초기기록의 한계를 인식하고 그 내용을 참조하되 《삼국지》, 《晉書》 등 중국 사서를 중심으로 백제의 국가형성 과정과 초기 영역을 검토하였다.[2] 그 결과 3세기 중·후엽 古尒王대(234~286)를 백제 성장 과정의 주요 분기점으로 주목해왔다.[3] 正始 年間(240~249) 帶方郡 崎離營에서 군현과 韓 세력이 충돌한 사건[4] 이후 마한 권역 내 질서가 변동되었고 3세기 후반 마한과 西晉의 교섭 과정에서 백제가 주도하는 양상으로 변화하였다는 점이 중요하게 언급된다.[5] 이와 같은 백제의 성

---

1) 《三國志》 卷30 魏書 東夷傳 韓條 "馬韓在西. … 有爰襄國·牟水國·桑外國·小石索國·大石索國·優休牟涿國·臣濆沽國·伯濟國·速盧不斯國·日華國·古誕者國·古離國·怒藍國·目支國 … . 大國萬餘家, 小國數千家, 總十餘萬戶. 辰王治目支國."

2) 《三國史記》 百濟本紀 溫祚王대의 기사를 다루는 연구에서는 후대에 일어난 사실이 始祖 溫祚王대로 소급·부회되었다는 점을 인정하는 '수정론적' 관점이 통용되고 있다. 이때 초기기록의 순서에 의미를 부여하여 백제의 성장·영역화 과정을 복원하고자 한 시도가 진행되기도 하였다(盧重國, 1988 《百濟政治史 硏究-國家形成과 支配體制의 變遷을 中心으로-》, 一潮閣, 25~26쪽). 다만 초기기록 분해론의 경우 연구자의 자의성을 배제하기 쉽지 않으며《삼국사기》 초기기록 중에서도 온조왕대의 경우 기사 간 일정한 인과 관계가 있었는지, 기사 간 시간의 격차가 어느 정도인지 아직 불확실한 상황이다. 이에 온조왕대 기사의 순서 배열이나 시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는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

3) 노중국, 1990 〈目支國에 대한 一考察〉《百濟論叢》2, 百濟文化開發硏究院, 87쪽; 문안식, 2002 《백제의 영역확장과 지방통치》, 신서원, 85~101쪽; 金永心, 1997 〈百濟 地方統治體制 硏究-5~7세기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3~24쪽; 김수태, 1998 〈3세기 중·후반 백제의 발전과 馬韓〉《馬韓史 硏究》, 忠南大學校 出版部, 213~215쪽 등.

4) 《三國志》 卷30 魏書 東夷傳 韓條, "部從事吳林以樂浪本統韓國, 分割辰韓八國以與樂浪. 吏譯轉有異同, 臣憤沽韓忿, 攻帶方郡崎離營. 時太守弓遵樂浪太守劉茂興兵伐之. 遵戰死, 二郡遂滅韓."

5) 권오영, 2001 〈백제국(伯濟國)에서 백제(百濟)로의 전환〉《역사와현실》40, 한국역사연구회, 36~40쪽.

장은 온조왕 13년 백제의 강역 획정 기사[6], 온조왕 27년 '마한' 병합 기사[7]와 연동되는데, 고대사학계에서는 일반적으로 고이왕대 이후인 3세기 후반~4세기 전반 백제가 이미 경기 안성천 일대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인식하고 있다.[8] 그리고 이러한 인식은 1990~2000년대 漢城 지역의 풍납토성·몽촌토성·석촌동고분군 등 고고 자료를 활용한 연구 성과와도 부합하였다.[9]

다만 최근 수십 년에 걸쳐 축적된 서울·경기 일대의 발굴 성과를 고려하여 초기 백제의 성장 과정을 다르게 인식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10] 3세기 후반에는 백제 도성이 위치한 서울 송파 지역에서도 백제 영역을 특정할만한 물질자료가 완전히 갖추어지지 않았다는 점이 지적된 바 있다.[11] 최근에는 백제가 4~5세기대 경기도 남부 지역에 지배력을 관철했는지 여부 또한 도전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가령 화성 길성리토성은 백제 중앙이 아닌 지역 집단이 4세기 중엽 이전에 축조·운영했을 가능성이 제시되었다.[12] 또한 길성리토성 인근의 화성 요리고분군[13]에서는 경기 권역 최초로 금동관모·식리가 출토되면서 주목을 받았는데, 金

---

6) 《三國史記》 卷23 百濟本紀1 溫祚王 十三年 八月條 "遣使馬韓, 告遷都, 遂畫定疆場. 北至浿河, 南限熊川, 西窮大海, 東極走壤."

7) 《三國史記》 卷23 百濟本紀1 溫祚王 二十七年 夏四月條 "二城降. 移其民於漢山之北, 馬韓遂滅."

8) 《삼국사기》에서의 '마한'을 금강 유역 혹은 그 이남 지역으로 비정하는 연구(김기섭, 2000 《백제와 근초고왕》, 학연문화사, 184~190쪽; 이도학, 2007 〈백제의 중앙집권체제 확립과 영역 확대〉 《漢城都邑期의 百濟》,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133~134쪽) 또한 이 시기 백제가 안성천 일대까지 진출했음을 전제한다.

9) 박순발, 2001 《漢城百濟의 誕生》, 서경문화사, 251~256쪽.

10) 한편 고이왕대 확인되는 변화상에 '연맹왕국' 등 국가발전단계를 대입하는 연구 경향을 비판한 견해가 일찍이 제시된 바 있다(李賢惠, 1997 〈3세기 馬韓과 伯濟國〉 《百濟의 中央과 地方》, 忠南大學校 百濟硏究所).

11) 풍납토성의 축성 시기를 시사하는 시유도기 연대는 3세기 후반 이후라는 넓은 시간 폭을 갖고 있으며(한지수, 2010 〈百濟 風納土城 출토 施釉陶器 연구〉 《百濟硏究》50, 충남대학교 백제연구소, 33~34쪽), 백제 토기 또한 특정 시점에 동시 출현한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에 걸쳐 기종이 완성되었다는 점이 지적되었다(권오영, 2011 〈漢城百濟의 時間的 上限과 下限〉 《百濟硏究》53, 충남대학교 백제연구소, 137·142쪽).

12) 中部考古學硏究所, 2013 《華城 吉城里土城》, 281쪽; 이혁희, 2013 〈한성백제기 토성의 축조기법과 그 의미〉 《韓國考古學報》89, 한국고고학회, 208~210쪽.

13) 韓國文化遺産硏究院, 2018 《華城 料里 古墳群》.

銅冠帽·飾履 등 백제 위세품을 '간접지배'의 지표로 해석하여 백제의 직접적인 영향력이 미치는 권역을 경기 화성 이북으로 한정하거나[14] 화성 요리 일대의 지역 세력이 독자성을 지니고 있다고 보는 견해[15]도 제기되었다.

본 논문은 경기 남부지역 중 화성·오산 일대를 분석 대상으로 하여 백제 국가 형성과 성장 과정의 일면을 파악하고자 한다. 경기 남부 일대는 아산만 일대의 목지국으로 향하기 직전 교두보에 해당하여 백제 국가의 형성과 영역 확장 과정, 지방지배 방식을 이해하는 데에 실마리가 되는 지역이다. 특히 화성·오산 일대는 4세기 전반까지 길성리토성을 축조·운영할 정도의 유력한 집단이 존재하여 백제의 진출 방식 측면에서 주목되며, 한성과 멀지 않은 近畿 지역임에도 백제 위세품이 확인되는 등 백제의 지역 장악 과정 측면에서도 특징적이다. 또한 화성·오산 일대는 2세기부터 백제 한성기 말까지의 유적 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진 지역으로 사례 연구 대상으로서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경기 남부 지역을 대상으로 고고 자료를 활용한 최근 연구에서는 지역·수계별 물질 문화상과 백제와의 상호 관계를 분석하는 시도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16] 이상의 선행연구는 경기 지역 분묘와 주거지 형식 등 물질문화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지역별 백제의 진출 과정을 복원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17] 다만 앞선 논의는 크게 3가지의 한계를

---

14) 이현혜, 2014 〈백제 국가 형성과 발달 과정을 둘러싼 중요 쟁점〉 《백제의 왕권은 어떻게 강화되었나: 한성백제의 중앙과 지방》, 한성백제박물관, 26쪽.

15) 맹소희, 2017 〈한성백제기 화성·오산지역 고고학적 변화양상 연구 - 분묘유적과 주거유적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문화인류학과 석사학위논문, 60쪽.

16) 이계만, 2015 〈3-5세기 백제 지방 편제 과정 연구 -경기 서남부지역을 중심으로-〉, 《史學志》51, 단국사학회; 맹소희, 2017 앞 논문; 최지훈, 2019 〈원삼국~한성백제기 오산천유역문화의 지역성: 주거와 분묘를 중심으로〉, 한신대학교 한국사학과 석사학위논문; 박경신, 2021 〈경기지역의 마한 소국을 말하다-안성천 유역권을 중심으로-〉 《최근 발굴성과로 본 경기도의 마한과 고대국가 백제 발표자료집》, 경기문화재단(경기도박물관)·중부지역문화재조사기관협회·한성백제박물관·한국문화유산협회; 이혁희, 2021a 〈경기지역 백제 한성기 물질문화의 지역성-마한문화와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최근 발굴성과로 본 경기도의 마한과 고대국가 백제 발표자료집》, 경기문화재단(경기도박물관)·중부지역문화재조사기관협회·한성백제박물관·한국문화유산협회 등.

17) 이는 백제의 지방사회를 인식할 때 백제 중앙 중심의 관점에서 벗어나 지역 집

지닌다. 첫째, 대부분의 연구가 주거·분묘 유적을 분석 대상으로 설정하여 성곽유적, 저장·생산 기능을 지닌 창고 유구의 의미를 충분히 조명하지 못하였다. 성곽과 대규모 저장수혈, 고상 건물지와 같은 창고 시설은 수취·물류 유통 행위와 관련될 가능성이 높아 주요 시설로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다수의 연구에서는 금동관모·식리, 중국제 도자기와 같은 위세품류가 출토되는 경우, 해당 유적의 지역 집단이 독자성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세력을 갖추었으며 백제의 '간접지배'를 받았던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다만 특정 위세품이 곧 지방지배 방식을 설명해줄 수 있는지 의문이다. 위세품의 구체적인 성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위세품이 출토된 유구의 부장맥락, 주변 취락과의 관계를 검토해야할 것이다. 셋째, 백제의 영역 확장과 성장 측면에서 해당 지역이 어떤 의미를 지녔으며 어떻게 활용되었는지 충분히 서술하지 못하였다. 이를 위해서 분석 대상인 화성·오산 일대의 유적뿐만 아니라 금강·영산강 유역권의 백제 유적, 나아가 다른 국가의 지방지배 사례 등을 참조하여 백제의 진출 방향과 영향력을 확대해간 맥락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경기 남부 지역이 안성천 이남의 천안·아산 지역과 연결되는 교두보라는 점에서 과거의 지형과 교통로 또한 살펴보아야 한다.

본 논문의 시간적 범주는 백제의 진출 이전 2세기[18]에서 475년 백제가 한강 유역을 상실하는 시기까지이다. 1장에서는 연구 방법론의 검토 차원에서 논문에서 다루는 고고 자료를 제시하고 각 자료를 해석하는 입장과 방식을 서술하겠다. 2장에서는 분석 지역인 화성·오산 일대를 세부

단의 독자성과 주체성을 상정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李賢淑, 2011, 〈墓制를 통해 본 漢城期 百濟의 地域相-龍院里遺蹟圈을 中心〉 《百濟硏究》55, 충남대학교 백제연구소, 60쪽)과도 연결되어 있다.

18) 《삼국사기》 백제본기에는 기원전 18년 백제가 건국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지만 백제사의 구체적인 시작점은 백제 국가형성사 연구에서 여전히 논쟁점에 해당하며 불분명하다(한성백제박물관, 2020 〈종합토론〉 《삼국사기 초기 기록, 어디까지 믿을 수 있나》, 114~132쪽). 다만 고대사학계에서 《삼국지》, 《진서》 등을 근거로 고이왕대(234~286)를 백제 국가 형성사의 획기로 인식한다는 점, 서울 송파 일대에서 확인되는 성곽·토기 등 백제 중앙의 문화 요소가 3세기 후반 이전으로 소급될 수 없다는 점, 기원후 2세기 이전으로 소급되는 고고자료가 경기 일원에서 소략한 점을 고려하여 본고에서는 분석 시기의 상한을 2세기로 설정하였다.

권역으로 구분하고 권역별 지역 집단의 특징과 성격을 살펴보고자 한다. 3장에서는 2장의 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백제가 경기 남부 지역에 어떤 방식으로 진출하였고 어떻게 해당 지역을 장악하였는지 생활 유적(주거·생산·성곽 유적)과 분묘 유적으로 나누어 검토하겠다.

一. 연구 방법론 검토

선행연구에서는 '직접지배영역'인 '영토'와 '간접지배영역'까지 포괄한 '세력권'을 구분하고 후자를 포함하는 범위를 '영역'으로 인식하여 초기 백제의 영역 확장을 이해하고 있다.[19] 이때 '영토'와 '세력권' 개념은 중앙 정부가 특정 지역에 지방관을 파견했는지 여부로 구분된다. 다만, 이상의 기준을 현존하는 자료에 적용하여 백제의 영역 확장 과정을 복원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백제 외부의 집단이 언제부터 백제 '영역'으로 편입되어 지방민으로서 조세의 의무를 부담했는지 시점을 특정하기 힘들며, 해당 지역에 실제로 중앙 지방관이 파견되었는지 여부 또한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은 소위 '간접지배영역'이더라도, 백제의 지배 방식과 지배력의 강도는 중앙의 관심도, 기존 지역 정치체의 복합화 정도,[20] 교통로 등 여러 변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선행연구에서의 영역 개념을 차용하되 백제의 영역, 영토, 세력권을 뚜렷하게 구분하기보다는 백제 중앙의 지역 장악력이 강화되어가는 과정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겠다.[21]

---

19) 김영심, 2003 〈웅진·사비시기 百濟의 領域〉 《古代 東亞細亞와 百濟》, 서경, 91~95쪽에서는 '영토', '세력권', '영향권' 세 가지 개념을 구분하였다. '영토' 범위 안에서는 중앙정부가 통치 구획을 분정하고 지방관을 파견함으로써 지역민에게 조세, 역역, 군역 등 각종 의무를 강제한다고 한다. '세력권'은 간접지배지역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대외교섭권 이외에 수장층의 대내적인 자치가 인정되고 지역민 또한 세금(tax)이 아니라 공납(tribute)차원의 조세 의무를 부담한다고 한다. '영향권'은 중앙정부의 영향력은 미치지만 일정한 정치·군사적 의무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권역이라고 서술하였다.

20) '정치체'(polity)의 사전적 정의는 "정치적 권위의 행사를 통해 조직된 사회"이지만 어느 정도로 조직된 사회를 정치체로 지칭할 수 있는지 학계에서 아직 논의 중이다. 그간 고고학계에서는 '정치체'의 존재를 파악하기 위해 청동기시대 이래의 취락과 고분군의 집중화 혹은 유구·유물에서 확인되는 계층성에 주목해왔는데, 지역마다 '정치체'의 규모·특성이 불균등했을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성정용, 2021 〈"백제는 언제 섬진강유역으로 진출하였나" 토론문〉 《백제는 언제 섬진강 유역으로 진출하였나 발표자료집》, 한성백제박물관 백제학연구소, 67쪽).

21)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화성·오산 일대의 백제 중앙과 구별되는 세력을 통칭할 때 '지역 집단'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지역'은 '지방'과 달리 백제의 영역화를 전제하지 않는 개념이며 '집단'은 정치성을 함의한 '정치체'와 달리 비교적

백제의 영향력을 보여주는 지표로 분묘, 위세품류(금동관모·금동식리·중국제 도자기·장식대도 등),[22] 한성양식토기, 주거지 구조, 성곽 등이 선행연구에서 언급된다.[23] 다만 이상의 고고 자료가 연구 방법론으로서 활용되면서 특정 물질문화의 분포 범위를 곧 정치·사회적 성격의 백제 영역으로 치환하는 행위를 경계해야한다는 점이 꾸준히 지적되었다.[24] 이에 본 논문에서는 생활(주거, 생산, 성곽)유적과 분묘 유적의 특징을 살필 때 특정 유적·유물을 선택하기보다는 공반유물, 동시기 주변 유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자의적인 해석을 지양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 다루는 고고 자료는 성곽, 분묘, 주거지, 토기류, 위세품류이며 각 자료별 고려할 사항을 서술하면 다음과 같다.

성곽은 대규모 노동력을 동원한 작업을 요하며 관방 체계의 구축을 수반한다는 점에서 다른 자료보다 백제의 영향력을 반영하는 결정적인 증거이다. 또한 단순히 군사 배치를 위한 시설뿐만 아니라 교통로 확보, 지역 집단에 대한 영향력 강화, 물적 자원 수취 등 행정적 지배 의도가 포함된 자료이다.[25] 백제의 경우 〈廣開土王碑文〉에 등장하는 "新來韓穢" 지역의 "58城 700村"이라는 표현에서 4세기 후반 정복 활동을 벌였

중립성을 지닌다. 이에 '지역 집단'은 2~5세기 백제의 영역화 전·후의 넓은 시기를 설명할 때 유효하게 적용할 수 있는 용어라고 판단하였다.

22) 위세품(威勢品, prestige goods)은 소유자의 富 혹은 지위를 보여주는 물품으로서 교역이나 생산을 통해 최고 권력자가 관리하였고 재분배 또는 사여라는 방식으로 사회 지배층에게 공급되었던 것으로 해석된다(이한상, 2009 《장신구 사여체제로 본 백제의 지방지배》, 서경문화사, 35~36쪽). 백제 위세품은 금동관모, 금동신발, 장식대도, 금제·금동제이식 등의 금공품과 중국도자기, 청동제 초두와 뚜껑, 진식대구 등의 외래 유물이 해당하며 威信財로 표현되기도 한다(박순발, 2001 앞 책 220쪽).

23) 권오영, 2009 〈원삼국기 한강유역 정치체의 존재양태와 백제국가의 통합양상〉 《고고학》 8-2, 서울·경기고고학회; 서현주, 2014 〈백제의 서남방면 진출-고고학적 측면〉 《근초고왕 때 백제 영토는 어디까지였나: 백제의 영토확장》, 한성백제박물관, 169~176쪽.

24) 김종일, 2008 〈고고학 자료의 역사학적 해석에 대한 비판적 고찰〉 《韓國古代史硏究》52, 한국고대사학회, 109~111쪽 등.

25) 徐榮一, 2005 〈漢城 百濟時代 山城과 地方統治〉 《文化史學》24, 한국문화사학회, 23쪽; 신라의 경우, 郡縣制 확립 이전 지방 통치 및 군사 거점이 되는 성을 '據點城'으로 규정한 연구가 있다(박성현, 2010 〈新羅의 據點城 축조와 지방 제도의 정비 과정〉,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박사학위논문).

던 근초고왕대 백제의 지방통치 단위가 몇 개의 촌락을 포함하는 '城'이었음을 유추할 수 있다.[26] 다만 성곽 자료를 백제의 지역 지배 측면에서 다룰 때 축조 주체가 백제 중앙인지 여부를 파악해야 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정밀지표조사 혹은 발굴조사가 완료되어 축조 주체를 추정할 수 있는 성곽 유적을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축조 주체는 성벽 축조 기술, 성곽 내부 출토 유물, 주요 방어 방향 등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정할 수 있다.[27] 한편 성곽의 입지[28], 주변 취락 유적과의 관계, 육상·해상 교통로와의 연계성, 조망권 또한 기능 측면에서 중요한 요소에 해당한다.

분묘는 형식이 쉽게 바뀌지 않는 보수성을 지니며 지역 집단의 정체성과 내부 질서를 보여주기 때문에 백제의 영역화 과정을 다루는 연구에서 가장 많이 다뤄진 주제이다.[29] 2세기 후반 이후 중서부 내륙지역에는 주구목관(곽)묘가, 서해안 지역에는 분구를 갖춘 분구묘가 확산된다.[30] 4

---

26) 金英心, 1998 〈百濟의 城, 村과 地方統治〉 《百濟硏究》28, 충남대학교 백제연구소, 193~194쪽.

27) 이와 관련하여 백제 한성기 토성의 축조 기술을 분석하여 축조 주체를 추론하고자 한 이혁희의 연구가 참조되는데(이혁희, 2013 앞 논문; 이혁희, 2021b 〈백제 한성기 토성의 축조기술〉 《풍납토성 축성기술의 비밀을 풀다 학술대회 자료집》, 국립강화문화재연구소) 선행연구에 따르면 한성기 토성의 등장 시점부터 盛土기법과 板築기법이 공존하다가 점차 판축기법 위주로 변화하였다고 한다.

28) 한성기 백제 성곽의 경우 산 정상부를 두른 테뫼식 산성이 다수이다(이혁희, 2021b 위 논문, 88쪽).

29) 다수의 연구에서는 백제 권역 전체를 대상으로 영역 확장 과정을 설명하고자 분묘와 부장품을 주요 기준으로 사용하였으며 특정 묘제와 위세품 등 지표가 확인되는 지역을 '간접지배지역', '지배 거점'으로 설정하였다(成正鏞, 2000 〈中西部馬韓地域의 百濟 領域化 過程 硏究〉 서울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 박사학위논문; 金成南, 2006 〈百濟 漢城時代 南方領域의 擴大過程과 支配形態 試論〉 《百濟硏究》58, 충남대학교 백제연구소; 박순발, 2013 〈유물상으로 본 백제의 영역화 과정〉 《백제, 마한과 하나되다: 2013 여름 특별전》, 한성백제박물관; 土田純子, 2015 〈考古資料를 통해 본 漢城期 百濟의 領域擴大過程 硏究〉 《제12회 매산기념강좌-중부지역 한성기 백제 주변 정치체의 동향》, 숭실대학교 기독교박물관 등).

30) 분구묘는 '先墳丘 後埋葬', 주구목관(곽)묘는 '先埋葬 後封土'의 축조 방식을 따른다. 후대의 삭평으로 인해 성토부 혹은 분구를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 둘을 구분하기 힘든데, 분구를 낮게 성토하고 얕은 묘광을 가지는 경우 또한 '선분구 후매장' 방식으로 축조되었다면 분구묘로 정의하는 견해를 참조할 수 있다(김승옥, 2009 〈분구묘의 인식과 시공간적 전개과정〉 《한국 매장문화재 조사연구방법

세기 후반부터는 마한·백제 권역에서 수혈식석곽묘, 횡혈식석실묘가 등장하는데 그간 백제에서 지역 진출과 관련하여 주목받은 묘제는 횡혈식석실묘이다.[31] 화성·오산 일대의 경우 단순목관(곽)묘, 주구목관(곽)묘, 분구묘, 수혈식석곽묘, 횡혈식석실묘가 모두 확인되고 있어 복합적인 양상을 보인다.

주거지는 구조상 크게 지상식[32]과 수혈식으로 구분된다. 수혈주거지의 경우 출입구 부가 여부, 평면 형태, 柱穴 배치 방식이 구조적 요소에 해당하며 그 외에 입지, 난방·취사 시설[33] 또한 형식 분류의 기준으로 고려할 수 있다. 중부 지역의 수혈주거지는 크게 출입구가 부가되어 있는 평면 '呂'·'凸'자형 주거지[34]와 출입구 없이 방형 평면에 4개 주혈이 확인되는 四柱式 주거지로 구분된다. 각 주거지는 분포권을 달리하고 있는데[35] 사주식 주거지는 충청·전라 지역을 중심으로 분포하고 있어 '마한계 주거지'라고 불리기도 한다.[36] 다만 사료에서 등장하는 '마한' 권역이 한강 유역과 경기 일대를 포함한다는 점, 주거 형식의 분포가 특정 정치체의 영역 혹은 종족 분포 범위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여 개념상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마한계'라는 표현은 지양하고자 한다. 또한

론》 5, 국립문화재연구소, 260~262쪽).

31) 발굴 조사로 서울 가락동, 우면동, 하남 감일동, 성남 판교 등 한성과 근기 지역에서 횡혈식석실묘가 발견되면서 백제 중앙에서도 한성기 후반 석실묘를 사용했음이 확인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지역 집단이 중앙과 지방의 매개자 역할을 하면서 다른 집단과 차별화시킬 수 있는 장치로 석실묘제를 도입했다고 해석한 견해가 있다(성정용, 2009 〈중부지역에서 백제와 고구려 석실묘의 확산과 그 의미〉 《횡혈식석실분의 수용과 고구려 사회의 변화》, 동북아역사재단, 158쪽).

32) 지상식 건물지는 바닥을 지면에서 띄운 고상식(高床式) 건물지를 포함한다.

33) 중부지역 난방·취사시설은 크게 노지, '一'자형 연도가 부가된 부뚜막, 'ㄱ'자형 쪽구들로 구분할 수 있다. 화성·오산 일대에서 확인되는 'ㄱ'자형 쪽구들의 경우 두 번 꺾이는 사례, 단이 진 기반토식 'ㄱ'자형 구들 등 여러 형태가 확인된다.

34) '呂'·'凸'자형 주거지는 원삼국기 이래 한강 유역과 영서 지역에서 주로 사용한 형식으로, 몽촌토성·풍납토성에서는 3세기 후반부터 평면 육각형과 벽주식 주혈 구조를 갖춘 주거지가 조성되기 시작한다(한지선, 2013 〈漢城百濟期聚落과 土器遺物群의 變遷樣相-서울과 경기권 편년수립을 위하여-〉 《중앙고고연구》 12, 중앙문화재연구원, 46~51쪽).

35) 경기 남부 지역, 특히 화성 일대에서는 사주식 주거지와 '呂'·'凸'자형 주거지가 공존하거나 돌출된 출입구 시설이 결합된 사주식 주거지가 조성되는 사례가 확인된다.

36) 송만영, 2013 《중부지방 취락고고학 연구》, 서경문화사, 136~142쪽.

문산 당동리 유적, 파주 능산리 유적 등 경기 북부지역의 유적을 포함하여 사주식 주거지 분포의 경계선을 올려보아야 한다는 견해[37]를 참조하면, 사주식 주거지의 공존범위는 경기 북부 일부와 서부를 포함한 넓은 지역에 걸쳐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주거지 형식만을 근거로 역사적 의미를 부여하기보다 지역 집단의 문화상을 보여주는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며, 내부 유물, 주변 유적 상황을 함께 검토하겠다. 지상식 건물지는 벽체 시설이 주요 기준에 해당한다. 지상식 건물 중 하나인 壁柱建物은 주공을 촘촘하게 세워 벽체만으로 지붕을 받치는 구조를 갖추었는데 백제에서는 공주 정지산 유적 등 웅진기 이후에 성행하였으며 한성기 벽주건물은 확인된 사례가 비교적 적다. 한성기 벽주건물은 구조적 특이성과 규모, 매납 유구 등 주변 유구와의 관계 측면에서 창고, 관청 등 특수 성격을 지녔을 가능성이 있다.[38] 벽주건물 외에 저장·생산 목적으로 사용되는 高床式 건물지가 있다. 대규모 취락 유적에서 고상식 건물지, 다수의 저장수혈[39], 구획 기능의 구상유구 등이 확인되는 경우 국가 주도의 계획성을 갖춘 시설로 주목되고 있다.[40]

---

37) 신은정, 2017 〈原三國~漢城百濟期 京畿地域 四柱式住居址 硏究〉, 한신대학교 한국사학과 석사학위논문, 72쪽.

38) 허수정, 2019 〈百濟 漢城期 地上建物의 展開樣相〉, 한신대학교 한국사학과 석사학위논문, 72쪽.

39) 백제 한성기 저장수혈군의 규격화 현상을 백제 중심의 수취와 물류 시스템 구축으로 해석한 연구가 있다(김왕국, 2016 〈百濟 漢城期 貯藏施設 擴散의 動因 -단면 플라스크 저장수혈을 중심으로-〉, 《百濟硏究》63, 충남대학교 백제연구소).

40) 박순발, 2014 〈백제 한성기의 지방도시〉 《백제의 왕권은 어떻게 강화되었나: 한성백제의 중앙과 지방》, 한성백제박물관, 197~199쪽; 이영철, 2020 〈또 다른 백제의 지방도시, 광주 동림동〉 《백제의 계획도시, 세종 나성동》, 국립공주박물관, 96~99쪽.

〔표 1〕 분묘 유구에서 고려할 기준

목관(곽)묘	주구 부가 여부, 분묘 장축방향과 등고선, 묘광 장단비와 면적, (토기)부장 공간 등
석곽묘	분묘 장축방향과 등고선, 묘광 장단비와 면적, 벽석 하부구조 축조방식, (토기)부장 공간, 부가 시설(주구, 배장곽 등)
석실묘	묘도 방향과 등고선 관계, 평면 형태와 연도 위치, 모서리 축조기법, 부가 시설(주구, 배장곽) 등

〔표 2〕 주거 유구에서 고려할 기준

수혈식 주거지	출입구 부가 여부, 규모, 평면 형태(오·육각형, 방형계, 원형계), 주혈 배치 양상(벽주, 사주, 불규칙), 난방·취사시설(노지, '一'자형 부뚜막, 'ㄱ'자형 쪽구들)
지상식 건물지	주구 부가 여부, 규모, 벽체시설

토기류의 경우, 화성·오산 일대에서는 직구단경호, 삼족기, 고배 등 백제 한성양식토기[41] 기종과 함께 원삼국기부터 재지에서 사용되던 유개대부호, 원저심발형토기, 원저단경호, 심발형토기 등이 확인된다. 한성양식토기는 新기종 출현 시점을 고려하면, 4세기 중·후엽이 주요 분기점으로 보인다.[42] 한성양식토기는 일상용 타날문 煮沸容器와 백제 국가 성장 과정에서 출현한 의례·생활용기로 구성되어 있는데, 대체로 백제의 영향

41) 김성남, 2004 〈백제 한성양식토기의 형성과 변천에 대하여〉 《고고학》 3-1, 중부고고학회, 31쪽에서 '한성양식토기'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한반도 중부지역에서 3세기 중엽 이후 諸 토기형식의 모집단 가운데 한성지역을 중핵으로 반복적으로 함께 발견되는 토기형식들로 이루어진 다중배열조합을 '백제토기 한성복합'이라고 규정한다. 그리고 이 '한성복합'을 구성하는 형식의 토기들 가운데 3세기 중·후엽 새로 출현하여 차후 주변지역으로 확산되는 한성복합의 지리범위 내 고유한 형식의 토기들만을 포괄하여 '한성양식토기'로 지칭한다.

42) 백제토기의 형식 변천을 분석한 연구에 의하면, '3세기 후반~4세기 전반', '4세기 전·중엽~4세기 중·후엽', '4세기 중·후엽~5세기 전반' '5세기 전·중엽~475년'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한다(한지선, 2013 앞 논문, 46~47쪽).

력에 따라 확산되는 양상을 보인다. 이를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승문계 심발형토기 등 자비용기의 분포권이 백제의 영역과 거의 일치한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43] 하지만 한성양식토기를 대상으로 한 태토 분석 결과 토기 유통 범위가 대부분 취락 단위를 넘어서지 않을 정도로 국지적이기 때문에 한성양식토기의 확산은 이념적, 아이디어 차원에서 중앙과 동화되는 과정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44] 한편 한성양식토기 출토 유구의 성격, 토기의 기종과 위계 또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의 분석 대상인 화성·오산 일대는 분묘유적 뿐만 아니라 생활유적에서도 한성양식토기가 다수 확인되는 지역이다. 이때 생활유적에서 출토되는 한성양식토기는 기종에 따라 기능뿐만 아니라 분포 범위, 위계가 달랐다고 서술한 선행연구를 참조할 수 있다.[45] 이에 따르면 4세기 후반 정비된 洗·盤·기대·삼족배는 한성양식토기 중에서도 고급 기종으로서 도성, 성곽, 상위 취락 등 제한적인 범위에서 출토되며, 직구단경호·고배, 광구호·뚜껑, 타날문 자비용기 순서대로 분포범위가 넓어져 그 위계를 설정할 수 있다고 한다.[46]

중국제 도자기, 진식대금구, 청동제 초두·뚜껑 등의 외래 수입품과 금동관모, 금동식리, 금제이식 등 착장용 금공품은 백제 중앙에서 사여한 위세품으로 이해된다.[47] 경기 남부 화성·오산 일대에서는 백제 위세품류로 금동관모와 식리, 중국제 도자기, 진식대구가 발견되었다. 한편 2~3세기대 유적에서 확인되는 청동마형대구와 금박유리구슬 또한 위세품 성격을 지닌다. 청동마형대구는 호서·영남지역을 중심으로 분포한다. 금박유리구슬은 마한 권역 전역에서 확인되고 낙랑 등 주변 지역과의 교역·교섭으로 유입된 물품이다.[48]

---

43) 박순발, 2013 〈유물상으로 본 백제의 영역화 과정〉 《백제, 마한과 하나되다: 2013 여름 특별전》, 한성백제박물관, 128~129쪽.

44) 김장석·권오영, 2008 〈한성양식 토기의 유통망 분석〉 《백제 생산기술의 발달과 유통체계 확대의 정치사회적 함의》, 한신대학교 학술원 편, 학연문화사, 110~112쪽.

45) 박중국, 2013 〈백제 한성양식토기의 분포현황 검토 -중부지역을 중심으로-〉 《漢江考古》9, 한강문화재연구원.

46) 박중국, 2013 위 논문, 44쪽.

47) 이한상, 2009 앞 책, 57·127~134쪽.

금동관모와 금동식리는 다른 장신구에 비해 그 격이 높았던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관모는 착장했을 때 가시성이 높다는 점, 식리는 장송의례 전용 물품이라는 점에서 관모와 식리를 중앙으로부터 받았다는 것은 중앙과 강한 유대를 맺었음을 의미한다.[49] 현재까지 확인된 한성기 백제 금동관모는 9점이며,[50] 고깔모양의 기본 구조에 前飾, 側飾, 後飾, 그리고 管과 受鉢形裝飾을 갖춘 형태를 지닌다. 다수의 선행연구에서는 금동관모를 백제 중앙에서 제작하여 현지 세력에 사여한 위세품이자 지방지배 방식과 관련된 물품으로 해석하고 있다. 다만 구체적인 의미는 연구자마다 다르게 서술하고 있다. 가령 화성 요리 고분군에서 출토된 금동관모의 경우, 체계적인 지방지배 방식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백제가 지배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현지 유력자들을 활용했다고 보는 견해,[51] 백제가 적극적인 회유·포섭을 위해 사용한 지방지배 방식의 일환이었다고 해석한 견해,[52] 백제가 문화적 독자성을 유지할 정도의 재지 세력을 인정했다고 보는 견해[53] 등이 제시된 바 있다. 한편, 금동관모를 백제 중앙의 제도와 직접적으로 연결지어 의미를 부여한 연구도 있다. 우선 금동관모를 백제 중앙의 의관제, 王·侯號制와 연결하여 지방출신 중앙 관료가 歸葬된 결과 금동관모가 출토되었다고 이해하는 견해가 있다.[54] 하지만 특정 고고자료를 백제 중앙의 제도와 곧바로 직결시키는 것에 신중할 필요

---

48) 김미령·김승옥, 2018 〈장신구〉 《마한고고학개론》, 진인진, 300쪽.

49) 이한상, 2014 〈고고자료에 투영된 한성백제의 중앙과 지방〉 《백제의 왕권은 어떻게 강화되었나: 한성백제의 중앙과 지방》, 한성백제박물관, 118쪽.

50) 화성 요리 1호묘, 천안 용원리 9호 석곽, 공주 수촌리 1호·4호묘, 서산 부장리 5호 분구 1호묘, 고흥 길두리 안동고분, 익산 입점리 86-1호묘, 합천 옥전 23호묘, 일본 큐슈(九州) 에다 후나야마(江田 船山)고분 출토품이다. 합천 옥전 23호묘와 에다 후나야마고분 출토품은 백제 권역 외부에서 출토된 사례로서 우호 관계의 성립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한성백제박물관, 2014 〈종합토론〉 《백제의 왕권은 어떻게 강화되었나: 한성백제의 중앙과 지방》, 260~268쪽).

51) 李漢祥, 2018 〈料里 1號木槨墓 출토 金銅冠과 金銅飾履 검토〉 《華城 料里 古墳群》, 韓國文化遺産硏究院, 263쪽.

52) 김영심, 2018 〈백제 웅진시기 지방통치의 구상과 운영의 실제〉 《백제 웅진기 영역과 지방통치》, 한성백제박물관, 60쪽.

53) 맹소희, 2017 앞 논문, 57쪽.

54) 노중국, 2013 〈백제의 왕·후호제와 금동관 부장자의 실체 -歸葬-을 중심으로〉 《韓國古代史硏究》70, 한국고대사학회.

가 있으며 착장용 금공품의 출토 맥락, 즉 금동관모가 부장된 묘제, 지역성이 뚜렷한 공반 유물(토기류 등)을 고려하면 위 의견은 동의하기 어렵다. 토착 세력에게 금동관을 하사하여 檐魯의 長으로 삼았다는 견해[55]도 중앙의 지방제도와 직접적으로 연결시킨 경우에 해당한다. 웅진도읍기의 상황을 반영하는 《梁書》의 담로 관련 기사를,[56] 금동관모가 주로 출토되는 5세기대로 소급 적용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금동관모가 가야, 왜 등 백제 권역 외부에서 출토되는 사례를 통해 볼 때 백제의 금동관모 사여 목적은 일률적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금동관모를 곧 지방지배 방식 차원에서 해석하는 것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위세품 사여의 목적과 대상을 다양한 시각으로 살펴보아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제시하고 고흥 안동고분 출토 금동관모·식리를 특별한 공을 세운 것에 대한 백제의 사여품으로 해석한 연구가 있어 참조된다.[57] 본 논문에서는 위세품의 성격이 일률적이지 않다는 점에 주목하여, 3장에서 화성 요리고분군 출토 착장용 금공품의 의미를 출토 유구, 공반유물, 주변 유적과의 관계 측면에서 재검토하고자 한다.

중국제 도자기의 경우 한성 도성에서는 주로 생활유적에서 출토되는 반면 지방에서는 분묘유적에서 출토되고 있어 전자는 고급문화를 상징하는 사치품의 성격을, 후자는 신분 상징적 위세품의 성격을 지녔다고 해석할 수 있다.[58] 중국 도자는 다른 위세품류와 함께 출토되는 사례가 많은데 이를 두고 方物을 중앙에 공납한 대가로 사여 받은 '간접지배'의 산물로 보기도 한다.[59] 다만 앞서 서술한 금동관모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위세품을 지방지배 방식과 곧바로 연결 짓기는 어려우며 사례별로 주변

55) 이남석, 2008 〈百濟의 冠帽 · 冠飾과 地方統治體制〉 《韓國史學報》33, 고려사학회, 467~468쪽; 李勳, 2012 〈金銅冠을 통해 본 百濟의 地方統治와 對外交流〉, 《百濟硏究》55, 충남대학교 백제연구소, 102쪽.

56) 《梁書》 卷54 列傳48 諸夷 百濟, "號所治城曰固麻, 謂邑曰檐魯, 如中國之言郡縣也. 其國有二十二檐魯, 皆以子弟宗族分據之."

57) 김영심, 2014 〈고흥 안동고분 축조의 역사적 배경〉 《百濟文化》51, 공주대학교 백제문화연구소, 67~69쪽.

58) 成正鏞, 2003 〈百濟와 中國의 貿易陶磁〉 《百濟硏究》38, 충남대학교 백제연구소, 40~41쪽.

59) 朴淳發, 2007 〈墓制의 變遷으로 본 漢城期 百濟의 地方編制 過程〉 《韓國古代史硏究》48, 한국고대사학회, 171~172쪽.

유적 상황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수입품에 속하는 진식대금구는 중국계 복식류로 백제 권역에서 화성 사창리 수습품 이외에 현재까지 풍납토성, 몽촌토성 출토품밖에 없다는 점이 주목된다.[60] 당시 화성 사창리 일대의 지역 집단과 백제 중앙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었으며 위상 또한 높았음을 추정할 수 있다.

이상의 주요 자료 외에도 유적의 위상을 보여주거나 특정 세력과의 관계성을 표상하는 유물에 유의하고자 한다. 주거지 내부에서 건축부재에 해당하는 기와·塼,[61] 철정과 꺾쇠, 부뚜막 장식이 출토되는 경우 해당 유적의 위계를 설정할 수 있다.[62] 특히 塼의 경우 풍납토성·몽촌토성, 석촌동고분군 등의 도성 지역과 화성시 일대의 3개 유적(화성 발안리 유적, 당하리Ⅱ유적, 가재리 유적)에서만 출토되어 특징적이다.

소형 돌절구는 백제 중앙 문화와 연결되는 유물이다. 백제 한성기 유적에서 약 25점이 확인되었는데 그중 20여 점은 풍납토성과 몽촌토성을 비롯한 서울 지역에 분포한다.[63] 크기가 일반 농공구에서 확인되는 절구보다 매우 작아 차, 약재, 향신료 등을 빻을 때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64] 도성 내부에서도 궁전 종묘구역과 관원의 밀집 주거지역 등에서 발견되고 있다는 점, 중국 남경에서 동일한 크기와 형태의 유물이 발견되었다는 점을 근거로 중국 차 문화와 관련된 '茶確'이라는 도구와 연관시킨 연구가 제기된 바 있다.[65] 이에 한성양식토기 고급기종과 함께 백

---

60) 권오영·권도희, 2003 〈사창리 산 10-1번지 출토 유물의 소개〉, 《吉城里土城》, 한신大學校博物館, 101~104쪽; 같은 착장용 복식 위세품이지만 금동관모·식리는 도성이 아닌 지역에서 출토되는 반면 진식대금구는 출토된 3점 중 2점이 도성에서 출토되었다. 금동관모·식리의 경우 백제 중앙에서 사여를 목적으로 제작된 물품인 반면, 진식대금구는 중국도자와 같은 수입품으로서 백제 주도로 도성에 유입된 이후 다른 지역 집단에 분여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61) 백제의 기와 사용이 한성기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은 《삼국사기》 백제본기의 "큰 바람이 불어 기와를 날렸다"는 기사에서 확인된다("《三國史記》 卷25 百濟本紀 毗有王 三年 十一月條 "地震, 大風飛瓦.").

62) 건축부재는 일반적인 주거지에서는 출토 사례가 많지 않고 도성 내부 혹은 포천 자작리, 용인 고림동 유적과 같은 거점 취락의 대형 육각형 주거지 등에 국한되어 출토되는 유물로 인식되고 있다(송만영, 2013 앞 책, 266쪽.~267쪽). 다만 화성·오산 일대의 여러 생활 유적에서 출토되고 있어 특징적이다.

63) 화성시역사박물관, 2020 《요리 금동관 다시 깨어나다》, 114쪽.

64) 국립문화재연구소, 2013 《백제 한성지역 유물 자료집》, 314~315쪽.

제 중앙과 관련된 유물로 분류될 수 있다.

철기류 중 주조괭이는 백제 중앙과 관련된 농공구류로 인식되고 있는데 풍납토성의 용범을 통해 당시 도성이나 중요 거점 지역에서 주조괭이를 집중적으로 생산하여 광역화된 범위의 마을들에 보급하였을 것으로 추정한 견해가 있다.[66] 또한 한강 유역과 경기 동·북부 지역에는 비교적 높은 출토량을 보이지만 화성, 오산, 평택, 안성 등 경기 남부 지역은 출토량이 낮다고 한다.[67] 마구류인 재갈, 운주, 등자 등은 군사적 성격과 함께 騎乘문화의 파급을 의미하는 유물로서 백제 중앙의 영향력이 지역사회 내부로 침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68] 마구류가 생활 유적에서 무기류, 갑옷류와 함께 일괄로 출토되는 경우 군사적 성격과 연결될 수 있으며, 분묘 유적에서 출토되는 경우 피장자의 위계를 대변하는 성격을 갖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

65) 문동석, 2012 〈漢城百濟의 茶文化와 茶碓〉 《百濟硏究》56, 충남대학교 백제연구소, 16쪽에서는 중국 南京 江寧區 上坊地區의 趙家山 石器 加工 工場遺蹟址에서 동일한 크기와 형태의 돌절구가 확인되었다는 점에 주목하여 백제 돌절구를 중국에서 넘어온 차 문화와 관련된 '茶碓'이라는 도구와 연관시켰다.

66) 이남규, 2008 〈백제 철기의 생산과 유통에 대한 시론〉 《백제 생산기술의 발달과 유통체계 확대의 정치사회적 함의》, 학연문화사, 214~219쪽.

67) 정경화, 2021 〈마한~백제 한성기 철기문화의 양상 -경기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최근 발굴성과로 본 경기도의 마한과 고대국가 백제 발표자료집》, 경기문화재단(경기도박물관)·중부지역문화재조사기관협회·한성백제박물관·한국문화유산협회, 92쪽.

68) 成正鏞, 2000 앞 논문, 148쪽.

二. 화성·오산 일대 지역 집단의 존재 양태

1. 세부 권역 설정

경기 화성·오산 일대에 존재했던 지역 집단을 도출하기 위해서,[69] 분석 대상이 되는 범주를 설정하고 세부 권역을 구분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현재의 행정 구역 체제가 아닌 지리적 환경과 고지형, 역사적 맥락, 유적군의 분포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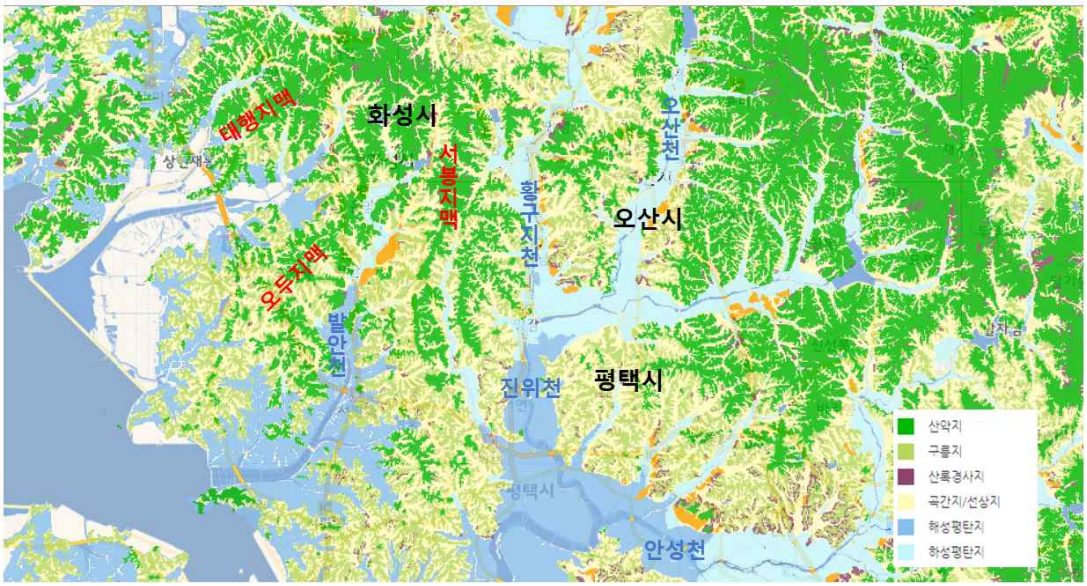
화성·오산 일대의 수계와 지형을 볼 때 한남정맥에서 남쪽으로 뻗은 서봉지맥에 의해 동서로 크게 분할된다. 서봉지맥 以西지역은 서해로 흘러드는 하천 유역이다. 이 지역은 태행지맥에 의해 북쪽 시화호 유역과 그 이남지역으로 구분되며, 오두지맥에 의해 동쪽의 발안천 유역과 서해안의 남양만 유역으로 구분된다. 서봉지맥 以東지역은 안성천 유역에 해당하는데, 수계에 따라 오산천 유역, 황구지천 유역, 진위천 유역, 발안천 유역으로 다시 나눌 수 있다. 한편 화성·오산 일대를 비롯한 경기 남부 지역은 삼국시대 당시의 고지형을 고려해야 한다. 서해 인근의 화성, 평택시 일대는 간석지가 넓게 발달하여 전근대시기부터 간척사업으로 인해 급격한 지형 변화를 겪었기 때문이다. 안성천-진위천 유역 또한 潮水의

---

69) 선행연구에서는《삼국지》동이전에 실린 3세기 중엽 시기 마한 50여 개 국에 대한 지명을 音相似를 근거로 추정하기도 하는데, 오늘날 화성·오산 일대의 경우 '牟水國', '桑外國' 등으로 보는 견해(李丙燾, 1976 《韓國古代史硏究》, 博英社, 262~263쪽), 특정 '국'으로 비정되지 않는다고 보는 견해(박순발, 2013 앞 논문, 126~128쪽) 등 합의되지는 않은 상황이다. 다만 화성·오산 지역에서 확인되는 2세기대 이래 유적군의 위상과 분포로 보아 《삼국지》 동이전에 등장하는 '국' 외에도 복수의 정치체가 존재했을 가능성이 크다.

70) 화성·오산 일대는 근대 이후 급격한 행정구역 체제 변화를 겪었다. 조선시대 南陽都護府와 水原都護府를 계승한 남양군과 수원군이 1914년 행정구역 개편으로 인해 수원군으로 통합되었다. 이후 1949년 수원시와 화성군이 분리되었고, 1989년 오산읍이 오산시로 승격되어 화성군에서 분리되면서 오늘날의 행정구역 단위로 변화하였다.

영향을 크게 받는 感潮河川으로 현재의 하천 주변 농경지는 과거 저습지와 개흙이 넓게 발달된 구간이었다. 간척되기 이전의 해안선과 조수 범위를 추정하기 위해 일제시기 작성된 《朝鮮地形圖》(국토정보플랫폼 제공)와 수치정밀토양도(국립농업과학원 흙토람 제공)를 참조할 수 있다. [그림 1]의 바닷물의 영향을 받아 퇴적된 '해성평탄지'의 분포 범위를 볼 때 발안천, 진위천 유역 내륙 깊숙이 바닷물이 들어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1] 화성·오산 일대 토양 지형
(원 지도는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흙토람 제공)

화성·오산시 일대는 통일신라시대 漢州 소속의 '水城郡'[71]과 '唐恩郡'[72]에 해당하는 지역이다.[73] 당은군의 속현인 '車城縣'과 '振威縣'은 각

71) 《三國史記》 卷35 雜志4 地理2 新羅, "水城郡, 本高句麗買忽郡, 景德王改名. 今水州."

72) 《三國史記》 卷35 雜志4 地理2 新羅 "唐恩郡, 本高句麗唐城郡, 景德王改名. 今復故. 領縣二. 車城縣, 卒高句麗上忽縣, 景德王改名. 今龍城縣. 振威縣, 本高句麗釜山縣, 景德王改名. 今因之."

73) 최근 발굴조사 결과를 고려하면, 통일신라시대 水城郡은 오늘날 융건릉 일대의 수원고읍성(李南珪 외, 2000 《水原 古邑城》. 한신大學校 博物館), 唐恩郡은 당성 일대가 중심지였을 가능성이 높다(안신원 외, 2021《唐城 - 6차 발굴조사보고

각 평택시 서부의 안중읍 일대와 동부의 진위면 일대로 비정되고 있어,[74] 현재의 화성·오산시와 다른 연혁을 가지고 있다. 각 군현에 '買忽', '唐城', '上忽', '釜山'이라는 고구려 지명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지역 구분의 상한은 고구려 점령 당시 혹은 그 이전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와 같은 지역 구분의 큰 틀은 조선시대 '水原都護府'와 '南陽都護府'까지 이어지는 모습을 보인다. 전근대 시기 행정 단위는 자연지형에 따른 경계와 부합한다. 황구지천과 진위천이 합류하는 지점 이남은 과거 바닷물이 들어왔던 지역으로 하천과 해성평탄지의 분포가 오늘날의 화성시와 평택시의 경계와도 대체로 일치한다. 이에 화성·오산 일대는 서봉지맥·오두지맥을 기준으로 수성군과 당은군, 즉 동부 내륙 지역과 서부 해안 지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75]

이상의 자연지형, 연혁과 함께 본 논문에서는 특정 집단의 정체성을 반영하는 분묘 유적의 분포 양상과 특징을 살펴보고 지역 집단의 존재를 추론하고자 한다.[76] 화성·오산 일대에서 분묘 유적이 群을 이루어 분포해 있으며 지역성이 확인되는 사례를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화성시 화산동 일대 화산(108.1m) 부근에는 화산동 유적과 화산고분군이 입지한다.[77] 화산동 유적에서는 단순목관묘 3기가 조사되었으며 3기 모두 분묘 장축방향이 등고선에 직교하는 모습이다. 인근 화산고분군에서는 봉토를

서》, 한양대학교 박물관).

74) 정구복 외, 2012 《역주 삼국사기》4,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241~242쪽.

75) 박중국 또한 지리환경과 연혁을 고려하여 서봉지맥과 오두지맥을 경계로 화성·오산 일대를 '수원' 지역과 '남양' 지역을 구분하였다(박중국, 2019 〈화성시 일대 원삼국시대 취락의 분포와 전개양상〉 《화성시 발굴 유적과 유물의 재조명》, 화성시청, 67~76쪽). 서봉지맥·오두지맥이 위치하는 발안천 유역과 조암반도(화성시 우정읍·장안면 일대)의 경우 수원 지역과 남양 지역의 경계지대에 해당한다. 조암반도는 고려시대 水州의 속현 雙阜縣으로 별도 편성되었으며 조선시대에는 수원 영역으로 병합되었다. 발안천 하류 분향만 일대는 지형상 수원 지역에 속하지만 고려시대 이래 남양 지역의 월경지로서 존재했다.

76) 화성·오산 일대 유적 분포와 밀집도를 고려하여 '태안 유적군', '봉담 유적군', '향남 유적군', '길성리토성과 주변 유적군', '우정-장안 지역', '마도-서신 지역', '오산-동탄 유적군' 권역으로 나눈 선행연구가 있다(권오영, 2016 〈한성백제기 화성지역 정치체의 성장〉 《화성지역 고고학 연구의 현황과 쟁점》, 화성시청, 207~214쪽).

77) 京畿文化財硏究院, 2010 《華城 花山洞 遺蹟》; 權五榮·權度希, 2002 《花山古墳群》, 한신大學校博物館.

갖춘 수혈식석곽묘가 2기 조사되었는데, 이 또한 장축방향이 등고선에 직교하는 양상을 보이며 내부에서는 원저단경호와 은으로 장식된 마구류, 한성양식토기인 직구광견호가 출토되었다. 화산 정상부는 청동기시대 취락으로 이용되다가 백제 고분이 입지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다.[78] 또한 화산동 유적과 화산 고분군에서는 등고선 장축방향을 직교로 유지하고 원저단경호에 철기류 조합을 부장하는 전통이 확인된다. 화산 고분군의 경우 봉토를 쌓아 올리면서 층층이 葺瓦한 봉토분이 발견되어 특징적이다.

화성시 봉담읍에는 분묘 유적으로 마하리 고분군, 왕림리 노리재골 Ⅱ 유적이 분포하고 있다.[79] 고분군은 태봉산(223.8m) 산세를 따라 넓은 범위에 걸쳐 조성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최근에는 석실묘 6기와 석곽묘 47기 등이 추가로 보고되었다.[80] 현재까지 발굴 조사된 결과를 종합하면 이 일대 분묘 유적은 3세기 후반~5세기 전반으로 편년되고 단순목관(곽)묘-수혈식석곽묘-(횡구식)·횡혈식석실묘로 이행하는 묘제의 변천상이 확인된다. 한편 봉담읍과 함께 발안천 유역에 해당하는 화성시 향남읍에서는 토기 가마 유적인 가재리 유적, 취락 유적인 발안리 유적이 조사되었으나 분묘 유구가 확인되는 사례는 매우 드물다.[81]

화성시 향남읍 길성리·요리 일대 분묘 유적으로는 화성 요리고분군과 화성 송산리 유적이 조사되었다.[82] 묘제는 단순목관(곽)묘, 주구목관(곽)묘, 분구묘로 다양하다. 요리고분군 1호 목곽묘에서는 금동관모와 금동식리가 출토되어 주목된다. 요리 분구묘는 매장주체부가 파괴되어 구체적인 양상은 확인할 수 없으나 분구에서 길성리토성의 성벽 축조 방식과 같이 점토 덩어리를 쌓아 올리는 공법이 확인되었다.[83] 길성리·요리 일

78) 權五榮·權度希, 2002 위 책, 38쪽.
79) 李鮮馥·金成南, 2004 《馬霞里 古墳群》, 숭실대학교박물관·서울대학교박물관; 權五榮 외, 2011 《華城 旺林里 노리재골Ⅱ 百濟遺蹟》, 한신대학교박물관.
80) 기호문화재연구원, 2022 《화성 마하리·관항리 고분군》.
81) 발안리 마을유적의 경우 2기의 통나무 목관묘가 발견된 사례 외에는 아직까지 청동기시대 이래 고분군이 확인되지 않았다(畿甸文化財硏究院, 2007a 《華城 發安里 마을遺蹟》, 350~351쪽).
82) 韓國文化遺産硏究院, 2018 《華城 料里 古墳群》; 한울문화재연구원, 2018 《화성 송산리 유적》.

대 고분군은 분묘의 장축 방향이 평행으로 유지된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5세기경으로 추정되는 요리고분군보다 이른 시기의 분묘군은 아직 발굴조사되지 않았지만, 지표조사 결과 발굴이 완료된 유구 외에도 근방에 고분군이 넓게 분포했음이 확인되었다.[84] 또한 길성리·요리 인근에서 수습된 사창리 산 10-1번지 유물군(금동제 진식대금구 과판, 삼엽문환두대도, 금동제 이식, 금제 실모양 장식, 마구류, 판갑편, 유리 및 홍옥수 구슬 등 위세품류 등)은 분묘 출토 유물로 추정되는데,[85] 이는 위세품을 사여받을 정도의 세력을 지닌 길성리·요리 지역 집단이 특정 시점에 고분군을 조성했음을 방증한다.[86]

오산시에는 궐동, 청학동, 탑동·두곡동, 수청동 유적이 오산천 서편에 분포해있다.[87] 단순목관(곽)묘와 주구목관(곽)묘를 묘제로 사용하며 대규모 분묘군이 발굴 조사되었음에도 석곽묘·석실묘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오산 지역은 3세기에서 5세기 이후까지 주구목관(곽)묘가 조성되고 분묘 장축방향이 직교로 통일되는 모습을 보여 묘제의 지역색이 한성백제 후기까지 유지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화성시 마도면 백곡리 일대에는 백곡리 고분군이 입지해있다.[88] 근방에 청명산성과 저장수혈 유구가 발견되어 백곡리 일대에 유적군이 조성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백곡리 고분군은 남북 1.2km에 이르는 광범위

---

83) 권오영, 2020b 〈경기 남부 최강자가 묻혀 있는 화성 요리고분군〉, 《요리 금동관 다시 깨어나다》, 화성시역사박물관, 24쪽.

84) 지표조사를 통해 화성 요리고분군 인근 능선을 따라 고분군이 분포해있다는 점이 지적된 바 있다(한신大學校博物館, 2003 《吉城里土城》, 42쪽). 최근 요리 고분군 바로 인접한 구간에서 분묘 유구가 추가로 발견되어 조사가 진행 중이다(국방문화재연구원, 2021 〈화성 사창리(산5-2번지 일원) 공장 신축부지 내 유적발굴조사 전문가 검토회의 자료〉).

85) 권오영·권도희, 2003 앞 논문, 101쪽.

86) 고분군 외에 인접한 길성리토성에서 확인된 유물 또한 이 일대에 강력한 지역 집단이 존재했음을 보여준다. 길성리토성 초축 성벽층에서 출토된 靑銅盤部先金具는 변·진한 권역에 국한되어 출토되며 마한 권역에서는 출토되지 않는 외래계 유물인데, 이는 당시의 지역 집단이 외부 세력과 교역을 할 정도의 세력을 갖추고 있었음을 의미한다(中部考古學硏究所, 2013 앞 책, 293쪽).

87) 겨레문화유산연구원, 2013 《오산 청학동 유적》; 기호문화재연구원, 2013 《烏山 塔洞·斗谷洞 遺蹟》; 京畿文化財硏究院, 2012 《烏山 水淸洞 百濟 墳墓群》.

88) 韓國精神文化硏究院發掘調査團, 1994 《華城 白谷里古墳》.

한 지역에 걸쳐 분포하는데 조사된 유구는 4기이다. 조사 유구는 수혈식 석곽묘로 네 모서리가 둥그스름한 장방형 평면을 지녔으며 벽면을 쌓을 때 괴석 모양의 할석을 사용하였다. 도굴 등으로 많이 파괴되었으나 승문타날 심발형토기와 한성양식토기(뚜껑, 광구호 등), 철제 무기류, 마구류, 소찰 갑옷편 등 다양한 유물이 출토되었다. 1호묘에서 출토된 마구류를 통해 볼 때 백곡리 고분군은 4세기 후반 전후에 조성되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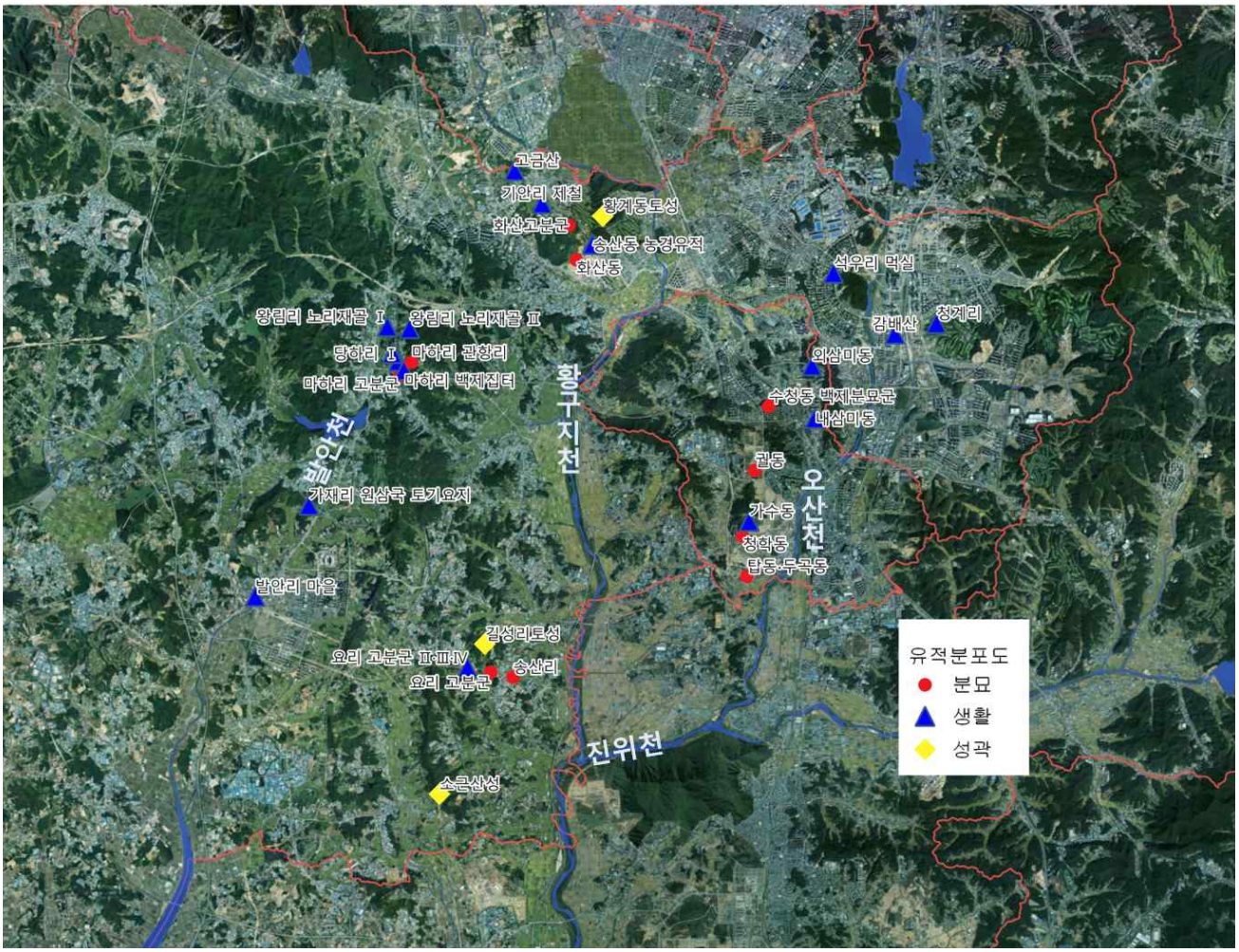
화성·오산 일대를 대상으로 지역 정체성을 드러내는 고분군의 분포를 살펴본 결과, 백제가 본격적으로 성장하기 이전 시기인 2~3세기대 유적군이 분포해있는 동부 내륙(과거 水城郡 관할) 지역이 주목된다. 서부 해안 지역(과거 唐恩郡 관할)의 경우 아직 4세기 이전의 분묘 유적이 확인되지 않았다. 조암반도(화성시 우정읍·장안면)에서는 운평리토성·한각리토성과 유물산포지가 분포하고 있어 지역 집단이 존재했을 가능성이 크다.[90] 그러나 지표조사 외 정식 발굴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분묘 유적 또한 조사된 바 없어서 지역 집단의 특징과 성격을 도출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2절에서는 4세기 이전 분묘군과 취락이 확인되는 화성·오산 동부 내륙 지역으로 주요 분석 범위를 한정하겠다. 분석 범위 내에서 확인되는 주요 유적은 [그림 2], [표 3]과 같다.

다음으로 분석 범위에 해당하는 동부 내륙 지역 내 세부 권역을 설정하겠다. 수계, 지맥 등 자연 환경은 시대를 거슬러 올라갈수록 지역 집단 간 상호작용과 지역 단위 형성을 결정짓는 주요 요인에 해당한다.[91] 특히 하천은 자연경계인 동시에 지리적 장애가 비교적 없는 유역권을 형성하며 지역 단위 공동체의 경제 활동과 상호작용의 기반이 되기 때문에 공간고고학 분야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다.[92] [그림 2]에서 보듯이 화성·오산 일대 고분군은 자연지형을 경계로 분포해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앞서 검토한 각 고분군의 묘제, 분묘의 장축방향 등 세부적 특징은

89) 成正鏞, 2000 앞 논문, 115쪽.
90) 경기도박물관, 1999 《도서해안지역 종합학술조사》 Ⅰ, 258~280쪽.
91) 이희준, 2007 《신라고고학연구》, 사회평론, 45~50쪽.
92) 강동석, 2018 〈지석묘사회의 취락패턴과 복합화 - GIS를 활용한 영산강중류역 취락패턴의 재구성〉 《韓國考古學報》109, 한국고고학회, 275쪽.

하천 유역별로 다르다. 이는 하천 유역이 곧 지역 집단의 개별 단위를 의미하지 않더라도 문화적 특징을 구분하는 데에 어느 정도 유효한 기준임을 보여준다.[93] 한편 최근에는 하천 유역 이하의 단위로 세부 권역을 나눌 때 전근대시기 '面' 단위의 공간적 범위를 적용한 연구가 확인된다. 이성준은 조선시대 '면' 단위(반경 8km)가 고고학적 지역 특성을 구분하는 데에 의미가 있다고 판단하였고 조선 후기 서적인 《林園經濟志》의 定期市 분포 단위를 분석하여 대면적 상호작용 범위를 추출하였다.[94] 박중국은 지방행정구역 개편 이전 1912년 간행된 《舊韓國地方行政區域名稱一覽》의 '면' 단위를 토대로 유적군을 분류하고 '소지역권'을 설정하였다.[95] 이와 같은 '면' 단위 분류 방식은, 하천 유역 내부에서도 문화상이 다른 경우가 많은 경기지역에 적용하는 데 의의가 있다. 하지만 현재 화성·오산 일대에서 발굴된 유적군은 시기가 편중되어 있으며 또한 발굴조사의 불균형 문제를 고려해야하기 때문에 '면' 단위의 유적군이 곧 지역 집단의 존재를 의미한다고 해석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면' 단위보다 한 차원 광범위한 단위인 하천 유역을 세부 권역 설정의 기준으로 삼고자 한다.

93) 이와 관련하여 오산천 유역의 화성 감배산 유적, 청계리 유적에서 오산천 건너편의 오산 수청동 유적으로 유리구슬과 대옹·단경호를 공급했다는 점에서 3세기 후반 하천 유역권이 정치적 단위로 성립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한 견해(박중국, 2019 앞 논문, 114~115쪽)가 있다.
94) 이성준, 2018 《한성백제의 성장》, 진인진, 267~269쪽.
95) 박중국, 2019 앞 논문, 74~76·114~115쪽.



[그림 2] 화성·오산 일대 주요 유적 분포도

[표 3] 화성·오산 일대 하천 유역별 주요 유적

하천 유역	주거·생산 유적	성곽 유적	분묘 유적
황구지천	• 고금산 유적 • 기안리 제철유적 • 화산동 유적 • 송산동 농경유적 • 황계동 유적	• 황계동 유적	• 화산동 유적 • 화산 고분군
발안천	• 당하리 Ⅰ 유적 • 마하리 백제집터 유적 • 왕림리 노리재골 Ⅰ 유적 • 왕림리 노리재골 Ⅱ유적 • 당하리 Ⅱ 유적 • 가재리 원삼국 토기요지 • 발안리 마을 유적		• 마하리 고분군 • 마하리·관항리 고분군 • 왕림리 노리재골 Ⅱ 유적
진위천	• 요리 고분군 Ⅱ·Ⅲ·Ⅳ	• 길성리토성 • 소근산성	• 요리 고분군 • 송산리 유적
오산천	• 청계리 유적 • 감배산 유적 • 석우리먹실 유적 • 가수동 유적 • 외삼미동 유적 • 내삼미동 유적		• 궐동 유적 • 청학동 유적 • 탑동·두곡동 유적 • 수청동 백제분묘군

2. 권역별 지역 집단의 특징과 성격

1) 황구지천 유역

황구지천은 광교산에서 발원하여 화성시 황계동 부근에서 본류를 이루며 평택시 서탄동에서 진위천과 합류한다. 황구지천 유역의 주요 유적은 화산동 일대에 밀집하여 분포해있다. 황구지천 유역 주요 유적 현황을 정리하면 [표 4]와 같다.

[표 4] 황구지천 유역 주요 유적 현황

유적 종류	유적명	유구	출토유물	중심 시기[96]
주거 생산	고금산 유적[97]	주거지 3기, 수혈 6기 등	경질무문토기, 옹, 동이, 시루 등	2세기 후반~ 3세기 전반
	기안리 제철유적[98]	제철로 10기, 공방지 5기, 수혈, 탄요 등	경질무문토기, 낙랑계 토기, 대구경 송풍관, 철재, 단조박편 등	2세기 후반~ 3세기
	송산동 농경유적[99]	논, 관개시설, 사람·가축 발자국 등	대옹, 원반형 토제품, 기와류 등	3세기 말~ 4세기 전반
	화산동 유적[100]	주거지 1기	뚜껑, 호, 기와 등	4세기 전반
분묘		목관묘 4기	원저단경호, 심발형토기, 철모, 금박 유리구슬 등	3세기 전반
	화산 고분군[101]	수혈식석곽묘 2기	원저단경호, 직구광견호, 장식마구류, 철촉, 꺾쇠, 원두정 등	5세기 전반
성곽	황계동 유적[102]	토성 내부: 주거지 3기, 수혈 등	타날문토기편, 호, 파수부편 등	4세기 후반~ 5세기 전반

화성 고금산 유적은 고금산 정상부에 위치한 취락 유적으로 주거지 형식은 출입구가 없는 사주식 주거지이다. 화산동 유적에서 확인된 주거지의 경우, 방형 평면에 비사주식으로 주혈이 배치되어있으며 '一'자형 부뚜막이 확인된다. 내부에서는 4세기 전반 시기의 백제 토기인 뚜껑, 단경호가 출토되었다. 한편 황계동 유적 주거지는 모두 타원형 평면의 비사주식 형식이다. 화산동 유적군의 주거 유적은 3세기 전후 고금산 유적으로 대표되는 사주식 주거지가 출현했다가 4세기부터 비사주식 주거지

96) 이하 표에서의 '중심 시기'는 보고서의 견해와 백제 토기 등 편년 선행연구를 참조하여 조정하여 기입하였다. 보고서의 연대를 조정·보완할 경우 본문에 그 내용을 서술하였다.
97) 서울大學校博物館, 2002 《華城 古今山遺蹟》.
98) 畿甸文化財硏究院, 2007b 《華城 旗安里 遺蹟》.
99) 한신대학교박물관, 2009 《華城 松山洞 農耕遺蹟》.
100) 京畿文化財硏究院, 2010 《華城 花山洞 遺蹟》.
101) 權五榮·權度希, 2002 앞 책.
102) 中部考古學硏究所, 2021 《華城 黃鷄洞 遺蹟》.

가 들어서는 모습이 확인된다. 난방·취사 시설은 원삼국 시기부터 '一'자형 부뚜막이 유지되는 양상을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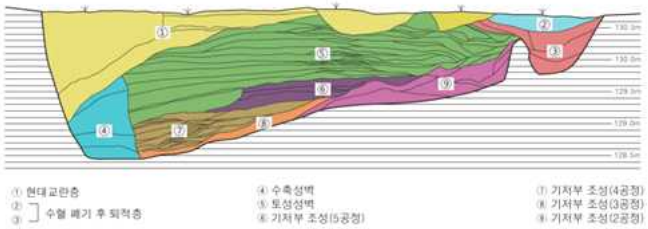
한편 생산 유적으로는 기안리 제철유적과 송산동 농경유적이 입지해 있다. 기안리 제철유적에서는 내부에서 다수의 파쇄 철광석, 송풍관, 유리질노벽, 슬래그 등이 출토되면서 이곳에서 제련·정련·단야 공정이 이루어졌음을 추측할 수 있다. 태토 및 제작기법이 서북한 지역과 같은 낙랑계 토기편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대구경 송풍관은 그 제작기법이 낙랑토성 출토 製瓦術과 같다는 점이 선행연구에서 지적된 바 있다.[103] 기안리 유적의 상한은 연구자마다 다르지만[104] 대체로 2세기 후반~3세기 전반으로 편년된다. 송산동 농경유적은 최소 4000㎡(1212평)을 넘어서는 것으로 추정되며 내부에서 계단식 수전, 護岸 역할의 말뚝 열, 사람 발자국과 소, 말 발자국이 확인되었다. 수로 내부에서는 3세기 후반~4세기 전반 시기의 백제 토기류가 보고되었다.

성곽 유적으로 황계동 유적이 존재한다. 보고서에 의하면 황계동 유적은 둘레 420m 정도 규모의 테뫼식 토성이며 주변에 소규모 보루(성황산성)가 배치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그림 3]에서의 단벽 토층을 통해 볼 때, 보고자는 외피 토루가 확인되지 않고 토성 성벽이 수직에 가깝게 축조되었다는 점에서 5세기 전후 축조된 순수판축토성으로 판단하였다.

---

103) 김무중, 2004 〈華城 旗安里製鐵遺蹟 出土 樂浪系土器에 대하여〉 《百濟硏究》40, 충남대학교 백제연구소, 83~85쪽.

104) 김무중은 활석혼입의 화분형 토기가 출토되지 않는 점을 근거로 3세기를 전후한 시기에서 3세기 중반 이전으로 비정하였고(김무중, 2004 위 논문, 85쪽) 박경신은 낙랑계 시루를 근거로 3세기 전반으로 편년하였다(박경신, 2019 〈原三國時代 中島類型 聚落의 編年과 展開〉, 숭실대학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147쪽). 박중국은 Ⅳ-53호 수혈 출토 단경호와 원저 발, 옹의 기형을 근거로 기안리 유적 성립 시점이 2세기 후반으로 소급될 가능성을 제시하였다(박중국, 2019 앞 책, 92쪽).



[그림 3] 황계동 유적 동쪽 단벽 토층도
(中部考古學硏究所, 2021)

분묘 유적으로는 화산동 유적과 화산고분군이 분포한다. 화산동 유적에는 단순목관묘가 조영되는데 부장품으로 원저단경호에 무문심발형토기 조합(1호)과 금박유리구슬을 비롯한 유리구슬 다수(3호), 철모(4호) 등이 출토되었다. 화산 고분군의 경우 석곽묘 2기가 조사되었으며 SM 1호분에서는 직구광견호와 마구류(등자, 판형운주, 인수), 철기류(철촉, 철겸, 도자) 등이 출토되었다.

황구지천 유역 내 화산동 일대 지역 집단의 특징과 시기별 양상을 서술하면 다음과 같다. 3세기 전반 생활 유적에서 확인되는 사주식 주거지와 분묘에 원저단경호+심발형토기에 철모를 부장하는 양상은, 당시 화산동 일대의 지역 집단이 호서지역과 문화상을 공유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비슷한 시기인 3세기 전후 기안리 제철유적에서는 낙랑계 이주민 집단이 확인되고 있어서,[105] 이들이 재지 지역 집단과 공존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106] 기안리 유적의 운영 주체는 누구였을까. 기안리 제철유적이 운영

105) 3세기 전후한 시기 기안리 유적에서 낙랑계 이주민 집단이 확인되는 정황은 《삼국지》 동이전 기사에서 2세기 말~3세기 초 군현민이 '韓國'으로 이탈했다는 기사(《三國志》 卷30 魏書 東夷傳 韓條 "桓靈之末 韓濊彊盛 郡縣不能制 民多流入韓國. …", 《삼국사기》 고이왕 13년(246) 낙랑·대방군이 고구려를 공격하는 틈을 이용하여 낙랑 변방 주민을 습격해 빼앗았다가 다시 돌려주는 기록(《三國史記》 卷24 百濟本紀 第2 溫祚王 27年 秋八月條, "魏幽州刺史毌丘儉與樂浪太守劉茂朔方太守王遵伐高句麗, 王乘虛, 遣左將眞忠, 襲取樂浪邊民, 茂聞之怒, 王恐見侵討, 還其民口.") 등에서 확인된다.

106) 화산으로부터 약 5km 반경에 위치한 수원 서둔동 유적에서도 경기 동부·강원 영서 일대에서 주로 확인되는 주거지 형식과 유물 양상이 확인되었다. 보고서에서는 3세기 전반에 조성된 유적으로 보았는데, 6기의 주거지 중 1·3·4호 주거지 3기가 출입구가 부가되어 있으며 1호 주거지는 출입구 반대편 장벽이 매우 뚜렷한 둔각을 띠고 있는 평면 육각형으로 판단된다(최병현 외, 2010 《水原 西屯洞遺蹟》, 숭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 127~134쪽). 이는 비슷한 시기 인근의 고

되고 낙랑계 유물이 사용되던 3세기 전반 무렵은 백제가 아직 《삼국지》 한조의 '伯濟國'으로서 존재했을 시기이다. 이 무렵 조성된 화산동 유적의 부장품 조합과 금박유리구슬과 같은 위세품을 고려하면, 화산동 일대 지역 집단은 호서지역 일대의 문화상을 공유하면서도 나름의 독자적인 위상을 유지했던 것으로 보인다.[107] 따라서 당시 백제가 낙랑계 주민을 직접 徙民시켜 기안리 일대에서 제철 생산을 도모했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다만 이후 기안리 유적에서 한성양식토기인 직구호와 생활용기인 승문타날 장란형토기 등이 출토되는 것으로 보아 4세기대 백제가 기안리 유적을 점거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인근 화성 송산동 농경 유적과 화산동 유적과 같은 생활 유적에서 3세기 후반~4세기 전반으로 편년되는 뚜껑 등의 백제 토기가 출토되고 있어 백제 중앙과 토기문화를 공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생활 유적에서 출토된 토기류 대다수가 일상생활 용기이며 4세기 후반 이후 완성되는 고배, 삼족기, 기대와 같은 기종은 거의 확인되지 않아 4세기 후반에는 중심 취락으로 운영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5세기 전반 수혈식석곽묘 형식에 한성양식토기(직구광견호), 장식 마구류가 부장된 화산 고분군 SM 1호분과 봉토에 즙와하여 특이성을 보이는 SM 4호분은 백제와의 관계를 맺으면서도 위상을 유지했던 지역 집단의 존재를 드러낸다. 동시기 백제는 중앙 주도로 황

금산 유적에서 사주식 주거지가 조성되는 것과는 다른 양상이다.

107) 기안리 제철유적의 조영 주체와 관련하여, 천안·아산 지역의 목지국이 직·간접적으로 관여하여 제철유적을 조성하고 이후 백제가 낙랑계 제철 기술자들을 합세시킴으로써 거점 제철기지로 육성시켰다고 해석한 견해도 있다(김길식, 2017a 〈원삼국~백제 한성기 경기남부지역 제철기지 운용과 지배세력의 변화 추이〉 《百濟文化》56, 공주대학교 백제문화연구소, 99쪽). 즉, 화산동 유적의 부장품 조합, 고금산 유적의 사주식 주거지, 기안리 유적 내 주구부 주거지가 확인된다는 점에 주목하여 천안·아산 일대 중심의 '목지국 문화'와 연결될 여지가 있다고 보았다. 다만 화산동 유적 내 분묘는 주구가 없는 단순목관묘이고 장축방향이 등고선과 직교한다는 점에서 지역색을 드러내고 있어 등고선에 평행하는 방향의 주구목관묘를 축조하는 전형적인 호서지역 문화와는 다른 모습이다. 이러한 양상은 진위천 유역의 평택 가곡리 분묘 유적에서 천안·아산 지역의 주구목관묘 문화가 그대로 확인되는 것과 비교된다. 또한 천안·아산 일대를 중심으로 분포하는 위신재 격의 馬形帶鉤가 진위천 주변의 평택 마두리 유적까지를 경계로 그 북쪽을 넘지 않는다는 점도 주목된다. 이에 목지국 세력이 수원 근처까지 진출하여 제철기지를 운영할 만큼의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는 것 또한 신중할 필요가 있다.

계동 유적 성곽을 조성하면서 보다 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것으로 이해된다.

2) 발안천 유역

발안천은 봉담읍의 태봉산·건달산 일대에서 발원하여 서해로 유입되는 하천이다. 발안천 유역 내 주요 유적 현황을 정리하면 [표 5]와 같다.

[표 5] 발안천 유역 주요 유적 현황

유적 종류	유적명	유구	출토유물	중심 시기
주거 생산	당하리 Ⅰ 유적[108]	주거지 1기	낙랑계 토기, 심발형토기, 장란형토기, 송풍관 등	3세기
	마하리 백제집터 유적[109]	주거지 2기	경질무문토기 심발, 장란형토기, 호 등	3세기~4세기
	왕림리 노리재골 Ⅰ 유적[110]	주거지 3기, 수혈 13기, 추정 빙고시설 등	타날문 취사용기, 호, 동이, 뚜껑, 고배, 기와 등	4세기 후반
	당하리 Ⅱ 유적[111]	주거지 1기, 수혈 5기 등	타날문 취사용기, 호, 고배, 삼족기, 기와 등	4세기 후반~5세기 중후반
	가재리 원삼국 토기요지[112]	토기가마 4기, 공방지 1기 등	경질무문토기, 타날문토기, 대옹 등	3세기
	발안리 마을 유적[113]	주거지 59기, 수혈, 250기, 구상유구 4기, 고상식 건물지 39기 등	경질무문토기, 장란형토기, 심발형토기, 광구호, 주조괭이, 철도자, 철촉, 전돌 등	3세기~5세기
	왕림리 노리재골 Ⅱ유적[114]	주거지 3기, 수혈 12기	타날문 취사용기, 호, 대옹, 대도, 도자, 철정 등	4세기~5세기
분묘		석실묘 1기	고배, 관정, 꺾쇠, 대도, 유리구슬 등	5세기 중엽
	마하리 고분군[115]	목관묘 15기, 목곽묘 1기, 석곽묘 39기, 석실묘 1기	원저단경호, 심발형토기, 장란형토기, 직구단경호, 금제이식, 유리구슬 등	3세기 말~5세기 전반
	마하리·관항리 고분군[116]	석곽묘 51기, 석실묘 6기	원저단경호, 심발형토기, 병, 환두대도, 마구류 등	4세기 후반~5세기

108) 李鮮馥·金成南, 2000 《華城 堂下里Ⅰ 遺蹟》, 崇實大學校博物館·서울大學校博物館.

발안천 상류 유역에는 태봉산을 중심으로 봉담읍 왕림리, 당하리, 마하리 일대를 아우르는 대규모 유적군이 존재한다. 봉담읍에서는 화성 당하리Ⅰ 유적을 시작으로 취락군이 조성되었다. 당하리Ⅰ 유적 출입구가 부가된 평면 '凸'자형 주거지가 확인되었고 유적 내부에서는 분형토기, 완 등 낙랑계토기와 송풍관, 슬래그, 철광석 등이 발견되었다. 이러한 유물상은 기안리 제철유적 출토 유물과 유사하다는 점에서[117] 두 유적의 연결 관계를 추정해볼 수 있다. 이후 당하리 Ⅱ유적, 왕림리 노리재골 Ⅰ 유적, 왕림리 노리재골 Ⅱ 유적 주거지, 마하리 백제집터 유적이 생성된 것으로 보인다. 봉담읍 일대에서 확인되는 주거지는 평면 凸자형 주거지, 방형의 전형적인 사주식 주거지, 평면 육각형에 벽주와 4개 주혈이 부가된 결합형의 주거지 등 형식이 다양하여 특징적이다. 출토 토기류의 경우 대다수가 심발형토기, 장란형토기, 호, 옹류 등 연질의 일상생활 용기인 가운데 고배·삼족기·기대 등 한성양식토기 고급 기종은 소수 출토되고 있다.

봉담읍 일대 분묘 유적에서는 앞서 검토했듯이 수혈식석곽묘·횡구식석실묘·횡혈식석실묘가 함께 발견된다. 그런데 마하리·왕림리 일대에서 확인되는 횡혈식석실묘는 평면 형태, 연도 위치, 부가 시설(주구, 배장곽, 배수로) 측면에서 형식이 다양하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또한 부장품의 경우 다수의 토기류를 부장하였으며 위세품은 드물게 출토된다.[118]

---

109) 金成南·金珍京, 2005 《華城 馬霞里 百濟 집터 - 馬霞里 33番地 一帶 試掘調査報告書-》, 서울대학교박물관.
110) 中部考古學硏究所, 2012 《華城 旺林里 노리재골Ⅰ 遺蹟》.
111) 權五榮·金斗權, 2004 《華城 堂下里Ⅱ 遺蹟》, 숭실대학교 박물관·한신대학교박물관.
112) 權五榮·李亨源·李美善 2007《華城 佳才里 原三國 土器 窯地》, 한신대학교박물관.
113) 畿甸文化財硏究院, 2007a 앞 책.
114) 權五榮 외, 2011 《華城 旺林里 노리재골Ⅱ 百濟遺蹟》, 한신대학교박물관.
115) 湖巖美術館, 1998 《華城 馬霞里 古墳群》; 李鮮馥·金成南, 2004 《馬霞里 古墳群》, 숭실대학교박물관·서울대학교박물관.
116) 기호문화재연구원, 2022 앞 책.
117) 김무중, 2004 앞 논문, 85~86쪽.
118) 마하리·관항리 고분군 1호~6호 석실묘에서는 토기류와 철기류 위주의 부장품이 확인되었고, 장신구가 없다.

한편 봉담읍 일대 분묘 유적에서는 3세기 후반 이래 횡혈식석실묘제, 한성양식토기 등 한성 중앙에서 확인되는 물질문화 요소가 시간에 따라 새롭게 추가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4] 화성 마하리·관항리 고분군 석실묘 분포 전경
(기호문화재연구원, 2020 《화성 당하~오일간 도로확·포장공사부지 문화재 발(시)굴조사 약보고서》, 47쪽)

[표 6] 봉담읍 일대 석실묘 현황
(기호문화재연구원, 2022 앞 책, 287쪽 표24 수정 후 인용)

유적	호수	평면형태	연도	출토유물	비고
마하리 관항리 유적	1	방형	우	단경호, 심발, 병, 철도자, 철촉, 과판, 철겸 등	
	2	방형	좌	단경호, 직구호편, 직구소호, 심발, 관정 등	부장곽
	3	방형	중	단경호, 광구호, 장란형토기, 환두대도, 철도자, 철부, 재갈, 철겸 등	
	4	횡장방형	중	심발, 완, 철도자, 철촉, 교구 등	
	5	방형	우	장란형토기, 심발편, 철도자, 관정 등	주구, 배장곽
	6	방형	우	심발, 철도자, 주조괭이, 철겸 등	주구, 배장곽
마하리 고분군	1	횡장방형	우	직구단경소호, 장란형토기, 심발, 금제이식, 철도자, 철촉, 교구 등	
왕림리 노리재골 Ⅱ 유적	1	방형	좌	호, 고배편, 대도, 관정 등	주구, 배수로

봉담읍 일대 생활 유적과 분묘 유적을 검토한 결과, 해당 지역 집단은 4세기대 이래 물질문화와 생산 기술 측면에서 백제 중앙과 친연성을 강하게 유지했지만 위상은 높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4세기 중엽 이후에 조성된 당하리 Ⅱ 유적에서는 기와류 뿐만 아니라 도성 지역에서만 주로 확인되는 塼이 출토되는데, 이는 당하리 Ⅱ 유적이 백제 중앙과 기술적으로 연결되어있음을 시사한다. 당하리Ⅰ 유적에서 출토된 광구호가 기형이나 제작 기법 측면에서 백제 중앙에서 제작된 후 반입되었다고 본 견해[119] 또한 참조할 수 있다. 다만 생활 유적에서 한성양식토기 고급 기종은 거의 확인되지 않는데, 이는 주변의 오산천 유역과 진위천 유역의 취락·성곽 유적에서 기대, 고배 등의 고급 기종이 확인되는 것과는 다른 모습이다. 분묘 유적에서도 비슷한 양상이 확인된다. 묘제 측면에서 백제 권역에서 이른 시기의 횡혈식석실묘가 등장하지만[120] 묘제에 비해 부장품 위상은 떨어지는 모습이다.[121] 또한 백제 중앙과 같은 요소를 공유하더라도 구체적인 양상에서 차이가 확인된다. 예를 들어 마하리·관항리 고분군에서는 석실묘 옆에 배장곽을 따로 두어 토기를 부장하는 양상이나 주구를 연접하여 조성하는 등 백제 중앙과는 다소 이질적인 모습을 보인다. 이는 석실묘라는 묘제가 해당 지역에서 여러 형식으로 발전·분화했으며 석실묘 축조 집단의 계통 또한 일원적이지 않고 다양했음을 보여준다.[122]

---

119) 이남규·권오영·문동석, 2004 〈경기 남부 백제유적의 분포양상과 역사적 의미〉 《百濟硏究》40, 충남대학교 백제연구소, 125쪽.

120) 조가영, 2018 〈한성기 횡혈식석실분의 출현과 전개〉 《동아시아 고분문화와 백제 왕릉의 위상 발표자료집》, 서울특별시, 39쪽.

121) 위세품류는 素環 금제이식, 유리구슬 정도로 주변의 오산천 유역, 진위천 유역에 비해 비교적 낮은 위상의 부장품이 확인된다. 부장품 중 위세품과 철기류가 빈약하다는 점은 권오영, 2019 〈마하리 고분군〉 《화성시 발굴 유적과 유물의 재조명》, 화성시청, 134쪽에서 지적된 바 있다.

122) 이와 관련하여 금강 유역의 연기 대평리 분묘 유적의 축조 집단을 해석한 선행연구가 참조된다(성정용, 2016 〈馬韓·百濟地域 墳丘墓의 出土遺物과 性格〉 《先史와古代》49, 한국고대학회, 79~80쪽). 연기 대평리 유적에는 매장주체부가 비교적 얕은 單葬 토광에 주구들이 연접한 분구묘 90여 기가 입지해있다. 위 선행연구에 따르면 대규모의 묘역이 조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출토 유물은 무기류가 거의 없고 농공구류 일색으로 단순한 구성을 보인다는 점에서 농경 종사 집단의 묘지군으로 해석되며, 이는 한성백제의 지방으로 편제된 지역에서 분구묘를

한편 봉담읍으로부터 7km 정도 거리의 발안천 하류에는 화성 발안리 마을 유적이 입지해있다. 향남읍 발안리 인근에는 현재까지 2~5세기대 고분군이 발견되지 않았지만, 생활유적인 발안리 마을 유적에서 주거지, 창고용도의 굴립주건물지, 다수의 수혈과 구상유구가 발견되어 주목된다. 경질무문토기만 출토되는 '원삼국기' 유구와 심발형토기·장란형토기가 확인되는 '한성백제기' 유구가 구분되어 크게 두 시기로 나눌 수 있다.[123] 원삼국기인 3세기대에 경질무문토기 옹, 발, 시루 등이 출토되는 '呂'·'凸' 자형 주거지(11호, 52호, 19호 등)가 조성되다가,[124] 4세기 이후에는 평면 방형계 4주식 주거지 혹은 결합된 형식의 주거지가 등장하는 모습을 보인다. 특히 4세기 이후에는 취락 내부에 저장기능의 수혈 창고군, 구획·배수·의례 기능 등을 지닌 구상유구, 대규모 출입구 부가 형식의 22호와 27호 주거지가 조성되는 등 유구 재편 현상이 확인된다. 출토 유물 측면에서도 4세기 이후 주조괭이를 비롯하여 철겸, 철도자, 철촉 등 철기류의 출토량이 증가하며 한성양식토기[125]가 5세기대까지 꾸준히 출토되어 특징적이다. 이상의 유구 조영 양상과 출토유물의 변화상을 고려하면 4세기 어느 시점 발안리 취락이 재편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축조할 수 있는 집단이 농경 종사 집단까지 확대되는 현상으로 볼 수 있다고 한다. 봉담읍에 조성된 분묘군 또한 석곽묘, 석실묘를 포함한 대규모의 묘역이 조성되었으나 부장품, 입지 측면에서 일원적인 위계가 존재했다고 해석하기 어려우며 묘제의 형식도 다양하다는 점에서, 석곽묘·석실묘 축조 집단이 비교적 광범위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

123) 畿甸文化財硏究院, 2007 앞 책, 386~387쪽.

124) 이는 주변의 경기 서부·남부 지역에서 대체로 사주식 주거지가 확인된다는 점에서 다소 돌출적이다. 가령 인근의 화성 제암리 383-15번지 유적에서 확인된 수혈주거지 1기 또한 사주식 주공배치를 보인다(한양문화재연구원, 2020 《화성 제암리 383-15번지 유적》, 56~57쪽). 이에 발안리 유적이 발안천 하류에 위치하고 있으며 바닷물이 들어오는 포구와 인접해있다는 입지적 특징을 고려하여 한강유역에서 이주한 집단에 의해 조성된 취락으로 판단한 견해도 있다(박중국, 2019 앞 논문, 101쪽).

125) 화성 발안리 유적을 대상으로 한 편년 연구에 의하면, 발안리 유적에서는 4세기 어느 시점에 백제 토기가 급속도로 유입되었으며 경부돌대광구호와 고배 대각편의 존재 등으로 볼 때 5세기 중엽까지 점유되었다고 한다(한지선, 2013 앞 논문, 28~47쪽).

3) 진위천 유역

화성시 향남읍 길성리·요리, 양감면 송산리 일대에는 길성리토성을 비롯하여 주거, 분묘 유적과 소근산성이 입지해있다. 해당 유적군은 진위천의 지류인 천천과 관리천 유역에 속해있다. 진위천 유역 내 주요 유적 현황을 정리하면 [표 7]과 같다.

[표 7] 진위천 유역 주요 유적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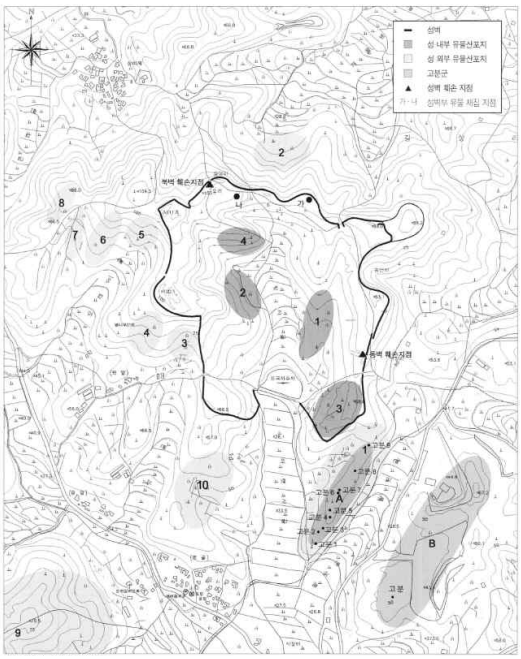
유적 종류	유적명	유구	출토유물	중심 시기
주거 생산	요리고분군 Ⅱ·Ⅲ·Ⅳ지점 126)	주거지 9기, 수혈 14기, 추정 빙고시설 등	심발형토기, 장란형토기, 직구단경호, 기와, 철부, 방추차, 돌절구 등	4세기 후반 ~5세기
분묘	요리고분군 127)	목관(곽)묘 7기, 분구묘 1기, 옹관묘 1기 등	원저단경호, 심발형토기, 환두대도, 마구류, 농공구류, 철정, 꺾쇠, 금동관모, 금동식리, 금제이식 등	5세기
	송산리 유적128)	목관(곽)묘 4기 주구목관(곽)묘·분구묘 4기 등	원저단경호, 심발형토기, 광구장경호, 철검, 주조철부 등	4세기 후반 ~5세기
성곽	길성리토성 129)	토성 내부: 주거지 30여기, 수혈 38기, 토기가마 2기, 굴립주건물지 3기 등	경질무문토기편, 심발형토기, 장란형토기, 대옹, 기와 등	3세기 후반 ~4세기 전반
성곽	소근산성 130)	토성 내부: 주거지 6기, 수혈 19기	대옹, 호, 고배, 삼족기, 기대, 찰갑편, 단조철부, 철촉, 등자, U자형 삽날, 돌절구 등	5세기

126) 韓國文化遺産硏究院, 2018 앞 책.
127) 韓國文化遺産硏究院, 2018 위 책.
128) 한울문화재연구원, 2018 《화성 송산리 유적》.
129) 한신大學校博物館, 2003 앞 책; 權五榮·朴信明·羅惠林 2010 《華城 吉城里土城 Ⅰ》, 한신대학교박물관; 성정용·전희경·남상원, 2011 《華城 吉城里土城 Ⅱ》, 충북대학교박물관; 韓國文化遺産硏究院, 2012b 《華城 料里 270-4番地 遺蹟》; 中部考古學硏究所, 2013 앞 책.
130) 이헌재 외, 2012 《소근산성》, 경기도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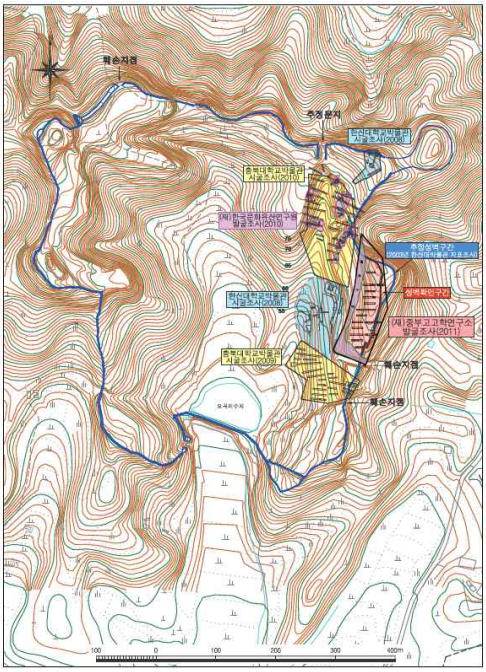
길성리토성은 북벽이 높고 동벽과 서벽이 남쪽으로 가면서 낮아지는 포곡식 토성으로 주요 방어선이 북쪽으로 판단된다. 길성리토성은 수차례에 걸쳐 조사가 진행되었는데 성벽 절개 이후 점토덩어리, 목탄, 암반풍화토 등 물성이 다른 흙을 교대로 쌓는 '交互盛土' 방식을 사용했다는 것이 밝혀졌다.[131] 토성 내부에서는 주거지, 고상 건물지 및 주혈군, 토기 가마, 수혈유구 등 다양한 생활 유구가 확인되었다. 출토 유물은 연질의 격자문계 생활용기가 대다수이다.[132] 성벽을 파괴하고 축조된 6호 주거지가 성벽의 하한 자료에 해당하는데, 주거지 내부 출토 유물(단경호·심발형토기)과 성벽 내부 출토된 토기류 모두 3세기 후반~4세기 중엽 시기로 편년된다.[133] 이에 성벽과 내부 취락이 3세기 후반~4세기 전반에 축조·운영되다가 4세기 중엽 이후 토성이 폐기되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6호 주거지 외에도 성벽보다 늦게 축조된 유구(19·20호 주거지, 23~25·28호 수혈)가 존재하는데, 보고자에 따르면 위 유구 출토 유물 또한 성벽 내부 유물과 시기적 차이가 뚜렷하지 않아 토성 폐기 이후 취락이 존속한 기간은 그리 길지 않았다고 한다.[134]

---

131) 이혁희, 2013 앞 논문, 183~184쪽.
132) 길성리토성에서 발견된 한성양식토기 기대, 병, 고배, 직구단경호 등은 유구 출토품이 아니라 대부분 지표 수습품이다(中部考古學硏究所, 2013 앞 책, 287쪽).
133) 이혁희, 2013 앞 논문, 184쪽; 土田純子, 2015 앞 논문, 65쪽 각주 27번.
134) 中部考古學硏究所, 2013 앞 책, 298쪽.



[그림 5] 2003년 조사 당시
길성리토성과 주변 유물 산포지
(한신大學校博物館, 2003 앞 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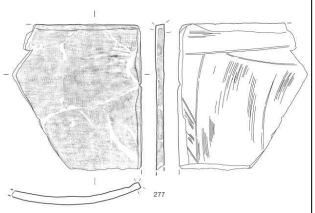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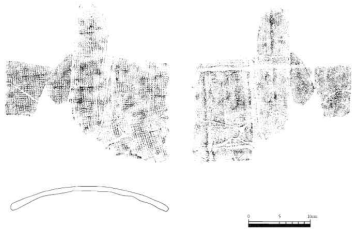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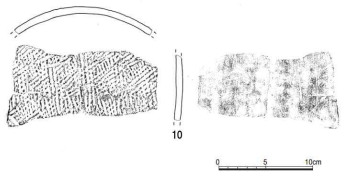
[그림 6] 길성리토성 발굴 조사
지점(中部考古學硏究所, 2013 앞 책,
14쪽)

토성 폐기 이후 생활 시설은 성벽 외부에 입지하는 화성 요리고분군 Ⅱ·Ⅲ·Ⅳ 지점으로 확장되었을 것이다. 토성 폐기 이전과 이후, 생활 유적에서는 변화상이 확인된다. 길성리토성의 주거지는 사주식 혹은 사주식에 벽주식이 결합된 형식이며, 난방·취사시설은 배연부 부분이 한 번 더 꺾이는 '┌┘'자형 구들이다. 반면 길성리토성 외부의 요리 Ⅱ·Ⅲ·Ⅳ 지점 주거지에서는 주공 흔적이 거의 확인되지 않으며 기반토식 'ㄱ'자형 구들이 확인되고 있다.[135] 출토 유물 측면에서도 차이를 보이는데, 길성리토성 성벽 내부 주거지에서는 한성양식토기가 거의 확인되지 않은 반면 성벽 외부 주거지에서는 뚜껑, 직구단경호 등 한성양식토기가 출토되었다. 특히 요리 고분군 Ⅱ지점 4호 주거지에서는 돌절구가 출토되어 주

135) 송만영은 길성리토성 주거지를 점토로 축조한 'ㄱ'자형 구들(C1식), 요리 Ⅱ·Ⅲ·Ⅳ지점 주거지를 기반토를 굴착하여 축조한 'ㄱ'자형 구들(C2식)로 구분한 바 있다(송만영, 2013 앞 책, 146쪽). 기반토식 'ㄱ'자형 구들은 오산천 유역에서 주로 확인되는 난방·취사시설이다.

목된다.[136]

한편 이 일대에서 출토·수습된 기와류는 길성리·요리 일대에서의 기와 생산과 관련된 기술적 선호도를 보여준다. 길성리토성 발굴 조사 결과 지표에서 수습되거나 유구에서 출토된 기와편은 수키와 1점, 암키와 20여 점인데, 암키와의 경우 1점을 제외하고 모두 외면에 문양이 없으며,[137] 내면에 포목흔이 남아있는 형식을 보인다.

		
①길성리토성 10호 주거지 출토품 (中部考古學硏究所, 2013)	②마하리 고분군 내 주거지 출토품 (李鮮馥·金成南, 2004)	③석우리 먹실 유적 95호 수혈출토품 (畿甸文化財硏究院, 2007c 《華成 石隅里 먹실遺蹟》)

[그림 7] 화성·오산 일대 출토 암키와편

이는 [그림 7]과 같이 봉담읍 일대와 오산천 유역의 생활 유적 등에서 외면에 특정 문양이 타날된 암키와가 확인되는 모습과 비교된다. 성벽 외부에 조성된 주거지[138]에서도 기존의 형식과 같은 기와편이 출토되

136) 4호 주거지 인근의 요리 Ⅱ지점 5호 주거지에서는 한성양식토기 중 洗 기종으로 추정되는 토기편이 보고되었다(韓國文化遺産硏究院, 2018 앞 책, 116쪽). 다만 풍납토성·몽촌토성에서 출토된 洗의 경우 대개 마연토기로 제작된 고급기종인데 요리 Ⅱ지점 출토품은 격자타날문이 새겨져 있고 크기 또한 도성 출토품과 차이가 있어 고급 기종으로 보기는 힘들어 보인다.

137) 한성기 암키와의 외면은 무문이거나 격자문, 승문, 평행선문 등 타날 문양이 다양한 특징을 보인다. 기와 외면에 문양이 없는 이유는 타날 후 물손질 등으로 문양을 지웠거나 타날 행위 없이 제작했기 때문이다. 길성리토성 출토품에서는 외면에 물손질 흔적이 남아있는 사례가 확인되어 타날 후 문양을 지웠던 것으로 추측된다. 현재까지 출토된 암키와편 중 타날문이 남아있는 사례는 길성리토성 북쪽 수혈 유구에서 출토된 격자타날문 기와편 1점이 유일하다(한신대학교박물관, 2010 《華城 吉城里土城 외곽 북서쪽 납골분묘부지 내 발굴(시굴)조사 보고서》, 7쪽).

138) 요리고분군 Ⅱ지점 2호 주거지, 5호 주거지.

고 있어서 성벽 폐기와 함께 변화가 나타난 이후에도 제작기술이 동일한 양상으로 유지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5세기대에는 초록산(152m) 정상부에 소근산성이 축조된다. 소근산성은 길성리토성으로부터 4km 거리를 두고 위치해 있는데 산성 주변 평지에는 신왕리 유물산포지 등 다량의 백제 토기가 채집된 유물산포지가 입지하고 있다.[139] 화산동 일대의 황계동토성과 마찬가지로 성벽을 축조할 때 판축공법을 사용했다. 성벽은 10호 수혈 위에 조성되었는데, 수혈 내부에서 고배, 병 등 한성양식토기가 출토되어 성벽이 5세기 이후에 축조되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140] 한편 성 내부의 유물 양상이 4세기 후반대라는 점에서 성벽이 4세기 후반에 초축된 후 1차례 이상 증축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한 견해도 있는데,[141] 본 논문에서는 성벽의 연대에 주목하여 소근산성이 5세기 이후 축조된 것으로 보고자 한다. 소근산성 내부에서는 주거지 6기와 수혈 19기가 확인되었는데 저장용기와 제사용 한성양식토기 다수와 찰갑편, 철촉 등 무기·마구류, 그리고 주조괭이, 철솥, 부뚜막 장식, 돌절구 등 특수한 성격의 유물이 출토되어 주목된다. 길성리토성과 소근산성은 두 유적의 입지·축조 시기·축조 기법·출토유물 양상 측면에서 뚜렷하게 구분되며, 축조 집단이 각각 재지 집단과 백제 중앙으로 달랐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 선행연구에서 제기된 바 있다.[142]

분묘 유적으로는 화성 요리고분군과 화성 송산리 유적이 조사되었다. 조사 완료된 요리고분군 유적에서 가장 이른 시기에 해당하는 유구는 1호 목곽묘이며 내부에서 격자문계 심발형토기, 마구류, 철기류(철모, 철겸, 철부 등), 금동관모와 금동식리, 금제이식 등이 출토되었다. 그런데 보고서에서는 1호 목곽묘의 축조 연대에 의견 차이가 확인된다. 즉, 심발형토기와 마구의 연대를 고려할 경우 4세기 후반으로,[143] 금동관모·식리

139) 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화성시, 2006 《화성시의 역사와 문화유적》, 397~399쪽.

140) 선행연구를 참조할 때 단경병은 4세기 말~5세기 초 한성 지역에서 출현한 것으로 파악된다(한지선, 2013 앞 논문, 46~49쪽; 土田純子, 2014 《百濟土器 東아시아 交叉編年 硏究》, 서경문화사, 232·260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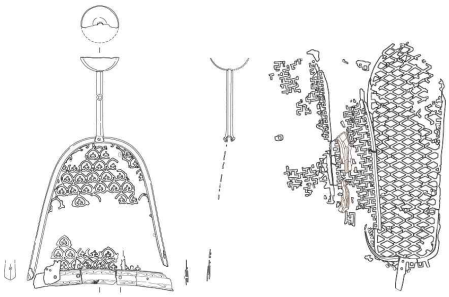
141) 김길식, 2017b 〈백제 한성기 화성지역의 성곽 축조과정과 그 배경〉 《화성지역 고대문화의 제양상 - 고대의 화성을 그리다-》, 화성시청, 209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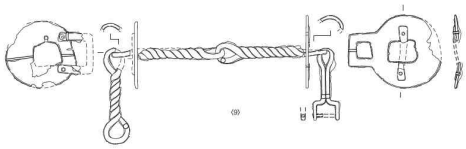
142) 이혁희, 2013 앞 논문, 209쪽; 권오영, 2020b 앞 논문, 125쪽.

를 주목할 경우 5세기 초(5세기 1/4분기)로 비정하고 있다.[144] 여기서는 백제에서 제작한 착장용 금공품으로 傳世의 가능성이 낮은 금동관모·식리를 연대를 활용하고 마구의 연대를 참조하여 요리 1호 목곽묘의 시기를 재검토하겠다. 금동관모는 관 중앙 위에 수발형 장식이 부착되어 있는 형태로 문양은 草花文 계열에 속한다. 금동식리의 경우 측판에 凸文, 저판에는 斜格子文이 시문되어 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형식적인 측면에서 금동관모는 길두리 안동고분 출토품, 금동식리는 공주 수촌리 1호묘, 나성리 KM-004호묘 출토품과 유사하다고 한다.[145] 이때 수촌리 1호 부장품인 靑磁有蓋四耳壺의 연대는 선행연구에서 4세기 말~5세기 초로 비정되어,[146] 요리 1호묘의 연대를 비정하는 데 참조된다. 마구류의 경우, 요리 1호묘 출토품 轡의 경판과 인수의 좌우 형태가 서로 다르며,[147] 수리 흔적이 확인되고 있어 특징적이다. 수리를 통해 추후 교체된 우측 인수는 2조선 삽자루외환을 가진 형태인데 전형적인 삽자루외환 형태는 주로 5세기 전엽으로 편년된다는 점에서,[148] 요리 1호묘의 축조 연대가 5세기 이후로 내려갈 가능성을 열어둘 필요가 있다. 이상과 같이 금동관모·식리, 마구류의 연대를 고려하여 1호묘의 연대를 5세기 초로 설정하고자 한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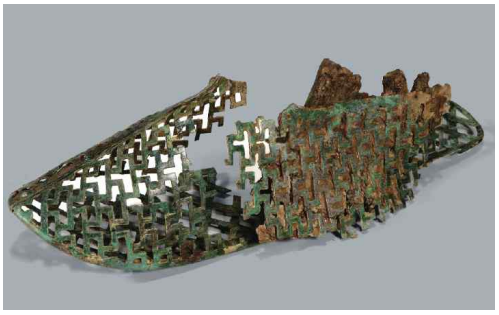
143) 이동훈, 2018 〈고찰: 화성 요리 고분군의 특징과 조영시기〉 《華城 料里 古墳群》, 韓國文化遺産硏究院, 242쪽.
144) 李漢祥, 2018 앞 논문, 259쪽.
145) 李漢祥, 2018 위 논문, 261쪽.
146) 成正鏞, 2010 〈백제 관련 연대결정자료와 연대관〉 《湖西考古學》22, 호서고고학회, 86쪽, 표3; 土田純子, 2014 앞 책, 54~56쪽.
147) 좌측의 인수는 3개로 꼬은 철봉으로 구성되었고 우측의 인수는 2조선 삽자루외환을 가진 형태이다.
148) 권도희, 2012 〈고찰6: 오산 수청동 분묘군 馬具에 대하여〉 《烏山 水淸洞 百濟墳墓群》, 京畿文化財硏究院, 337쪽.





①1호 목곽묘 출토 금동관모·식리　　②1호 목곽묘 출토 轡

[그림 8] 요리고분군 1호 목곽묘 연대 관련 자료
(韓國文化遺産硏究院, 2018)



①고흥 길두리 안동고분 출토 금동식리　　②공주 수촌리 1호묘 출토 금동식리

[그림 9] 요리고분군 1호 목곽묘 출토 금동관모·식리 비교 자료
(한성백제박물관, 2016 《백제王의 선물: 사여품》, 54·62쪽)

요리고분군과 송산리 유적에서는 5세기 이후 한성기 말에도 주구목관(곽)묘·분구묘가 조영되며 분묘의 장축 방향도 대체로 평행으로 유지되는데, 이러한 특징은 진위천, 안성천 일대의 묘제와 연결된다.[149] 묘제와 마찬가지로 출토 유물 양상 측면에서도 5세기 전반까지 원저단경호와 철기류가 부장되는 조합이 지속되는 모습을 보인다.[150] 부장품으로 앞서

149) 특히 요리 고분군 분구묘는 5세기대 안성 승두리 유적(한양문화재연구원, 2021 《安城 蠅頭里 遺蹟》)에서 확인된 주구연접식 분구묘와 비교 가능하다.
150) 화성·오산 지역 내 다른 권역에 비해 한성양식토기가 비교적 늦게 분묘에 부장

서술했던 금동관모·식리와 사창리 산 10-1번지 유물군 등 위상이 높은 위세품류가 다수 출토되는 것 또한 이 일대 분묘 유적의 특징이다.

이상 길성리·요리 일대의 유적군 양상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길성리·요리 일대에는 토성을 축조한 유력한 지역 집단이 존재했으나 4세기 중엽부터 성벽이 폐기되고 성벽 외부에 취락이 확장되었다. 길성리토성이 폐기된 시점을 기준으로 주거지 내 난방·취사시설 형식, 출토 토기류 측면에서 변화가 확인된다. 이와 같은 취락 재편 현상은 백제 중앙의 진출에 의한 결과로 추정할 수 있으며[151] 5세기 이후 소근산성 축성과 연동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분묘 유적에서 출토되는 진식대금구와 금동관모 등 위세품은 5세기경까지 백제 중앙이 길성리·요리 일대의 지역 집단에 관심을 보이며 위상을 부여했음을 시사한다. 분묘 유적에서는 길성리·요리 일대 지역 집단은 5세기 중엽까지 주구목관(곽)묘와 분구묘를 지속적으로 조성하며 원저단경호와 철기류 부장 풍습을 유지하였다. 기와 제작술 측면에서도 길성리 일대가 백제 중앙은 물론 다른 권역과 구분되는 기술적 '개성'을 지녔음을 확인할 수 있다. 5세기경 길성리·요리 일대에서는 위세품을 받으며 분묘를 축조하는 지역 집단이 존속하는 한편 취락이 재편된 후 소근산성 축성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4) 오산천 유역

오산천 유역 내 주요 유적 현황을 정리하면 [표 8]과 같다.

되는 모습을 보인다. 5세기 중엽 이후의 것으로 추정되는 요리고분군 7호 목곽묘 출토 파상문 광구장경호가 길성리 일대 분묘 유적에서 확인되는 이른 시기의 한성양식토기이다.

151) 이혁희, 2013 앞 논문, 208~209쪽.

[표 8] 오산천 유역 주요 유적 현황

유적 종류	유적명	유구	출토유물	중심 시기
주거 생산	청계리 유적[152]	주거지 117기, 토기 가마 7기, 공방지 1기, 폐기장 1기 등	경질무문토기, 타날문 취사용기, 대옹, 호, 철도자 등	3세기
	감배산 유적[153]	주거지 30기 등	경질무문토기, 타날문토기, 호, 장란형 옹, 고배, 직구호, 뚜껑 등	3세기~4세기 전반
	석우리 먹실 유적[154]	주거지 19기, 지상식 건물지, 수혈 43기, 경작지, 구상유구 등	시루, 대호, 단경호, 흑색마연토기(고배, 뚜껑, 직구호), 반, 기대, 삼족배, 기와, 주조괭이 등	4세기 중엽~5세기 전반
	가수동 유적[155]	주거지 3기, 수혈 25기 등	심발형토기, 시루, 직구단경호, 완, 뚜껑, 대옹 등	4세기
	외삼미동 유적[156]	주거지 17기, 수혈 56기 등	타날문 취사용기, 유개반, 호 등	4세기~5세기 전반
	내삼미동 유적[157]	주거지 36기, 수혈 186기, 백탄요 등	타날문 취사용기, 직구호, 고배, 삼족기, 완, 철도자, 철모, 철촉, 금제이식, 구슬 등	5세기 후반
분묘	궐동 유적[158]	주구목관묘 36기 등	유개대부호, 원저심발형토기, 원저단경호, 철검, 철모, 철촉, 구슬 등	2세기~3세기 전반
	청학동 유적[159]	목관(곽)묘 21기, 주구목관(곽)묘 7기 등	원저단경호, 심발형토기, 이중구연호, 환두도, 철모, 철촉, 구슬 등	3세기~4세기 전반
	탑동·두곡동 유적[160]	목관(곽)묘 3기, 주구목관(곽)묘 9기 등	원저단경호, 심발형토기, 철모, 철촉, 철도자 등	3세기 후반~4세기 중엽
	수청동 백제분묘군[161]	목관(곽)묘 97기, 주구목관(곽)묘 143기, 주구이중목관묘 등	원저단경호, 심발형토기, 직구호, 광구호, 고배, 완, 환두대도, 철도, 철모, 마구류, 성시구, 중국제 청자반구호, 구슬 등	3세기 후반~5세기 중엽[162]

152) 한백문화재연구원, 2013 《화성 청계리 유적》.
153) 京畿大學校博物館, 2006 《華城 甘杯山 遺蹟》.
154) 畿甸文化財硏究院, 2007c 앞 책.
155) 畿甸文化財硏究院, 2007d 《烏山 佳水洞 遺蹟》.
156) 한백문화재연구원, 2011 《오산 외삼미동 유적》.
157) 高麗文化財硏究院, 2010 《烏山 內三美洞 遺蹟》; 京畿文化財硏究院, 2011 《烏山 內三美洞 遺蹟》; 韓國文化遺産硏究院, 2012a 《烏山 內三美洞 遺蹟》.
158) 中央文化財硏究院, 2013 《烏山 闕洞遺蹟》.
159) 겨레문화유산연구원, 2013 《오산 청학동 유적》.

오산천 유역에서는 3세기대부터 화성 청계리 유적, 화성 감배산 유적에 취락이 조성된다. 3세기대가 중심 시기에 해당하는 청계리 유적에서는 타날문토기와 대옹 등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토기 가마가 운영되었다. 청계리 유적에서는 방형계 사주식 주거지가 다수(약 40기) 확인되어 주거지 측면에서 지역 특성을 보여준다. 감배산 유적은 청계리 유적과 마주보는 구릉에 위치한다. 청계리 유적과 마찬가지로 사주식 주거지가 확인되며 출토 토기가 경질무문토기, 타날문토기, 대옹 등 청계리 유적과 유사한 가운데 한성양식토기도 일부 확인되고 있어 청계리 유적보다 조금 늦은 시기에 운영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감배산 유적의 경우 구릉 정상부에 독립적으로 입지한 대형 주거지가 존재하고 내부에서 출토된 유리구슬이 오산천 건너편의 수청동 고분군의 부장품과 유사하다는 점에서 청계리 유적 내 생산 집단의 지휘 세력으로 추정한 견해가 있어 참조된다.[163]

이후에는 석우리 먹실 유적이 오산천 유역의 중심 취락으로서 운영되었다. 석우리 먹실 유적은 이전 시기의 청계리, 감배산 유적과 마찬가지로 사주식 주거 형식이 유지되는 모습을 보이는 한편, 농경·저장을 기능을 갖춘 취락이라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가장 이른 시기의 유구인 6호 주거지에서 흑색마연 직구단경호, 고배 등 한성양식토기가 출토되어 4세기 중엽경으로 시기를 비정할 수 있다.[164] 내부에서는 경작지 중심으로 배수 시설, 저장수혈군과 고상 창고군이 확인되었으며, 출토 유물은 흑색마연토기, 삼족배, 기대 등 한성양식토기 고급 기종, 부뚜막 장식, 기와, 주조괭이 등으로 그 위상이 높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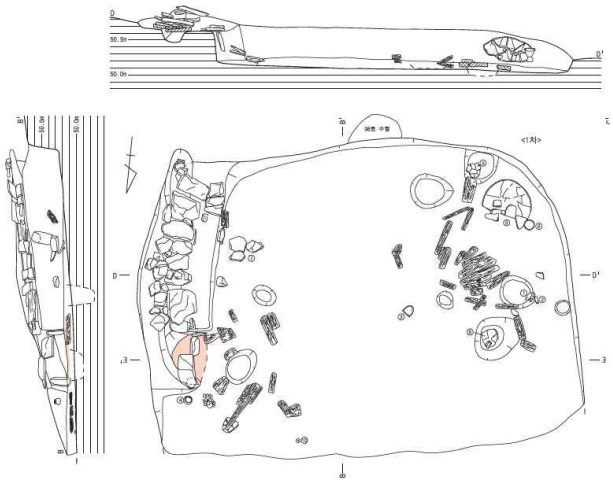
160) 기호문화재연구원, 2013 《烏山 塔洞·斗谷洞 遺蹟》.

161) 京畿文化財硏究院, 2012 앞 책.

162) 보고서에서는 심발형토기와 원저단경호의 변화상, 공반 유물, 묘의 구조를 고려하여 분묘 유구에 7개 단계를 부여하였다. 본 논문은 보고서에서 설정한 유구의 단계를 수용하되 역연대는 土田純子의 연구를 참조하여 표에서의 '중심 시기'를 조정하였다. 이에 오산 수청동 유적의 마지막 단계에 해당하는 4지점 25호 목관묘는 중국제 청자반구호의 연대를 고려하여 5세기 중엽으로 보고자 한다(土田純子, 2014 앞 책, 50~52쪽).

163) 박중국, 2019 앞 논문, 100쪽.

164) 김길식, 2020 〈한성백제 사람들이 경작하던 밭, 석우동 먹실 유적〉 《땅속에서 찾은 화성의 역사》, 화성시사편찬위원회, 199쪽.



[그림 10] 오산 내삼미동 유적 25호 주거지
(京畿文化財硏究院, 2011)

5세기 후반에는 오산 내삼미동 유적이 중심 취락으로 운영된다. 내삼미동 유적은 인근의 외삼미동 유적과 함께 주거 구조 측면에서 특이성을 보인다. 우선 주거지 내부에 주공이 존재하지 않거나 정형성이 없는 경우가 대다수이다.[165] 또한 [그림 10]과 같이 주거지를 축조할 때 구들 부분을 주거지 바닥보다 얕게 굴착해서 설비하여, 구들 시설이 단이 진 형태를 보이고 있다. 앞서 언급한 청계리 유적, 감배산 유적, 석우리 먹실 유적에서 사주식 주거지가 조성되는 것과는 다른 모습이다.[166] 내삼미동 유적에서 단이 진 구들 시설은 신라 유물이 출토되는 6세기대 주거지에도 확인되고 있어 지역색으로 판단된다. 출토 유물은 호류, 심발형토기 등 취사용기와 저장용기가 주를 이룬다.[167] 경기문화재연구원에서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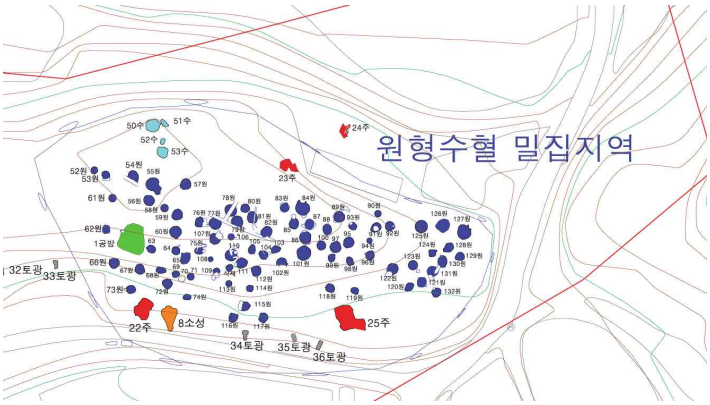
165) 최지훈, 2019 앞 논문, 23쪽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로 유구가 삭평되었을 가능성, 이주식·다주식으로 응용되었을 가능성, 주거지 상면에 바로 기둥을 세우거나 초석 위로 기둥을 놓는 방식이 적용되었을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166) 이와 같이 주거지 형식 측면에서 오산천 동쪽(오늘날의 화성시 동탄 지역)과 오산천 서쪽(오산시 일대)가 구분되는데 이를 작은 지역 단위 간의 차이점을 반영한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권오영, 2020 〈삼국~남북국시대의 오산〉 《烏山市史》2, 오산시사편찬위원회, 76~77쪽). 다만 현재로서는 주거 구조의 차이가 시기 차이에 의한 것인지 집단 차이에 의한 것인지 불명확하며 화성시 동탄 일대에는 지역 집단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분묘군이 아직 발견된 바 없어서 본 논문에서는 판단을 유보한다.

167) 최지훈, 2019 앞 논문, 11쪽.

한 14호 주거지는 대형 규모에 29기 주거지 중 유일하게 출입구 부가 형식을 갖추었으며 내부에서는 금제이식, 꺾쇠와 철모, 철촉, 철도 등의 다수의 무기류가 출토되어 특징적이다.

오산천 유역에는 주거지와 함께 다양한 종류의 저장·생산 유구 또한 확인되고 있다. 저장 유구로는 단면 플라스크형 수혈군이 다수 확인되는데, 특히 석우리 먹실 유적, 내삼미동·외삼미동 유적에서는 매우 높은 밀도로 조성되었다. 저장수혈군에서는 토기편과 함께 곡물류가 확인되고 있어 대규모 수혈군이 농산물 저장 기능을 수행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4세기 중엽 이후 저장수혈군이 집중 조영되는 유적에서는 오산천 유역에서 백제 중앙과 관련되었거나 위상이 있는 유물(한성양식토기 고급기종, 돌절구 등)이 함께 출토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이와 관련하여 규격화된 저장수혈군이 백제 중앙의 조세 수취·물류 유통을 위한 창고 시설로서 사용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한 연구[168]가 있어 참조된다.



[그림 11] 오산 내삼미동 유적 내 수혈 밀집 지역
(韓國文化遺産硏究院, 2012)

분묘 유적의 경우 2세기대 분묘인 오산 궐동 유적에서 처음 주구목관묘가 출현한 이래로 주구 부가된 묘제가 5세기 후반 한성기 말까지 유지된다. 분묘의 장축 방향은 궐동유적과 청학동, 탑동·두곡동 유적에서 등고선에 직교하는 분묘와 평행하는 분묘가 혼재된 모습이 확인되다가, 3

168) 김왕국, 2016 앞 논문, 151~153쪽.

세기 후반을 상한으로 하는 수청동 유적에서 대부분의 분묘가 직교 방향으로 통일된다. 부장품의 경우 토기 기종과 그 조합에서 목지국으로 비정되는 천안·아산 지역과의 연관성을 드러낸다. 궐동 유적에서 유개대부호와 원저심발형토기 조합이 확인되며, 이후의 수청동 유적 단계까지 원저단경호와 심발형토기 조합으로 부장 토기류가 변화하는 양상은 호서 지역의 토기 부장양상과 궤를 같이한다.[169] 4세기부터 수청동 유적이 집중 조영되면서 백제와 관련된 한성양식토기와 다양한 종류의 위세품류(금제이식, 은상감환두도, 동진제 청자, 유리구슬류 등)가 확인된다. 5세기 중후반까지 재지 묘제인 주구토광묘가 조성되고 5세기 중반 시기로 비정되는 중국제청자반구호가 부장되는 현상은, 해당 지역 집단이 5세기 이후에도 그들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었으며 꾸준히 백제 중앙으로부터 위세품을 사여 받았음을 의미한다.

오산천 유역의 주거 유적과 분묘 유적 모두 유구 측면에서 지역색이 뚜렷하게 확인되며 장기간 유지되는 경향을 보인다. 한편 유적 내부에서는 백제와의 친연성을 보이는 유물이 확인된다. 주거·생산 유적의 경우 4세기 중엽부터 한성중앙양식토기 고급기종, 기와류, 꺾쇠, 돌절구 등이 출토되어 당시 지역 집단이 백제와 강한 연결 관계를 지녔음을 추정할 수 있다. 분묘 유적의 경우 2세기대 호서 지역과 문화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모습을 보이다가 4세기 이후부터 한성양식토기, 위세품류가 부장되는 분묘들이 수청동 유적으로 집중되는 현상이 확인된다. 경기 남부 일대의 다른 분묘 유적의 경우 5세기 이후에 위세품이 잘 부장되지 않지만 수청동 유적에서는 성시구와 중국제 청자반구호 등 한성백제 관련 위세품의 위상이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 이는 수청동 유적 축조 집단이 5세기 이후에도 그들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었으며 꾸준히 백제 중앙과 관계를 유지했음을 시사한다.

이상 세부 권역별로 살펴본 지역 집단의 특징과 성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황구지천 유역에 위치한 화산동 일대에서는 3세기 전후 화산동 분묘를 축조한 지역 집단, 기안리 유적에서의 낙랑계 이주민이 공존

169) 평택 마두리 유적에서도 호서 북부지역의 유개대부호와 원저심발형토기, 이른 단계의 마형대구 등이 출토되었다.

했을 가능성이 있다. 4세기 이후 한성양식토기가 출토되는 주거·생산 유적이 운영되었으나 출토 유물상 위상은 높지 않은 모습을 보인다. 5세기대 수혈식석곽묘에 장식 마구류, 한성양식토기를 부장한 지역 집단이 존재하는 한편 백제 중앙에 의해 황계동토성이 축조되며 중앙의 지배력이 강화되었다.

발안천 유역의 봉담읍 일대에서는 3세기 이전 시기의 유적이 거의 확인되지 않아, 백제 진출 이전 시기에 지역 기반이 약하거나 3세기 이후 외부에서 이주한 집단이 정착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주거, 분묘 유구의 형식 측면에서 다양성을 보여서 지역 집단의 통합도가 낮고 뚜렷한 지역색이 확인되지 않는다. 출토 유물 또한 위상이 주변 권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던 것으로 보인다. 봉담읍 일대 유적군과 발안리 유적에서는 3세기 말~4세기 초부터 백제와 물질문화를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있어 백제 중앙과의 친연성이 강하게 드러난다.

진위천 유역의 길성리·요리 일대에서는 청동기시대 이래 유력한 지역 집단이 존재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분묘 유적의 경우 기존 묘제와 부장 조합이 5세기까지 유지되는 모습이 확인되지만, 생활 유적의 경우 길성리토성 폐기 시점을 경계로 주거지 형식, 출토 유물 양상에서 변화가 나타난다. 생활 유적과 분묘 유적에서 확인되는 유물상은 길성리·요리 일대 지역 집단의 높은 위상을 보여주며 백제가 5세기대까지 이 지역을 주시했음을 의미한다.

오산천 유역에서는 2세기대 이래 주거, 분묘 유구의 형식 측면에서 지역색이 유지되는 모습이 확인된다. 4세기 중엽 이후 대규모 저장수혈군이 형성된다는 점이 특징적이며, 진위천 유역과 마찬가지로 생활 유적과 분묘 유적에서 출토되는 유물 위상으로 보아 백제가 4세기 중엽 이후 백제가 주시했던 지역으로 추정된다.

황구지천과 발안천 유역에서는 다양한 문화상이 확인되어 지역색이 비교적 약했던 반면, 진위천과 오산천 유역은 주거·분묘 유적에서 지역색이 확인되며 이는 5세기대까지 유지되었다. 위세품 등 출토 유물로 볼 때 진위천과 오산천 유역의 위상은 한성기 말까지 높게 유지되는 한편

봉담읍 일대는 위상이 상대적으로 낮은 모습이 확인된다. 백제와의 친연성 측면에서는 발안천 유역이 특징적이다.

三. 백제의 경기 남부 지역 장악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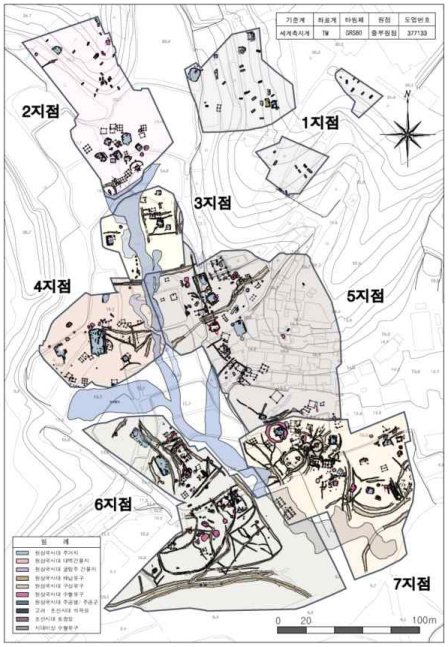
1. 백제 주도의 거점 운영과 취락 재편

앞 장에서 권역별 유적군을 분석한 결과, 발안천 유역의 지역 집단이 백제와 친연성이 강하다는 특징을 도출하였다. 발안천 유역에서 특히 4세기대 백제의 진출 측면에서 주목되는 유적은 발안리 마을 유적이다. 발안리 유적은 4세기부터 이전 시기의 기존 취락이 재편되면서 저장 기능을 지닌 수혈 창고군, 구획·배수·의례 기능 등을 지닌 구상유구, 별도의 공간에 조성되는 대규모 출입구 부가 주거지가 등장한다. 이와 같은 유구 배치 양상은 백제 권역의 다른 하천 유역에서도 더욱 확장된 규모와 계획성을 갖춘 형태로 확인되고 있어 비교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안성천 유역의 평택 세교동 모산골 유적은 수혈주거지 42기, 수혈유구 234기, 벽주건물지 2기, 구상유구 97기 등이 입지한 대규모 취락 유적이다. 3세기대 수혈주거지가 조성되다가 4세기대부터 길이 10m가 넘는 대형 출입구 부가 벽주 건물지와 육각형 평면 주거지가 본격적으로 조성되었다. 취락은 구상 유구를 통해 구역이 나누어져있는데 구하도와 이어지는 양상으로 물의 이용과 관련된 기능을 했던 시설로 보인다.[170] 특정 구역(5~7지점)에 지상식 벽주 건물지, 대형 고상식 창고와 같은 주요 건물지가 밀집해 있으며 기와류, 절구 등 유물이 출토되어 공간적 위계를 설정할 수 있다. 이상의 특징은 생산과 보관, 물류 행위가 이루어졌음을 보여주기 때문에 세교동 모산골 유적은 백제의 '지방도시'로 해석되기도 한다.[171] 금강 유역의 연기 나성리 유적과,[172] 영산강 유역의 광주 동림

170) 嘉耕考古學硏究所, 2019 《平澤 細橋洞 모산골 遺蹟 Ⅲ》, 621쪽.
171) 권오영, 2012 〈백제 한성기의 도성과 지방도시〉 《고고학》11-3, 중부고고학회, 93쪽.
172) 이홍종 외, 2015 《燕岐 羅城里 遺蹟》, 韓國考古環境硏究所; 연기 나성리 취락 유적은 넓은 공지에 공간을 구획하고 각각의 공간에 구획저택, 지상식 건물, 도로

동 유적 또한[173] 백제 중앙이 물류 유통의 거점을 조성하고 지방지배 정책을 강화할 목적으로 건설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①평택 세교동 모산골 유적
(嘉耕考古學硏究所, 2019)

②화성 발안리 마을 유적
(畿甸文化財硏究院, 2007a)

[그림 12] 거점 취락 유구 배치도

이러한 물류 유통의 거점 취락에서는 외부 지역의 물질문화가 확인되는 경우가 많다. 가령 광주 동림동 유적에서는 백제계, 가야계, 왜계 유물이 다수 출토되는 등 물류 거점지로서의 성격을 보여준다.[174] 최근 광

등을 계획적으로 배치한 도시 유적으로 판단된다(박순발, 2014 앞 논문, 199쪽; 최장열, 2020 〈백제의 웅진천도와 세종 나성동 도시 유적〉 《백제의 계획도시, 세종 나성동》, 국립공주박물관, 184~186쪽).

173) 湖南文化財硏究院, 2007 《光州 東林洞遺蹟》; 동림동 유적은 88동의 주거지와 목조건물지군, 64동의 고상식 창고시설, 저장 수혈군, 도수시설, 도로, 우물 등이 확인되는 취락 유적인데, 구획 시설을 통해 일반 구성원의 거주 공간과 구별짓고 그 내부에 대규모 지상식 목조건물지를 축조하였다(이영철, 2020 앞 논문, 국립공주박물관, 96쪽).

174) 이영철, 2020 위 논문, 97쪽.

주 운수동에서는 구상유구로 구획을 나누고 벽주건물지가 들어선 취락 유적이 조사되었는데 오산천 유역에 주로 분포하는 기반토식 ‘ㄱ’자형 구들을 설치한 주거지가 확인된 바 있다.[175] 평택 세교동 모산골 유적에서도 출입구가 부가된 ‘呂’·‘凸’자형 주거지, 사주식 주거지, 백제 벽주건물지 등 다양한 주거지 형식이 확인되는 가운데, 난방·취사시설 또한 ‘一’자형 부뚜막, ‘ㄱ’자형 구들이 혼재해있고 기반토식 ‘ㄱ’자형 구들까지(1지점 4호 주거지) 발견되었다. 유물 측면에서도 1지점 7호 주거지에서 출토된 광구호는 서해안 일대의 충남 홍성 석택리 주거지 출토품과 동일한 기형으로 보는 견해가 있어 참조할 수 있다.[176] 백제 주도로 운영된 대규모 취락에서 다른 지역의 주거지가 확인되는 현상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인적·물적 교류가 이루어지는 물류 유통 과정을 고려하면 여러 계통의 외부인이 취락 운영에 관여했을 가능성을 생각해볼 수 있다.

발안리 유적은 평택 세교동 모산골 유적, 연기 나성리 취락 유적, 광주 동림동 유적만큼의 규모와 계획성을 갖추지는 못하였다. 하지만 백제의 진출 이후 구상유구 등의 구획이 설치되고 창고 용도의 지상식 건물지가 축조된다는 점, 대규모 출입구 부가 건물지가 별도의 공간에서 확인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백제의 거점 취락일 가능성이 크다.

또한 발안리 유적은 수운 교통을 통한 인적·물적 교류가 용이한 지역에 위치하는데, 입지적인 측면에서도 평택 세교동 모산골 유적 등 거점 취락과 공통점을 지닌다.[177] 평택 세교동 모산골 유적은 안성천과 진위천이 합류하는 지점 부근 통복천 가에 위치한다. 유적 3km 인근 군문동과 통복동에는 과거 포구(軍門浦, 通伏浦)가 존재했는데, 이 일대는 바닷물이 들어오는 감조구간으로 200석을 실을 수 있는 배가 들어올 수 있었다고 한다.[178] 발안리 유적이 위치한 발안천 하류 일대는 남양방조제가

175) 馬韓文化硏究院, 〈광주 운수동(36-1번지) 공공주택지구 조성부지 내 유적 문화재 발굴조사 학술자문회의 자료집(1차)〉.

176) 박경신, 2021 앞 논문, 73쪽.

177) 이러한 입지 조건 때문에 발안리 유적과 세교동 모산골 유적이 사주식 주거지 분포권에 속해있으면서 3세기대 한강 중상류 유역에 분포하는 출입구 부가 여철자형 주거지와 경질무문토기류가 돌출적으로 등장했다고 해석한 견해가 있다(박경신, 2019 위 논문, 360쪽).

178) 朝鮮總督府鐵道局, 1914《朝鮮鐵道驛勢一斑》上卷, 404쪽(경기도박물관, 2003

조성되기 전 바닷물이 드나드는 곳으로 화성시 팔탄면 해창리, 향남읍 상신리 일대에 배가 다닐 수 있을 정도였다고 한다.179)

①평택 세교동 모산골 유적

②화성 발안리 마을 유적

[그림 13] 거점 취락의 입지
(원 지도인 《조선지형도》는 국토정보플랫폼 제공)

4세기 전반경 발안리 유적과 평택 세교동 모산골 유적에서 물류 유통 기능이 강화된 형태로 취락이 조성되는 현상을 고려하면, 당시 두 유적이 백제의 거점 취락으로서 운영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 이때 4세기 백제의 주요 진출 방향을 상정할 수 있다. 백제는 서울 송파 일대에서 남진하는 과정에서 오늘날의 수원시-봉담읍-향남읍으로 이어지는 경로, 즉 발안천을 따라가는 교통로를 먼저 확보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서울 송파 기준 남쪽 방면 육상 교통로는 서울-수원시-봉담읍-향남읍으로 이어지는 경로와 서울-성남-용인-오산을 거치는 경로(오늘날의 경부고속도로)가 존재하는데, 백제가 발안천을 중심으로 한 경로를 먼저 사용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발안천 유역은 아직 분구묘 혹은 주구토광묘 유적이 제대로 확인되지 않은 공백적 지대에 해당하여 백제가 아산만과 연결

《경기도3대하천유역 종합학술조사Ⅲ 안성천》vol.1, 159쪽에서 재인용).

179) 오석민, 2018 〈지도와 지명을 통해 본 화성 지역의 간척〉 《연해지역의 간척과 주민 생활의 변화》, 화성시사편찬위원회, 39쪽.

되는 연안 교통로 확보 측면에서 진출을 서둘렀다고 보는 견해가 있어 참조된다.[180] 실제로 오산천·진위천 유역 평택 마두리 유적[181] 등에서는 2~3세기대 분묘 부장품으로 호서 지역에 분포하는 청동제 마형대구, 유개대부호와 원저심발형토기가 확인된다. 진위천 유역의 화성 길성리·요리 지역 집단 또한 토성을 축조했던 유력한 세력으로서 존재했다. 반면 발안천 유역에서는 앞서 검토했듯이 3세기 이전 시기의 유적이 거의 발견되지 않는다. 봉담읍 일대의 3세기 이후 유적군의 경우 백제와의 기술적 친연성, 각종 형식으로 분화된 묘제, 분묘 출토품의 낮은 위상이 확인되고 있어, 지역 집단 내부의 질서·지역색이 비교적 약하며 백제의 영향력이 강하게 작용했음을 방증한다. 따라서 백제는 오산천-진위천을 따라가는 길을 우회하여 발안천 유역을 거치는 경로를 먼저 개척했던 것으로 추정된다.[182] 백제의 진출과 함께 발안리 유적, 세교동 모산골 유적과 같은 거점 취락이 조영되었을 것이다. 백제가 특정 지역을 우회하고 중요 거점을 확보하는 전략을 사용한 사례는 다른 지역에서도 확인되는데, 백제가 아산만 일대의 목지국을 우회하여 천수만 권역의 홍성 신금성, 서산 예천동, 기지리 일대의 세력과 먼저 접촉했다고 보는 견해를 참조할 수 있다.[183]

한편 청동기시대 이래 2~3세기대까지 지역 정치체로서의 집단이 존재했을 것으로 보이는 권역은 화성·오산 지역 내 황구지천 유역, 오산천

---

180) 이남규, 2021 〈중부지역 마한과 고대국가 백제-마한지역 문화 특성과 백제영역화 과정을 중심으로-〉, 《최근 발굴성과로 본 경기도의 마한과 고대국가 백제 발표자료집》, 18쪽.

181) 韓國文化遺産硏究院, 2011 《平澤 馬頭里遺蹟》.

182) 발안천 하류에서 진위천 방면으로 나아갈 때 바닷길을 따라 가는 방법도 있지만, 화성시 양감면, 평택시 청북읍 일대를 거쳐가는 육상교통로를 이용했을 가능성도 생각해볼 수 있다. 양감면, 청북읍 일대는 과거에 좁고 긴 반도 지형이었는데, 양감면을 거쳐가는 경우 황구지천·진위천 합류지점에서 수운을 이용했을 것으로 추정되며 청북읍을 거쳐가는 경우 곧바로 진위천 일대로 진출할 수 있었다. 이었다. 특히 청북읍 일대는 조선시대 甕浦(청북읍 삼계리), 新浦(청북읍 현곡리), 土津浦(청북읍 토진리)라는 포구가 있었는데, 서쪽 방면으로는 서해와 동쪽 방면으로는 진위천 유역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해상·육상교통의 요지였다. 이에 자미산성, 비파산성, 무성산성 등 고대 산성이 다수 입지해있는 지역이다.

183) 정재윤, 2014 〈백제의 서산 지역 진출과 운영〉 《역사와 담론》72, 호서사학회, 388쪽.

유역, 진위천 유역이다. 이중 오산천 유역과 진위천 유역에서 4세기 중엽 이후 백제가 개입하여 중심 취락을 조성·재편하거나 성곽을 축조하여 새로운 거점을 마련하는 모습이 확인된다. 오산천 유역에서는 청계리·감배산 유적, 석우리 먹실 유적, 오산 내삼미동 유적으로 중심 취락이 이동하는 모습이 확인된다. 4세기 중엽 이후 오산천 유역의 중심 취락은 오산천 동편의 청계리·감배산 유적에서 오산천 서편의 화성 석우리 먹실 유적으로 이동하였다. 이 시기와 맞물려 오산천 유역에서 다수의 저장수혈이 조성되는 것으로 보아, 백제가 오산 일대를 생산·수취 물품을 저장하는 창고로 운영했다고 추정할 수 있다.[184] 석우리 먹실 유적에서는 한성 양식토기 중 제사용 기종인 기대, 고배, 삼족기 등이 다수 출토되었고 일정 공간에서 제의행위와 관련된 인위적 타결흔적이 확인된다는 점에서 백제 도성, 산성에서 확인되는 제사 관념을 공유했던 것으로 해석된다.[185] 5세기대에는 오산 내삼미동 유적이 창고 기능을 지닌 중심 취락으로서 운영되었다. 내삼미동 유적은 주거지 당 1.14점(72/61)의 철기 출토 빈도를 보이는데,[186] 이는 화성·오산 일대를 통틀어 소근산성, 제철유적인 기안리 유적을 제외한 취락 유적으로는 가장 많은 수치라고 한다.[187]

진위천 유역의 길성리·요리 일대에서는 취락 재편과 성곽 축조 현상이 모두 뚜렷하게 확인되어 주목된다. 이에 길성리·요리 일대의 유적군을 중점적으로 살펴봄으로써 백제의 취락 재편과 거점 운영 방식을 알아보고자 한다. 길성리·요리 일대에서는 길성리토성이 폐기되면서 취락이 재편되었다. 백제 주도로 기존 재지 세력의 성을 폐기하고 취락을 재편하는 조치는 《삼국사기》 백제본기 온조왕대 기사 내용에서 일부 확인된다. 온조왕 27년 백제는 '마한'을 멸망시키고 끝까지 항전했던 원산성

184) 김왕국, 2016 앞 논문, 150~151쪽.
185) 畿甸文化財硏究院, 2007c 앞 책, 527쪽.
186) 무기류가 다량 출토된 주거지 대부분은 화재로 인해 폐기된 유구이다. 내삼미동 유적에서 신라 주거지가 조성된다는 점을 고려하면(京畿文化財硏究院, 2011 앞 책, 505쪽), 백제가 한성을 잃고 신라가 오산 일대로 북진하는 과정 중에 중심 취락이었던 내삼미동 유적에서 군사적 충돌이 발생했음을 추정할 수 있다.
187) 박경신, 2021 앞 논문, 78쪽.

과 금현성의 백성들을 漢山 북쪽으로 徙民하였다.[188] 이후 온조왕 36년, 재지 세력의 성이었던 원산성과 금현성을 수리하였다.[189] 위 기사는 백제가 성을 점거하여 내부 주민들을 사민하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기존의 질서를 해체하면서도 기존 시설을 재활용했음을 보여준다. 현존하는 자료로는 길성리토성 내부의 수장층을 대상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불확실하지만, 길성리토성 지표에서 수습된 기대 등 한성양식 토기로 보아 성벽 폐기 이후 백제가 일정 기간 점유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이후 요리 Ⅱ·Ⅲ·Ⅳ지점으로 주거지, 수혈 등의 시설을 추가로 조성하였다.

취락 재편과 함께 5세기경 소근산성이 축조되었다. 성 내부에서는 한성양식토기 기종이 거의 망라하여 출토되었다. 출토 토기류 중 호·옹 등의 저장용기가 55%(220점), 삼족기·고배 등의 제사용기가 21%(85점)으로 일상생활용기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특징적이다.[190] 또한 의도적으로 타격을 가해 깨뜨린 토기가 수혈 내부에서 확인되어 산성에서 제사 행위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191] 철기류의 경우 모두 79점으로 갑옷편, 무기·마구류, 농공구류, 부뚜막장식, 철솥 등 종류가 다양한데, 이중 무기류가 37%(30점)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인다.[192] 소근산성에서 출토되는 다수의 무기류는 해당 유적이 군사적인 성격을 지녔음을 의미한다. 황구지천·오산천·진위천 유역의 경우 오산 내삼미동 유적 외에 취락에서 무기류가 거의 확인되지 않는 것을 고려하면 군사적 성격의 철기류가 소근산성에 집중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백제의 거점성인 소근산성의 운영 방식을 도출하기 위해 4세기 후반 축조된 한성기 백제 산성인 의왕 모락산성과 화성 청명산성을 참조할 수 있다.[193] 의왕시 모락산(385.8m) 정상부를 둘러싼 모락산성에서는 지표

188) 《三國史記》 卷23 百濟本紀1 溫祚王 二十七年 夏四月條 "二城降. 移其民於漢山之北, 馬韓遂滅."
189) 《三國史記》 卷23 百濟本紀1 溫祚王 三十六年 八月條, "修葺圓山·錦峴二城, 築古沙夫里城."
190) 이헌재 외, 2012 앞 책, 403쪽.
191) 이헌재 외, 2012 위 책, 419~424쪽.
192) 이헌재 외, 2012, 위 책, 426~427쪽.
193) 모락산성, 청명산성은 삭토에 의한 축조, 일부 구간 석축이라는 점에서 월롱산

조사임에도 불구하고 완형의 대형 호, 옹류가 발견되었으며 수습된 토기류 대부분이 저장용기에 해당한다.[194] 모락산성 전방에 위치한 의왕시 부곡동 일대에서는 총 11점의 백제 토기류가 출토되었는데, 토기 기종이 고배, 삼족기 등 제사용이며 인위적인 타격흔이 발견된다는 점에서 제사 행위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195] 따라서 백제 중앙이 주도하는 수취·저장 활동, 제사 행위가 모락산성과 그와 인접한 취락에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화성 청명산성은 서해안가 청명산(157.1m) 정상부에 축조된 성으로 내부에서는 저장용 호·옹류가 다수 출토되었다.[196] 청명산성 주변에는 백제유물 산포지를 비롯하여 호·옹, 고배 등이 출토된 저장 수혈군이 확인되었으며[197] 대규모 분묘군인 백곡리 고분군 또한 분포해있다.[198] 산성 일대에서 공통적으로 출토되는 저장용기는 중앙에서 군대를 파견하여 주둔시키거나 주변 취락으로부터 수취한 곡물을 저장하는 용도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볼 수 있다.[199]

또한 소근산성은 거점성으로서 5세기대 군사적 기능과 함께 주변 취락과 연계되어 취락을 통제·관할하는 행정적 기능을 담당하였을 것이다. 성곽 내부에서 출토된 반, 기대, 삼족배와 같은 한성양식토기 고급 기종,[200] 철솥과 돌절구 등의 유물은 백제 중앙과 관련된 시설 중에서도 드물게 출토되는 것으로 백제에서 중시했던 거점성이었음을 시사한다. 그리고 소근산성은 길성리토성 폐기 이후 재편된 취락과 연계되었을 것

성 등 백제 산성과 축조 기법 측면에서 공통점을 지니며 내부에서는 4세기 중후반 이후로 편년되는 백제 토기류가 출토되었다(권오영, 2016 앞 논문, 223쪽).

194) 하문식 외, 2006 《의왕 모락산성》, 세종대학교박물관, 113쪽.

195) 권오영·한지선, 2003 〈儀旺市 一括出土 百濟土器에 대한 관찰〉《吉城里土城》, 한신大學校博物館, 171～172쪽.

196) 권오영, 2016 앞 논문, 224쪽.

197) 韓國文化財保護財團, 2008《華城 白谷里 遺蹟》.

198) 백곡리고분군의 분묘는 일부만 조사되었지만 석곽묘의 규모가 마하리 일대의 석곽묘보다 크고 내부에서 한성양식토기와 함께 소찰 갑옷편, 마구류, 무기류, 농공구류 등 풍부한 철기류가 출토되어 피장자가 군사적 성격과 함께 일정한 위상을 지녔음을 추정할 수 있다(김길식, 2020 〈해안가에 거주하던 백제 사람들의 무덤, 백곡리 고분군〉, 《땅속에서 찾은 화성의 역사》, 화성시사편찬위원회, 133～136쪽).

199) 徐榮一, 2005 앞 논문, 21쪽.

200) 박중국, 2013 앞 논문, 35～36쪽.

으로 추정되는데, 요리고분군 Ⅱ·Ⅲ·Ⅳ 지점에서 추정 빙고시설[201]과 소근산성에서 출토된 돌절구가 확인되었다는 점은 이를 간접적으로 뒷받침한다.

백제 중앙이 기존 취락을 재편하고 소근산성을 새롭게 축성함으로써 얻고자 한 효과는 무엇이었을까. 우선, 지역 장악력의 강화를 도모했을 것이다. 고대국가에서 특정 지역에 '중앙인'을 파견하여 영향력을 행사하는 방식으로는 ①감시·감찰을 목적으로 使者로서 파견되는 경우,[202] ②중앙인이 治所에 파견되는 경우가 있다.[203] 근초고왕대 이후 백제에서는 城이 지방통치 단위로 정착했지만 300명이라는 대규모 인원을 거느리고 신라에 투항한 '禿山城'의 城主와 같은 사례를 볼 때,[204] 4세기 후반대 모든 성에 지방관이 파견되었다고 보기는 힘들며 독산성의 성주는 지역 수장층이었을 가능성이 높다.[205] 독산성과 같은 경우 중앙에서 파견한 인물은 ①使者로서 지방 수장층을 감찰하거나 반기를 저지하는 정도의 역할만을 담당했을 것이며[206] 독산성 성주는 지역 집단의 기존 거점을 기반으로 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백제 주도로 성곽이 축조되는 경우, 축성을 감독할 지휘관, 기술자, 군사 등의 인물이 지역에 주둔하는 시점부터 지역 장악력이 강화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기존 거점이었던 길성리토성을 폐기하고 4km 정도 떨어진 소근산성으로 해당 지역의 거점을 재설정함으로써 기존 길성리 일대 지역 집단을 견제하는 효과도

---

201) 요리 Ⅱ지점 인근에는 평면 타원형의 수혈과 암거형 배수로로 구성된 요리 Ⅲ지점 1호 수혈이 확인되었다. 보고서에서는 유사한 형식의 수혈 유구가 연기 나성리 취락 유적과 왕림리 노리재골Ⅰ 유적에서도 확인된다고 서술하였으며 해당 유구를 빙고시설로 추정하였다(韓國文化遺産硏究院, 2018 앞 책, 142~145쪽).

202) 《三國史記》 卷24 百濟本紀2 比流王 九年 春二月條 "九年, 春二月, 發使巡問百姓疾苦, 其鰥寡孤獨不能自存者, 賜穀人三石."; 《三國史記》 卷1 新羅本紀1 婆娑 尼師今 十一年 秋七月條 "十一年, 秋七月, 分遣使十人, 廉察州·郡主. 不勤公事, 致田野多荒者, 貶黜之."

203) 《梁書》 卷54 列傳48 諸夷 百濟, "號所治城曰固麻, 謂邑曰檐魯, 如中國之言郡縣也. 其國有二十二檐魯, 皆以子弟宗族分據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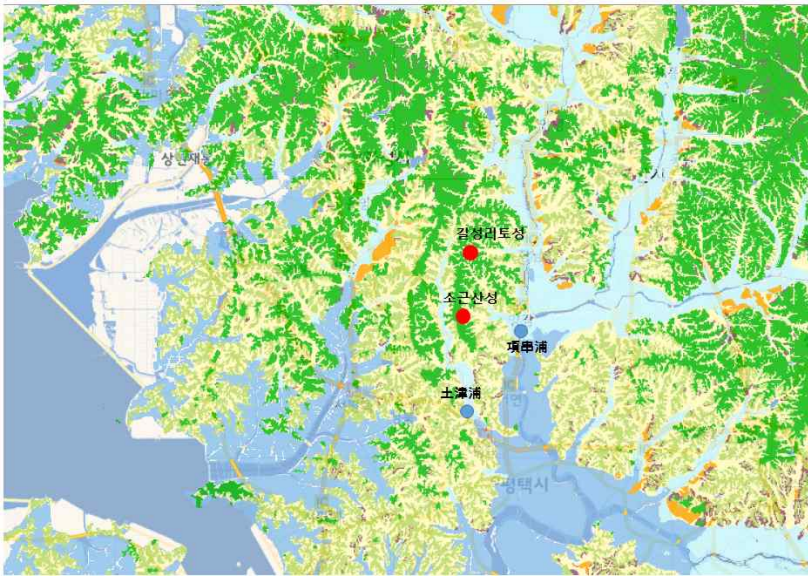
204) 《三國史記》卷24 百濟本紀2 近肖古王 二十八年 秋七月條 "秋七月, 築城於靑木嶺. 禿山城主率三百人奔新羅."; 《三國史記》卷3 新羅本紀3 奈勿 尼師今 十八年條 "十八年, 百濟禿山城主率人三百來投.…."

205) 金英心, 1998 앞 논문, 충남대학교 백제연구소, 197~198쪽.

206) 金英心, 1998 위 논문, 198쪽, 각주 23.

얻을 수 있었을 것이다.

두 번째로 교통로와 성곽 네트워크 구축 측면을 생각해볼 수 있다. 소근산성의 경우, 관리천과 천천 수계를 모두 이용할 수 있는 입지에 위치하여 교통 측면에서 유리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관리천 방면에는 과거 土津浦(청북읍 토진리)가, 천천 방면에는 화성 양감면 용소리-평택 서탄면 황구지리를 연결하는 項串浦(서탄면 황구지리)가 입지했으며 두 포구는 간척이 되기 전 바닷물이 들어와 배 운행이 가능했다.[207] 이에 백제가 진위천·안성천으로 연결되는 수운 교통로를 염두에 두고 소근산성을 축성했을 가능성이 있다. 테뫼식 성인 소근산성이 포곡식 성에 북쪽을 방어선으로 설정한 길성리토성보다 가시권이 탁월하다는 점 또한 교통로 감시 측면에서 주목된다.[208]



[그림 14] 소근산성과 길성리토성의 입지
(진한 파란색 부분이 해성평탄지; 원 지도인 토양분포지형도는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흙토람 제공)

207) 두 포구 모두 바닷물이 들어와 퇴적된 해성평탄지 인근에 위치하고 있다. 항곶포의 경우 과거 바닷물이 진위천-황구지천 합류부까지 올라와 일제 초기까지 100~200석을 실을 수 있는 배가 운행되었다고 한다(朝鮮總督府鐵道局, 1914《朝鮮鐵道驛勢一斑》上卷, 415쪽-경기도박물관, 2003 《경기도 3대하천유역 종합학술조사Ⅲ 안성천》vol.1, 159쪽에서 재인용).

208) 소근산성에서는 화성시 양감면 일대를 비롯하여 발안천 하류 유역, 진위천·안성천 유역, 평택 안중읍 일대를 포괄하는 넓은 범위를 조망할 수 있다.

그리고 경기 남부 지역의 백제 성곽 분포 양상은 백제가 축성할 때 교통로와 성곽 네트워크를 의식했음을 시사한다. 경기 남부 지역의 한성기 백제 성곽으로는 앞서 서술했던 모락산성, 황계동토성, 소근산성, 청명산성이 있으며, 안성 도기동 산성 또한 4세기 후반에 축조된 백제 성곽에 해당한다.[209] 이외에도 축조 주체가 정확히 밝혀지지는 않았으나 백제 성곽으로 추정되는 사례가 존재한다. 화성 우정읍 운평리, 한각리 일대에서는 토성의 흔적과 백제 유물이 확인되었다.[210] 오산 독산성, 평택 자미산성, 기산리 산성, 안성 진사리 산성의 경우 내부에서 토기·기와편 등 백제 유물이 출토되어 백제 성곽일 가능성이 선행연구에서 제기된 바 있다.[211] 이상의 백제 성곽과 추정 백제 성곽의 분포를 표시하면 [그림15]와 같다. 4세기 후반~5세기대 축성된 백제 성곽의 분포를 보면, 모락산성-황계동 토성-소근산성으로 이어지는 종방향 선이 확인된다. 한편 추정 백제 성곽을 포함한 결과로 확실하지는 않지만, 청명산성-(운평리 토성)-(자미산성)-(진사리산성)-도기동산성으로 이어지는 횡방향 선 또한 존재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때 경기 화성 지역은 경기 남부지역에서 종방향·횡방향 선이 교차하는 지역으로, 충남 서산·당진 일대, 아산만 일대, 안성천 상류와 모두 통하는 중간 거점이자 교통 요충지에 해당한다. 지형상 서해와 곧바로 연결되어 해상권을 장악하기 유리하다는 점 또한 특징적이다.[212]

---

209) 기남문화재연구원, 2018 《安城 道基洞山城》.
210) 경기도박물관, 1999 앞 책, 258~280쪽.
211) 이혁희, 2021a 앞 논문, 158쪽.
212) 4세기 후반 이후 화성 서해안 일대에 청명산성, 백곡리고분군 등 백제 유적군이 출현하는 모습은 이 시기에 백제가 적극적으로 서해 연안 교통로를 확보하고자 했음을 방증한다.

[그림 15] 경기 남부 지역 한성기 백제 성곽 분포
(△는 추정)

오산천과 진위천에서 4세기 중엽 이후 나타나는 변화상은 백제는 이 시기 오산-화성-평택을 잇는 남방 교통로 또한 활발히 이용하였음을 시사한다.[213] 백제는 오산천과 진위천 방면의 교통로를 개척하는 과정에서 거점성을 축조하거나 취락을 이전·재편하는 등 지배력을 강화했다.

213) 평택 지역에서도 4세기 중·후엽 전통 취락이 축소·해체된 후 저장수혈군이 등장하는 현상이 확인된다. 대표적으로 평택 좌교리·해창리 유적(湖南文化財硏究員, 2020 《平澤 海倉里 Ⅴ·Ⅵ·Ⅶ 遺蹟》, 337~338쪽)에서는 사주식 주거지와 주구목관(곽)묘가 조영되다가, 4세기 중·후엽부터 주거·분묘 축조가 중단되고 한성양식 토기(고배, 삼족기, 완), 부뚜막 장식을 담은 저장 수혈군이 집중적으로 조성되었다(이혁희, 2021a 앞 논문, 154~155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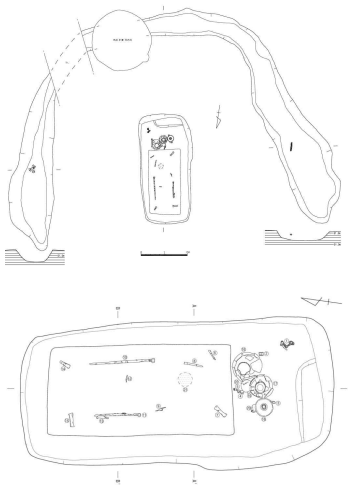
2. 분묘 출토 위세품의 의미

기존 연구에서는 백제가 착장용 금공품, 중국제 도자기, 장식대도 등 위세품을 각 지방 세력에게 사여함으로써 '간접지배'를 실시했다고 이해하고 있다. 하지만 금동관모와 금동식리의 다양한 출토 맥락이 확인되면서 위세품의 성격을 일률적으로 해석할 수 없으며 유적별로 그 의미를 재검토할 필요성이 증대하였다. 이에 백제가 특정 지역 집단과 접촉한 후에 어떤 의도로 위세품을 사여했으며 위세품을 사여받은 인물의 성격은 구체적으로 어떠하였는지, 오산 수청동 유적과 화성 요리 고분군 두 사례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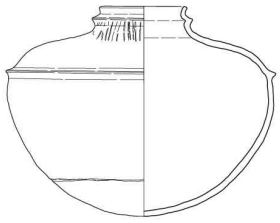
오산 궐동 유적 이후 오산천 유역에는 분묘 유적으로 청학동 유적, 탑동·두곡동 유적, 수청동 유적이 조성되었다. 세 고분군 중 수청동 유적에서만 한성양식토기, 마구류, 금은제 장신구류 등이 출토되며 장기간에 걸쳐 대규모 묘역으로 유지되는 모습을 보인다. 또한 4세기 중·후엽부터 수청동 유적 분묘에 한성양식토기(직구단경호, 승문에 횡침선이 부가된 심발형토기)가 부장되기 시작한다. 이를 통해 수청동 유적 조영 세력에 백제가 영향력을 미쳤음을 상정할 수 있다. 그런데 당시 수청동 유적의 모든 피장자가 백제 중앙과 우호적 관계를 형성했다고 해석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백제 중앙과 관련된 물질자료 없이 다른 지역과의 관계성·친연성을 보여주는 사례가 확인되기 때문이다. 5-2지점 18호묘와 20호묘는 주구이중목관묘이며, 21호묘는 주구목곽묘인데 수청동 유적에서 가장 큰 규모이다. 보고서에서는 그 연대를 4세기 후반경으로 편년하였다. 세 분묘 모두 대형 규모에 별도의 입지에 조성되어 위상이 높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분묘 내부에는 원저단경호·심발형토기 조합에 마구류, 다수의 무기류와 농공구류, 구슬 등을 부장하였다. 또한 3기의 분묘에서는 목관 상하 단벽의 모서리를 지탱하는 용도로 철정 4개를 배치한 모습이 확인된다. 이와 같은 철정 배치 양상은 경기 남부 지역, 서산 지역의 주요 분묘에서 확인된다.[214] 부장품 양상 측면에서 금속제 장신구나 백제와 관련

214) 경기 남부 지역의 경우 중국제 청자반구호가 출토된 오산 수청동 4지점 25호

된 유물이 부장되지 않았다는 점도 특징적이다. 이미 이전 단계부터 한성양식토기가 부장되는 분묘나 동시기 금·은제세환, 은사 등이 확인되는 다른 분묘의 양상과도 비교된다. 대신 외래계 유물이 보고되어 참조된다. 보고서에서는 18호 주구이중목관묘에 부장된 도질토기가 기형, 색조, 소성도 측면에서 영남지역의 것이라고 보았다.[215] 또한 금강 이남 지역에서 주로 출토되는 이중구연호도 공반되었다. 수청동 유적 내 3기의 대형묘를 통해 4세기 후반 당시 백제에 의해 고분군 축조 세력이 일률적으로 재편된 상태가 아직 아니었으며 오히려 백제 외 다른 지역과의 관계를 맺은 집단이 존재했음을 추정할 수 있다.



① 18호 주구이중목관묘 전체 유구와 매장주체부 (축척 부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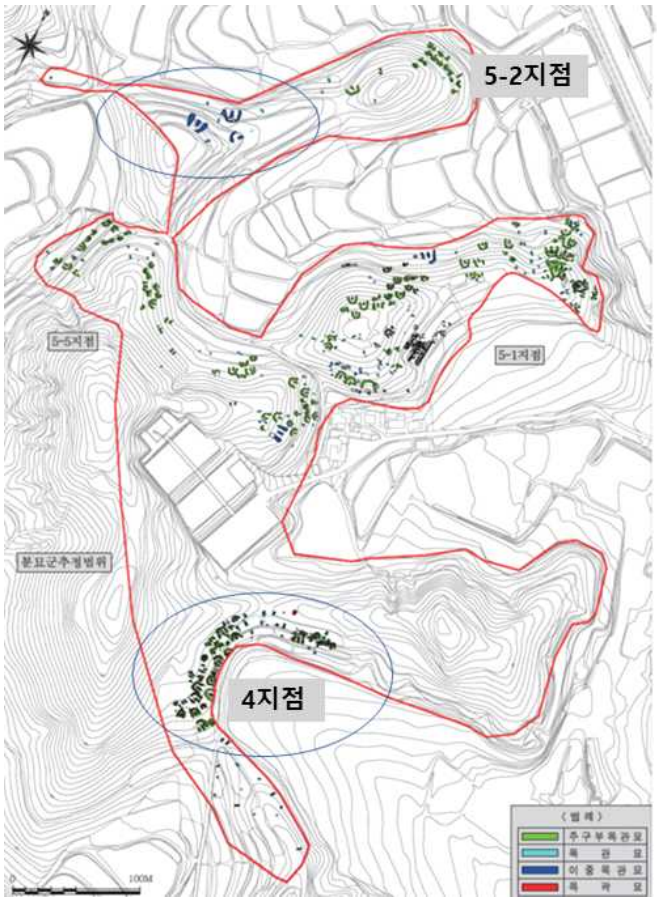


② 18호 주구이중목관묘 출토 이중구연호

[그림 16] 오산 수청동 유적 5-2 지점 18호 주구이중목관묘 (京畿文化財硏究院, 2012)

목관묘, 화성 요리 고분군 1호 목곽묘, 평택 해창리Ⅳ 유적 4호 주구토광묘에서 확인된다. 서산 지역 또한 예천동, 기지리, 부장리 유적에서 관의 네 모서리 혹은 한쪽 모서리에 철정을 부장하는 모습이 확인된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예천동과 기지리 유적과 달리 백제 위세품이 출토되는 부장리 유적에서는 철정의 부장이 급격히 줄어드는 현상이 확인되는데, 이는 백제 중앙과의 관계 속에서 문화적 변화가 나타난 결과로 볼 수 있다고 한다(이현숙, 2017 〈한성기 백제 재지사회 내 상호작용 연구-서산 부장리유적권을 중심으로-〉 《白山學報》 107, 백산학회, 231~233쪽).

215) 京畿文化財硏究院, 2012 앞 책 Ⅳ, 118~120쪽.



[그림 17] 오산 수청동 유적 유구 분포도
(京畿文化財硏究院, 2012 앞 책, 35쪽 도면5
수정 후 인용)

그런데 다음 시기의 유구 양상을 살펴볼 때 은상감환두도, 중국제 청자반구호 등 위세품이 부장된 주요 분묘는 4지점에서만 확인되는 모습을 보인다.[216] 또한 5-2지점에는 앞서 언급한 3기의 대형묘 외에 위세품을 지닌 분묘가 더 이상 확인되지 않는다. 이는 백제의 영향력이 강화되면서 5-2지점에 묘역을 조성하고자 한 집단의 전통이 단절되었고 주요 분묘가 위치한 묘역이 이동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백제 중앙은 고분군 축조 집단 중에서도 특정 세력을 배제 혹은 선택하여 집단 내부의 질서

216) 4지점 14호 목곽묘(은상감환두도), 4지점 5호 주구목관묘(성시구), 4지점 25호 목관묘(중국제 청자반구호).

를 재조정했던 것으로 보인다. 주요 분묘 구역이 4지점으로 이동한 이후 5세기대 오산 수청동 유적 집단은 백제와 위세품 사여를 통한 관계를 장기간 지속하였다.

다음은 화성 요리 고분군의 사례를 통해 착장용 금공품의 의미를 재검토하겠다. 금동관모와 식리를 중앙으로부터 받았다는 것은 중앙과 강한 유대를 맺고 있음을 의미한다.[217] 다만 최근까지 출토된 금동관모·식리의 부장 맥락을 볼 때 반드시 지역 수장에게 사여되는 품목으로만 해석하기 어려운 경우가 확인되어 주의할 필요가 있다. 백제가 금동관모·식리를 사여했던 대상으로는 크게 ①지역 내 최상위 수장층, ②최상위 수장층이 아닌 인물, ③백제 영역 외부에 존재하는 인물, 세 가지 경우의 수를 생각해볼 수 있다. ①지역 내 최상위 수장층에게 금동관모·식리가 사여되는 사례로는 공주 수촌리 1호, 서산 부장리 5-1호와 6-6호가 대표적이다. 그 지역의 묘제이거나 수혈식석곽묘·횡혈식석실묘와 같은 新묘제에서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또한 공반되는 유물로 垂下式 금제이식, 중국제도자기, 장식대도 등이 함께 출토되고 있다. ②최상위 수장층이 아닌 인물의 사례는 연기 나성리 KM-004호 목관묘 피장자이다. 인근의 재지 분묘군이자 횡혈식석실묘가 등장하는 송원리 고분군과는 별개로,[218] KM-004호 목관묘는 나성리 취락 유적 남단에 입지해있다.[219] 앞서 언급했듯이 나성리 취락 유적은 수운에 유리한 입지에 자리하며 고상 창고군과 구획시설, 도로시설로 미루어 수취 관련 유적일 가능성이 고려되고 있다.[220] 분묘 내부에서는 금동식리만이 아니라 금동과대, 금동이식, 금동제성시구, 금동구슬 목걸이, 목검집 등 다수의 위세품이 출토되었다. 이에 KM-004호의 피장자는 나성리 지역 집단의 수장이라기보다는 백제 중앙과 관련된 인물로서 나성리 취락의 조성 혹은 물류 유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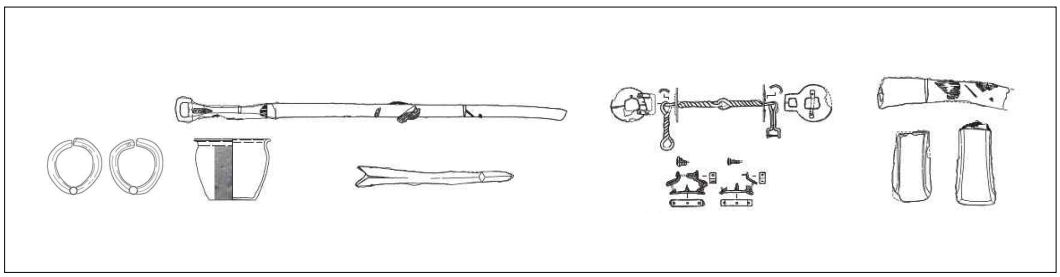
217) 이한상, 2014 앞 논문, 118쪽.

218) 한국고고환경연구소, 2010 《燕岐 松潭里·松院里 遺蹟》; 백제문화재연구원, 2014 《公州 唐岩里·燕岐 松院里 遺蹟》.

219) KM-004호 목관묘에서는 위세품류로 금동식리, 금동과대, 금동성시구 등이 출토되었고, 송원리 고분군의 16호 횡혈식석실묘에서는 주로 은장도자, 은제지환, 은장교구 등의 유물이 확인되었다. 위세품류의 재질 차이는 위계의 차이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어 주목된다.

220) 이한상, 2014 앞 논문, 74쪽.

과정에 주요한 역할을 했던 것으로 추정된다.[221] 즉 금동식리를 사여받은 피장자는 나성리 취락이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역 수장층과 백제 중앙 사이를 연결함으로써 백제의 인정을 받았던 인물이라고 볼 수 있다. ③백제 영역 외부에 존재하는 인물에게 사여된 경우는 우호관계를 상징하는 물품으로 해석된다. 대표적인 예로 일본 큐슈(九州) 에다 후나야마(江田 船山) 고분 출토 금동관모와 합천 옥전 23호분 출토 금동관모가 있다.



[그림 18] 요리 1호 목곽묘 금동관모·식리 공반 유물
(이동훈, 2018 〈고찰: 화성 요리 고분군의 특징과 조영시기〉 《華城 料里古墳群》, 韓國文化遺産硏究院》, 251쪽 도면4 수정 후 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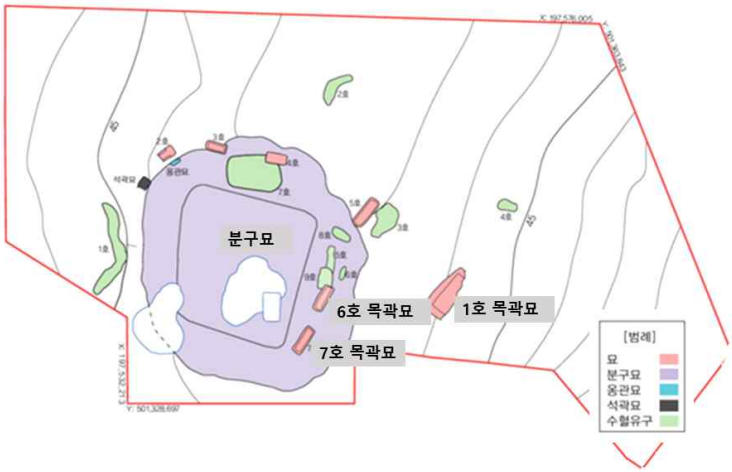
이상의 경우의 수를 고려하면서 화성 요리 고분군에서 출토된 금동관모·식리의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화성 요리 고분군 일대의 금동관모와 금동식리는 단순목곽묘인 1호 목곽묘에서 출토되었다. 금동관모·식리를 제외한 요리고분군 1호 목곽묘의 공반 유물 [그림 18]과 같다. 목관 내부에서 금동관모·식리와 금제이식, 素環頭大刀가 출토되었고 목곽의 남쪽 공간에는 격자문계 심발형토기, 마구류, 철기류(철모, 철겸, 철부 등)가 공반되었다. 그리고 목관 모서리에 철정을 배치하는 모습이 확인

221) 보고서는 KM-004호 피장자가 영남지역과도 관련성을 지니고 있다고 서술하였다. 묘제의 형태가 영남지역에서 주로 확인되는 위석목곽묘와의 유사성이 확인되고 내부에서 출토된 장경소호, 성시구 또한 소가야 등 영남계 유물과 비교가 가능하다고 보았다(이홍종 외, 2015 앞 책 本文2·圖版, 韓國考古環境硏究所, 159~162쪽). 다만 백제에서 사여한 금동식리의 존재로 볼 때 백제와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은 인물이었던 것은 확실하다. 나성리 취락 유적이 백제 주도하에 성립된 지방도시라는 점을 고려하면 물류 유통과정에 특정 역할을 담당했던 인물로 추정해볼 수 있다.

되었다. 토기류는 한성중앙양식토기 없이 격자문계 심발형토기 1점만 출토되었다. 모서리에 철정을 부장하는 현상은 앞서 살펴본 오산 수청동 유적의 5-2지점 대형묘 사례와 같이 경기 남부 일대 혹은 서산 지역에서 확인되는 부장 전통에 해당한다. 이에 요리 1호 목곽묘의 피장자는 경기 남부 지역의 분묘 전통과 관련된 인물이었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런데 백제계 금공 위세품이 발견되는 다른 유적의 공반 유물 상황을 고려하면 위상이 다소 떨어지는 모습이다. 요리 1호 목곽묘 출토 금제이식과 환두도에는 각각 垂下飾이나 상감과 같은 장식 요소가 없으며 중국제 도자기와 같은 위세품 또한 부장되지 않았다. 마구류의 경우, 비, 등자, 안장이 사용했을 당시 상태 그대로 일습 부장되었으며, 轡에서 수리 흔적이 확인되는 등 실용품으로서 위세품 성격을 지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222] 이와 같은 부장품 양상은 요리 1호 목곽묘가 백제의 금공 위세품이 출토된 유적 중 이른 시기에 조성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를 고려하더라도 이례적이다. 5세기경 요리 1호 목곽묘와 비슷한 시기에 조성된 공주 수촌리 1호 목곽묘의 경우 요리 고분군 출토품과는 확연히 다른 양상을 보인다. 금동관모·식리, 금제이식, 대금구, 장식대도, 중국도자, 성시구, 살포 등 다양한 종류의 출토품이 확인되었다. 장식 요소 또한 수하식을 갖춘 금제이식, 은상감환두대도, 수면문 과판 등 화려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22) 권도희, 2018 앞 논문, 268~270쪽.



[그림 19] 요리고분군 유구 분포도
(韓國文化遺産硏究院, 2018, 앞 책, 29쪽 수정 후 인용)

[그림 20] 송산리 유적 3-1-4구역 1호묘
(한울문화재연구원, 2018)

다음으로 착장용 금공품이 출토된 요리 1호 목곽묘의 묘제를 검토하겠다. 요리 고분군에서 단순목곽묘가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길성리·요리 지역 집단의 지역 묘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1호 목곽묘가 조성되었을 당시인 5세기 전반, 요리 고분군과 인근의 송산리 유적에서는 단순목관(곽)묘와 주구목관(곽)묘가 조영되었으며 5세기 중

후반에는 요리 고분군에서 분구묘가 확인된다. 이 일대에서는 4세기 이전의 분묘는 아직 발굴 조사가 되지 않았으며 4세기 후반~5세기대의 유구만 확인된 상황이지만, 주변 하천 유역의 분묘 문화상으로 보았을 때 4세기 이전에도 길성리·요리 지역 집단이 주구목관(곽)묘·분구묘와 같은 주구부 묘제를 사용했을 가능성은 충분해 보인다. 길성리·요리 일대가 속해있는 진위천 유역의 경우 평택 가곡리 유적, 평택 좌교리·해창리 유적 등에서 2세기~4세기 후반 주구부 묘제가 조성되었다. 안성천 유역의 경우 5세기대 안성 승두리 유적에서 주구가 연결된 연접식분구묘가 축조되며[223] 인근의 오산천 유역은 2장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주구목관(곽)묘 문화를 2세기대부터 5세기 후반까지 유지하고 있다. 그렇다면 4세기 길성리·요리 지역 집단 내부에는 주구목관(곽)묘·분구묘를 조성한 집단과 단순목관(곽)묘를 조성한 집단이 공존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5세기대 조영된 요리 고분군 분구묘의 축조 과정 또한 길성리·요리 지역 집단 내부에 여러 계통·성격의 집단이 존재했을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요리 분구묘의 분구는 높이가 2~3m에 달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토층 양상을 통해 볼 때 땅을 구획·정지한 후 주구를 굴착하여 그 내부 토로 분구를 축조하였다.[224] 그런데 주구 굴착 과정에서 이전 시기의 6, 7호 단순목곽묘[225] 상부와 내부 유물이 파괴되었다고 한다. 이는 분구묘를 축조한 집단이 6, 7호 목곽묘를 축조한 집단과 계통·성격이 달랐음을 시사한다.

5세기경 요리 1호 목곽묘의 금동관모·식리가 부장되었을 당시 인근 유적군의 상황은 어떠했을까. 길성리토성이 폐기된 후 요리 고분군 인근에 취락이 백제 주도로 재편·확장되었으며 소근산성이 축조되고 있었다. 취락이 재편되고 새로운 성곽이 축조되는 등 백제의 지배력이 강화되던 당시 상황을 고려하면, 백제가 지역 집단의 권위를 인정하는 차원에서 금동관모와 식리를 사여했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

223) 한양문화재연구원, 2021 앞 책.
224) 韓國文化遺産硏究院, 2018 앞 책, 73~75쪽.
225) 6호 목곽묘와 7호 목곽묘는 같은 단계에 조성된 것으로 보이는데, 7호 목곽묘에서 출토된 파상문광구장경호를 통해 5세기 중엽으로 편년된다(韓國文化遺産硏究院, 2018 위 책, 246~248쪽).

공반 유물 조합, 묘제, 인근 유적의 상황을 모두 고려한 결과, 요리 1호 목곽묘 피장자를 최상위 위계를 지닌 지역 수장으로 해석하기는 힘들다. 연기 나성리 KM-004호 목곽묘 피장자가 최상위 수장이 아님에도 나성리 취락 유적과 관련된 인물로서 금동식리를 사여 받은 사례를 참조하면 요리 1호 목곽묘의 피장자 또한 최상위 수장층이 아니지만 지역 집단 내부에서 특정 역할을 수행한 대가로서 금동관모·식리를 받았을 가능성을 생각해볼 수 있다. 즉 취락 재편, 소근산성 축성, 공납·조세 수취 등 백제 주도로 이루어진 통치 과정에서 중앙과 지역 집단을 연결하는 역할을 담당했던 것으로 추정된다.[226]

중앙이 지역 세력 중 특정 인물을 선택하고 협력 관계를 맺는 경우, 지역 질서 개편에 유리하도록 중앙에 우호적인 집단을 의도적으로 선택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는 다른 국가의 사례에서 확인된다. 우선, 3세기 중엽 고구려에서 동옥저를 복속한 후 실시했던 지배방식을 비교 사례로 참조할 수 있다.

> (東沃沮는) 나라가 작아 큰 나라 사이에서 핍박을 받다가 결국 고구려에게 신속되었다. 고구려는 그중의 大人을 使者로 삼아 서로 다스리게 하였다. 또한 大加로 하여금 그 조세를 통괄하여 統責하도록 했는데 貊·布·魚·鹽·海草類 등을 천 리나 짊어져서 나르게 하고, 또 미녀를 보내게 하여 노비나 첩으로 삼았으니, 그들을 마치 노복처럼 대우했다.[227]

---

226) 중앙에서 파견된 인물과 지역 집단을 연결해주는 역할은 전근대시기 보편적으로 확인되며 지방관이 파견된 이후에도 존재하고 있다. 5方제 하의 백제 세제에서도 역역 동원이나 조세 부과 과정에서 父老와 같은 村 단위 유력자의 도움을 필요로 했다(金英心, 2005 〈백제 5方制 하의 수취체제〉, 《역사학보》185, 역사학회, 35쪽). 신라의 경우 6세기 말 시기의〈南山新城碑〉에서 지방의 村主 이하 재지세력이 실질적인 축성 작업을 담당·관리했음이 확인되는데, 지방의 실질적인 행정이 지역 토착 집단의 체계에 의해 운용되었던 정황을 보여주어 참조된다(姜鳳龍, 1987 〈신라 「中古」期 「州」制의 형성과 운영〉《韓國史論》16, 서울대 국사학과, 119쪽).

227) 《三國志》 烏丸鮮卑東夷傳 東沃沮條 "國小 迫于大國之間, 遂臣屬句麗. 句麗復置其中大人爲使者使相主領. 又使大加, 統責其租稅, 貊布魚鹽海中食物, 千里擔負致之, 又送其美女以爲婢妾, 遇之如奴僕."

고구려는 동옥저의 '大人'을 '使者'로 삼아 관할하는 한편, 조세 수취는 고구려에서 파견한 '大加'가 統責하도록 했다.[228] 즉 고구려는 동옥저의 재지 세력 중 협조적인 인물을 使者로 선정하였으며, 고구려 중앙인에 해당하는 大加를 파견하여 경제적으로 착취한 것이다. 고구려에 의해 使者로 임명된 大人은 토착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면서 고구려 대가의 조세 수취를 돕는 중요한 임무를 담당하였다.[229] 이 사료는 고구려가 동옥저 사회를 대인을 통해 통치했음을 보여주는 한편, 대가와 협력 관계를 유지할 인물을 '선택'했음을 시사한다. 신라의 경우, 복속 소국이나 읍락 집단을 촌으로 재편할 때 그 지배자(干)를 村主로 임명하고 촌주는 道使 등 지방관의 업무를 보조하였던 것으로 이해된다.[230] 그런데 지역 사회에는 토착 기반의 전통적인 수장에 해당하는 '干'적인 존재 외에도, 신라 중앙의 의도가 작용하여 '선택'을 받았던 인물도 존재했다. 이는 신라 중앙에서 使者를 파견하여 지방인 중 '孝悌를 행함에 남다른 자'에게 職을 1급씩 주었다는 기사[231]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232]

또한 중앙이 위세품 사여를 통해 지역 집단 내부를 분리·조종하여 기존 지역 집단의 질서를 해체하고자 했음을 보여주는 고고 자료가 있어 참조할 수 있다. 경산 임당·조영동 고분군에서는 같은 지역 내 복수의 집단이 신라 중앙으로부터 위세품을 받는 사례가 확인된다. 4세기 후반경부터 동시기 지점을 달리하여 축조된 임당동 7A 묘역과 조영동 CⅡ묘역, 조영동 EⅢ묘역에서 복수의 금동관이 출토되었다.[233] 임당동 묘역에

228) 大加는 那部의 지배세력으로, 계루부 왕권의 통제 아래 군사력을 동원하여 동옥저를 정복했고 그 대가로 조세 수취과정에 참여하는 권한을 분배받은 것으로 이해된다(여호규, 2014 《고구려 초기 정치사 연구》, 신서원, 344쪽).

229) 여호규, 2014 위 책, 351쪽.

230) 전덕재, 2002 《한국고대사회의 왕경인과 지방민》, 태학사, 50쪽.

231) 《三國史記》卷3 新羅本紀3 奈勿尼師今 二年 春條 "發使撫問鰥寡孤獨, 各賜穀三斛, 孝悌有異行者, 賜職一級."

232) 지방에서의 유력 세력 내부에는 干적 존재인 거수의 후예들이 많았겠지만 4~5세기 일반 읍락민 중에서 민의 분화에 따라 신분을 상승시킨 부류도 있었음을 지적한 견해가 있다(김재홍, 2001 〈新羅 中古期 村制의 成立과 地方社會 構造〉,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박사학위논문, 75쪽). 김재홍은 촌에서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여 국가로부터 공적 기반을 인정받은 유력 계층이 村主와 '豪民層'으로 구성되었다고 서술하였다.

233) 임당유적의 유구 내용은 金龍星, 1998 《新羅의 高塚과 地域集團 -大邱·慶山의

서는 농기구 자체가 거의 출토되지 않는 반면 조영동 묘역은 U자형 삽날 등 농기구가 대부분의 고분마다 나온다는 점에서 두 묘역 조성 집단의 성격이 달랐던 것으로 보이며[234], 신라 중앙이 견제와 균형의 정책에 따라 위세품을 번갈아가며 사여함으로써 지역 집단을 전체적으로 약화시키고자 했다고 해석된다.[235] 경산 임당·조영동 고분군 출토 금동관은 지역 내 최상위 수장층이 아니더라도 중앙의 의도에 따라 특정 집단이 선택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또 다른 사례에 해당한다.

백제는 지역 사회에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중앙 권력에 협조적이거나 지방 통치에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세력을 선택하고 비교적 중앙과의 친밀도가 낮거나 통치에 방해·위협이 될 세력은 배제하고자 했을 것이다. 화성 요리고분군에서 출토된 금동관모·식리에는 이와 같은 백제의 의도가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즉 5세기 주구목관(곽)묘·분구묘 조영 집단과 단순목관(곽)묘 조영 집단 등 복수의 세력이 길성리·요리 일대에 공존하던 상황에서, 백제는 지역 집단 내 질서를 조정하고 해당 지역을 효과적으로 지배하기 위해 단순목관(곽)묘 조영 세력에 금동관모·식리를 사여하여 대표성을 부여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오산 수청동 유적의 경우 화성 요리고분군에서 출토되는 금동관모·식리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는 백제가 5-2지점의 대형묘 조영 세력을 배제한 시점에서 수청동 유적 내 질서가 백제 중앙의 의도대로 재편되었고 5세기경 오산천 유역에 대한 지배력 또한 관철되었기 때문에, 굳이 착장형 금공품을 사여하여 특정 인물에게 대표성을 부여하지 않아도 되었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例-》, 춘추각, 82~84쪽의 표를 참조하였다.
234) 이희준, 2007 앞 책, 284쪽.
235) 이희준, 2007 위 책, 315쪽.

맺음말

경기 화성·오산시 일대는 백제가 천안·아산 일대의 목지국으로 향하기 전 교두보에 해당하며 독자적으로 토성을 축조하는 등 유력한 세력이 입지해 있는 지역이었다. 본 논문은 화성·오산 일대 2~5세기 생활 유적(주거·생산·성곽)과 분묘 유적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백제가 해당 지역을 장악해가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이때 성곽·분묘·주거지·토기류·위세품류 등에서 확인되는 구체적인 출토 맥락에 유의하여 역사적 의미를 해석하고자 하였다.

화성·오산 일대는 전근대 시기 서봉지맥과 오두지맥을 기준으로 동부 내륙 지역(과거 '水城郡' 관할 지역)과 서부 해안 지역(과거 '唐恩郡' 관할 지역)으로 구분되어 왔다. 논문에서는 이와 함께 고분군의 분포·특징을 고려하여, 2~3세기대 지역 집단의 존재가 확인되는 동부 내륙 지역을 주요 분석 범위로 한정하였다. 그리고 하천 유역을 세부 권역의 기본 단위로 설정하여 황구지천, 발안천, 진위천, 오산천 유역으로 나누어 지역 집단의 존재 양상을 파악하였다. 화성·오산 일대 지역 집단은 권역별로 지역색 유지 여부·위상·백제와의 친연성 측면에서 다른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황구지천과 발안천 유역에서는 다양한 문화상이 확인되어 지역색이 비교적 약했던 반면, 진위천과 오산천 유역은 주거·분묘 유적에서 지역색이 확인되며 5세기대까지 유지되었다. 위세품류 등 출토 유물로 볼 때 진위천과 오산천 유역의 위상은 5세기대까지 높게 유지되는 한편 봉담읍 일대는 위상이 상대적으로 낮은 모습이 확인된다. 백제와의 친연성 측면에서는 발안천 유역이 특징적이다.

백제는 화성·오산 일대 지역 집단의 세력과 지형 조건을 고려하여 우선적인 진출 방향을 설정하였으며, 4세기 이후 거점 취락 형성, 취락 재편, 축성, 위세품 사여 등의 방식을 통해 지역을 장악해갔다. 4세기 전반경 백제가 한강 유역에서 남진할 때 발안천 유역을 개척하고 거점 취락을 형성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봉담읍 일대의 3세기 이후 유적군에서는 백제와의 기술적 친연성, 각종 형식으로 분화된 묘제, 분묘 출토품의 낮

은 위상이 확인되고 있어, 지역 집단 내부의 질서와 지역색이 비교적 약하며 백제의 영향력이 강하게 작용했음을 방증한다. 한편 서해안에 인접해 있는 발안리 취락 유적은 백제 주도로 운영된 물류 유통 시설과 구조적으로 유사하여 주목된다. 발안리 유적은 수운 교통에 유리한 해안가·하천 변에 인접해 있고 구획된 공간, 다수의 창고용 건물지, 건축 부재 등 특수 유물이 확인된다는 점에서, 평택 세교동 모산골 유적 등 백제 지방도시의 시원적 형태이자 백제 주도의 거점 취락으로 판단된다. 백제는 4세기 화성·오산 일대에 진출할 때 오늘날의 수원시-봉담읍-향남읍으로 이어지는 경로를 먼저 사용하였다. 이는 진위천 유역의 길성리토성 축조 집단과 오산천 유역의 주구토광묘 축조 집단을 의식하여 우회한 결과로 보인다.

4세기 중엽 이후 백제는 기존의 중심 취락을 재편·이전하고 성곽을 축조하면서 새로운 거점을 마련하였다. 진위천 유역의 길성리·요리 일대의 경우 재지 집단이 축조한 길성리토성이 폐기되고 그 밖으로 취락이 확장되면서 주거 형식, 출토 유물 양상에서 변화가 확인된다. 취락 재편과 함께 백제 주도의 축성 작업 또한 이루어졌다. 소근산성 내부 출토 유물과 주변 유적 상황을 검토한 결과, 군사·행정적 기능을 갖춘 거점성으로서 백제 중앙에서 중시했던 시설이었음을 파악하였다. 백제 중앙은 길성리토성 일대 취락을 재편하고 소근산성을 축조하는 과정에서, 지역 장악력을 강화하고 교통로로 연결되는 성곽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했다. 길성리·요리 일대 외에도 오산 지역에서도 4세기 중엽 이후부터 취락이 재편·이전되는 현상이 나타난다. 오산천 유역에서 농경, 저장 등 특수한 성격을 지닌 중심 취락이 백제에 의해 조성되고 대규모 저장수혈군이 확인되는 점을 고려하면, 4세기 중엽 이후부터 오산-화성-평택을 잇는 선이 주요 교통로로 활용되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진위천과 오산천 유역에서 취락 재편 현상이 진행되는 가운데 주요 분묘 유적에서는 위세품류가 부장되었다. 오산 수청동고분군과 화성 요리고분군을 분석한 결과, 백제가 고분군 축조 집단 중 일부를 배제 혹은 선택하여 집단 내부 질서를 조정하고자 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수청

동고분군에서는 4세기 후반 백제 외 다른 지역과의 관계성을 보여주는 대형 분묘가 별도의 입지에 조성되다가 5세기 이후부터 그 전통이 단절되고, 주요 묘역이 이동하는 현상이 확인된다. 이는 백제의 의도가 반영된 결과였을 가능성이 높다. 금동관모·식리를 사여 받은 요리 1호 목곽묘 피장자는 공반 유물 조합·묘제·인근 취락의 재편 상황을 고려할 때, 지역 내 권위를 지닌 최상위 수장층이라고 해석하기 힘들다. 이는 ① 공주 수촌리 유적 등 백제 금공품이 출토되는 다른 유적에 비해 공반 유물의 위상이 다소 떨어진다는 점 ② 5세기경 길성리·요리 일대에 주구목관(곽)묘·분구묘 축조 집단과 단순목관(곽)묘 축조 집단이 공존하고 있던 상황에서 단순목곽묘에 위세품이 부장되었다는 점 ③ 고분군 바로 인근에서 길성리토성이 폐기되고 이미 백제에 의해 취락 재편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점을 고려한 결과이다. 분묘 출토 위세품류에는 중앙 권력에 협조적인 세력을 선택하여 지역 사회 질서를 재조정하고자 한 백제의 의도가 함축되어 있었다. 화성 요리 목곽묘에서 출토된 착장용 금공품은 지역 집단의 권위를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백제 중앙에 협조한 인물이 받은 대가 혹은 백제가 지역 장악을 위해 활용한 도구였을 가능성이 크다.

본 논문은 백제가 한강 유역에서 성장해가던 시점에서 마주했던 화성·오산시 일대의 지역 집단의 존재 양태를 분석함으로써 백제의 남쪽 방면의 진출 전략과 지역 장악 과정을 살펴보았다. 또한 분묘에 부장된 위세품의 의미를 출토 맥락과 함께 살펴봄으로써 백제 위세품을 지역 수장의 상징, '간접지배의 산물' 등 지방통치 제도와 연결지어 해석한 기존의 견해를 재검토하고 백제의 위세품 사여 의도를 도출하였다. 하지만 사료의 한계와 발굴 자료의 불균형 문제로 화성시 서부 해안 지역 등 일부 지역을 자세히 다루지 못하였다. 또한 경기 남부권 유적·유물을 대상으로 한 정치한 편년 작업이 수반되지 않아 시기별 유적 양상을 다소 거칠고 단절적으로 파악하였다. 그리고 화성·오산 일대에서 확인되는 백제의 진출 방식이 다른 지역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비교 서술하지 못하였다. 향후 자료를 보충하고 경기 서부권, 천안·아산 일대 등 백제 주변 지

역의 상황을 면밀히 고려하여 초기 백제의 성장 과정을 구체화하고자 한다. 또한 비교 자료로서 웅진·사비기의 지방 제도, 고구려, 신라, 倭 등 다른 고대국가의 사례를 참조하여 시야를 확장해나가겠다.

참 고 문 헌

Ⅰ 자료

1. 史書와 金石文

〈廣開土王碑文〉《三國志》《三國史記》《梁書》

2. 발굴보고서와 도록

嘉耕考古學硏究所 , 2019 《平澤 細橋洞 모산골 遺蹟 Ⅲ》.
겨레문화유산연구원, 2013 《오산 청학동 유적》.
경기도박물관, 1999 《도서해안지역 종합학술조사》Ⅰ.
_____, 2003 《경기도3대하천유역 종합학술조사Ⅲ 안성천》.
京畿大學校博物館, 2006 《華城 甘杯山 遺蹟》.
_____, 2010 《華城 花山洞 遺蹟》.
京畿文化財硏究院, 2011 《烏山 內三美洞 遺蹟》.
_____, 2012 《烏山 水淸洞 百濟 墳墓群》.
高麗文化財硏究院, 2010 《烏山 內三美洞 遺蹟》.
국립문화재연구소, 2013 《백제 한성지역 유물 자료집》.
국방문화재연구원, 2021 〈화성 사창리(산5-2번지 일원) 공장 신축부지 내 유적발굴조사 전문가 검토회의 자료〉.
權五榮·權度希, 2002 《花山古墳群》, 한신大學校博物館.
權五榮·金斗權, 2004 《華城 堂下里Ⅱ 遺蹟》, 숭실대학교 박물관·한신대학교박물관.
權五榮 외, 2007 《華城 佳才里 原三國 土器 窯地》, 한신대학교박물관.
_____, 2010 《華城 吉城里土城 Ⅰ》, 한신대학교박물관.
_____, 2011 《華城 旺林里 노리재골Ⅱ 百濟遺蹟》, 한신대학교박물관.
권오영·한지선, 2003 〈儀旺市 一括出土 百濟土器에 대한 관찰〉《吉城里土城》, 한신大學校博物館.

기남문화재연구원, 2018 《安城 道基洞山城》.
畿甸文化財硏究院, 2007a 《華城 發安里 마을遺蹟》.
_____, 2007b 《華城 旗安里 遺蹟》.
_____, 2007c 《華成 石隅里 먹실遺蹟》.
_____, 2007d 《烏山 佳水洞 遺蹟》.
기호문화재연구원, 2013 《烏山 塔洞·斗谷洞 遺蹟》.
_____, 2020 《화성 당하~오일간 도로확·포장공사부지 문화재 발(시)굴조사 약보고서》.
_____, 2022 《화성 마하리·관항리 고분군》.
金成南·金珍京, 2005 《華城 馬霞里 百濟 집터 - 馬霞里 33番地 一帶 試掘調査 報告書-》, 서울대학교박물관.
馬韓文化硏究院, 〈광주 운수동(36-1번지) 공공주택지구 조성부지 내 유적 문화재 발굴조사 학술자문회의 자료집(1차)〉.
백제문화재연구원, 2014 《公州 唐岩里·燕岐 松院里 遺蹟》.
서울大學校博物館, 2002 《華城 古今山遺蹟》.
성정용·전희경·남상원, 2011 《華城 吉城里土城 Ⅱ》, 충북대학교박물관.
안신원 외, 2021《唐城 - 6차 발굴조사보고서》, 한양대학교 박물관.
李南珪 외, 2000 《水原 古邑城》. 한신大學校 博物館.
李鮮馥·金成南, 2000 《華城 堂下里Ⅰ 遺蹟》, 崇實大學校博物館·서울大學校博物館.
_____, 2004 《馬霞里 古墳群》, 숭실대학교박물관·서울대학교박물관.
이헌재 외, 2012 《소근산성》, 경기도박물관.
이홍종 외, 2015 《燕岐 羅城里 遺蹟》, 韓國考古環境硏究所.
中部考古學硏究所, 2012 《華城 旺林里 노리재골Ⅰ 遺蹟》.
_____, 2013 《華城 吉城里土城》.
_____, 2021 《華城 黃鷄洞 遺蹟》.
中央文化財硏究院, 2013 《烏山 闕洞遺蹟》.
최병현 외, 2010 《水原 西屯洞 遺蹟》, 숭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
하문식 외, 2006 《의왕 모락산성》, 세종대학교박물관.
平澤市·京畿道博物館, 1999《平澤의 歷史와 文化遺蹟》.

한국고고환경연구소, 2010 《燕岐 松潭里·松院里 遺蹟》.
韓國文化財保護財團, 2008《華城 白谷里 遺蹟》.
韓國文化遺産硏究院, 2011 《平澤 馬頭里遺蹟》.
_____, 2012a 《烏山 內三美洞 遺蹟》.
_____, 2012b 《華城 料里 270-4番地 遺蹟》.
_____, 2018 《華城 料里 古墳群》.
韓國精神文化硏究院發掘調査團, 1994 《華城 白谷里古墳》.
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화성시, 2006 《화성시의 역사와 문화유적》.
한백문화재연구원, 2011 《오산 외삼미동 유적》.
_____, 2013 《화성 청계리 유적》.
한성백제박물관, 2016 《백제王의 선물: 사여품》.
한신大學校博物館, 2003 《吉城里土城》.
_____, 2009 《華城 松山洞 農耕遺蹟》.
한양문화재연구원, 2020 《화성 제암리 383-15번지 유적》.
_____, 2021 《安城 蠅頭里 遺蹟》.
한울문화재연구원, 2018 《화성 송산리 유적》.
湖南文化財硏究院, 2007 《光州 東林洞遺蹟》.
_____, 2020 《平澤 海倉里 Ⅴ·Ⅵ·Ⅶ 遺蹟》.
湖巖美術館, 1998 《華城 馬霞里 古墳群》.
화성시역사박물관, 2020 《요리 금동관 다시 깨어나다》.

Ⅱ 연구 논저

1. 단행본

김기섭, 2000 《백제와 근초고왕》, 학연문화사.
盧重國, 1988 《百濟政治史 硏究-國家形成과 支配體制의 變遷을 中心으로-》, 一潮閣.
문안식, 2002 《백제의 영역확장과 지방통치》, 신서원.
박순발, 2001 《漢城百濟의 誕生》, 서경문화사.
여호규, 2014 《고구려 초기 정치사 연구》, 신서원.

李丙燾, 1976 《韓國古代史硏究》, 博英社.
이성준, 2018 《한성백제의 성장》, 진인진.
이한상, 2009 《장신구 사여체제로 본 백제의 지방지배》, 서경문화사.
이희준, 2007 《신라고고학연구》, 사회평론.
전덕재, 2002 《한국고대사회의 왕경인과 지방민》, 태학사.
정구복 외, 2012 《역주 삼국사기》4,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土田純子, 2014 《百濟土器 東아시아 交叉編年 硏究》, 서경문화사.

2. 논문 및 발표문

강동석, 2018 〈지석묘사회의 취락패턴과 복합화 - GIS를 활용한 영산강 중류역 취락패턴의 재구성〉 《韓國考古學報》109.
姜鳳龍, 1987 〈신라 「中古」期 「州」制의 형성과 운영〉《韓國史論》16.
권오영, 2001 〈백제국(伯濟國)에서 백제(百濟)로의 전환〉《역사와현실》40.
_____, 2009 〈원삼국기 한강유역 정치체의 존재양태와 백제국가의 통합양상〉 《고고학》8-2.
_____, 2011〈漢城百濟의 時間的 上限과 下限〉《百濟硏究》53.
_____, 2012 〈백제 한성기의 도성과 지방도시〉 《고고학》11-3.
_____, 2016 〈한성백제기 화성지역 정치체의 성장〉 《화성지역 고고학 연구의 현황과 쟁점》, 화성시청.
_____, 2019 〈마하리 고분군〉 《화성시 발굴 유적과 유물의 재조명》, 화성시청.
_____, 2020a 〈삼국~남북국시대의 오산〉 《烏山市史》2, 오산시사편찬위원회.
_____, 2020b 〈경기 남부 최강자가 묻혀 있는 화성 요리고분군〉 《요리 금동관 다시 깨어나다》, 화성시역사박물관.
권오영·권도희, 2003〈사창리 산 10-1번지 출토 유물의 소개〉 《吉城里土城》, 한신大學校博物館.
권도희, 2012〈고찰6: 오산 수청동 분묘군 馬具에 대하여〉《烏山 水淸

洞 百濟 墳墓群》, 京畿文化財硏究院.
김길식, 2017a 〈원삼국～백제 한성기 경기남부지역 제철기지 운용과 지배세력의 변화 추이〉 《百濟文化》56.
_____, 2017b 〈백제 한성기 화성지역의 성곽 축조과정과 그 배경〉 《화성지역 고대문화의 제양상 -고대의 화성을 그리다-》, 화성시청.
_____, 2020a 〈한성백제 사람들이 경작하던 밭, 석우동 먹실 유적〉 《땅속에서 찾은 화성의 역사》, 화성시사편찬위원회.
_____, 2020b 〈해안가에 거주하던 백제 사람들의 무덤, 백곡리 고분군〉, 《땅속에서 찾은 화성의 역사》, 화성시사편찬위원회.
김미령·김승옥, 2018 〈장신구〉 《마한고고학개론》, 진인진.
김무중, 2004 〈華城 旗安里製鐵遺蹟 出土 樂浪系土器에 대하여〉 《百濟硏究》 40.
김성남, 2004 〈백제 한성양식토기의 형성과 변천에 대하여〉 《고고학》3-1.
_____, 2006 〈百濟 漢城時代 南方領域의 擴大過程과 支配形態 試論〉 《百濟硏究》58.
김수태, 1998 〈3세기 중·후반 백제의 발전과 馬韓〉 《馬韓史 硏究》, 忠南大學校 出版部.
김승옥, 2009 〈분구묘의 인식과 시공간적 전개과정〉 《한국 매장문화재 조사연구방법론》 5, 국립문화재연구소.
金永心, 1997 〈百濟 地方統治體制 硏究-5～7세기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박사학위논문.
_____, 1998 〈百濟의 城, 村과 地方統治〉 《百濟硏究》28.
김영심, 2003 〈웅진·사비시기 百濟의 領域〉 《古代 東亞細亞와 百濟》, 서경.
_____, 2005 〈백제 5方制 하의 수취체제〉, 《역사학보》185.
_____, 2014 〈고흥 안동고분 축조의 역사적 배경〉《百濟文化》51, 공주대학교 백제문화연구소.
_____, 2018 〈백제 웅진시기 지방통치의 구상과 운영의 실제〉《백제 웅진기 영역과 지방통치》, 한성백제박물관.

金龍星, 1998 《新羅의 高塚과 地域集團 -大邱·慶山의 例-》, 춘추각.
김왕국, 2016 〈百濟 漢城期 貯藏施設 擴散의 動因 -단면 플라스크 저장 수혈을 중심으로-〉, 《百濟硏究》63.
김장석·권오영, 2008 〈한성양식 토기의 유통망 분석〉 《백제 생산기술의 발달과 유통체계 확대의 정치사회적 함의》, 한신대학교 학술원 편, 학연문화사.
김재홍, 2001 〈新羅 中古期 村制의 成立과 地方社會 構造〉,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박사학위논문.
김종일, 2008 〈고고학 자료의 역사학적 해석에 대한 비판적 고찰〉 《韓國古代史硏究》52.
노중국, 1990 〈目支國에 대한 一考察〉 《百濟論叢》2.
_____, 2013 〈백제의 왕·후호제와 금동관 부장자의 실체 -歸葬-을 중심으로〉 《韓國古代史硏究》70.
맹소희, 2017 〈한성백제기 화성·오산지역 고고학적 변화양상 연구 - 분묘유적과 주거유적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문화인류학과 석사학위논문.
문동석, 2012 〈漢城百濟의 茶文化와 茶確〉 《百濟硏究》56.
박경신, 2019 〈原三國時代 中島類型 聚落의 編年과 展開〉, 숭실대학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_____, 2021 〈경기지역의 마한 소국을 말하다-안성천 유역권을 중심으로-〉 《최근 발굴성과로 본 경기도의 마한과 고대국가 백제 발표자료집》, 경기문화재단(경기도박물관)·중부지역문화재조사기관협회·한성백제박물관·한국문화유산협회.
박성현, 2010 〈新羅의 據點城 축조와 지방 제도의 정비 과정〉,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박사학위논문.
朴淳發, 2007 〈墓制의 變遷으로 본 漢城期 百濟의 地方編制 過程〉 《韓國古代史硏究》48.
_____, 2013 〈유물상으로 본 백제의 영역화 과정〉 《백제, 마한과 하나되다: 2013 여름 특별전》, 한성백제박물관.
_____, 2014 〈백제 한성기의 지방도시〉 《백제의 왕권은 어떻게 강화되었나: 한성백제의 중앙과 지방》, 한성백제박물관.

박중국, 2013 〈백제 한성양식토기의 분포현황 검토 -중부지역을 중심으로-〉 《漢江考古》9.
_____, 2019 〈화성시 일대 원삼국시대 취락의 분포와 전개양상〉 《화성시 발굴 유적과 유물의 재조명》, 화성시청.
徐榮一, 2005 〈漢城 百濟時代 山城과 地方統治〉 《文化史學》24.
서현주, 2014 〈백제의 서남방면 진출-고고학적 측면〉 《근초고왕 때 백제 영토는 어디까지였나: 백제의 영토확장》, 한성백제박물관.
成正鏞, 2000 〈中西部 馬韓地域의 百濟 領域化 過程 硏究〉 서울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 박사학위논문.
_____, 2003 〈百濟와 中國의 貿易陶磁〉 《百濟硏究》38, 충남대학교 백제연구소.
_____, 2009 〈중부지역에서 백제와 고구려 석실묘의 확산과 그 의미〉 《횡혈식석실분의 수용과 고구려 사회의 변화》, 동북아역사재단.
_____, 2010 〈백제 관련 연대결정자료와 연대관〉 《湖西考古學》22.
_____, 2016 〈馬韓·百濟地域 墳丘墓의 出土遺物과 性格〉 《先史와古代》49.
_____, 2021 〈“백제는 언제 섬진강유역으로 진출하였나” 토론문〉 《백제는 언제 섬진강 유역으로 진출하였나 발표자료집》, 한성백제박물관 백제학연구소.
송만영, 2013 《중부지방 취락고고학 연구》, 서경문화사.
신은정, 2017 〈原三國~漢城百濟期 京畿地域 四柱式住居址 硏究〉, 한신대학교 한국사학과 석사학위논문.
오석민, 2018 〈지도와 지명을 통해 본 화성 지역의 간척〉 《연해지역의 간척과 주민 생활의 변화》, 화성시사편찬위원회.
이계만, 2015 〈3-5세기 백제 지방 편제 과정 연구 -경기 서남부지역을 중심으로-〉, 《史學志》15, 단국사학회.
이남규·권오영·문동석, 2004 〈경기 남부 백제유적의 분포양상과 역사적 의미〉 《百濟硏究》40.
이남규, 2008 〈백제 철기의 생산과 유통에 대한 시론〉 《백제 생산기술의 발달과 유통체계 확대의 정치사회적 함의》, 학연문화사.
_____, 2021 〈중부지역 마한과 고대국가 백제-마한지역 문화 특성과

백제영역화 과정을 중심으로-〉, 《최근 발굴성과로 본 경기도의 마한과 고대국가 백제 발표자료집》.
이남석, 2008 〈百濟의 冠帽 · 冠飾과 地方統治體制〉 《韓國史學報》33.
이도학, 2007 〈백제의 중앙집권체제 확립과 영역 확대〉 《漢城都邑期의 百濟》,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이동훈, 2018 〈고찰: 화성 요리 고분군의 특징과 조영시기〉 《華城 料里 古墳群》, 韓國文化遺産硏究院.
이영철, 2020 〈또 다른 백제의 지방도시, 광주 동림동〉 《백제의 계획도시, 세종 나성동》, 국립공주박물관.
이한상, 2014 〈고고자료에 투영된 한성백제의 중앙과 지방〉 《백제의 왕권은 어떻게 강화되었나: 한성백제의 중앙과 지방》, 한성백제박물관.
_____, 2015 〈水村里古墳群에서 본 百濟金工樣式의 발현과 전개〉 《百濟文化》52.
_____, 2018 〈고찰: 料里 1號木槨墓 출토 金銅冠과 金銅飾履 검토〉 《華城 料里 古墳群》, 韓國文化遺産硏究院.
이혁희, 2013 〈한성백제기 토성의 축조기법과 그 의미〉 《韓國考古學報》89.
_____, 2021a 〈경기지역 백제 한성기 물질문화의 지역성-마한문화와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최근 발굴성과로 본 경기도의 마한과 고대국가 백제 발표자료집》, 경기문화재단(경기도박물관)·중부지역문화재조사기관협회·한성백제박물관·한국문화유산협회.
_____, 2021b 〈백제 한성기 토성의 축조기술〉 《풍납토성 축성기술의 비밀을 풀다 학술대회 자료집》, 국립강화문화재연구소.
李賢淑, 2011, 〈墓制를 통해 본 漢城期 百濟의 地域相-龍院里遺蹟圈을 中心〉 《百濟硏究》55.
이현숙, 2017 〈한성기 백제 재지사회 내 상호작용 연구-서산 부장리유적권을 중심으로-〉 《白山學報》107.
李賢惠, 1997 〈3세기 馬韓과 伯濟國〉 《百濟의 中央과 地方》, 忠南大學校 百濟硏究所.
_____, 2014 〈백제 국가 형성과 발달 과정을 둘러싼 중요 쟁점〉 《백

제의 왕권은 어떻게 강화되었나: 한성백제의 중앙과 지방》, 한성백제박물관.
李勳, 2012 〈金銅冠을 통해 본 百濟의 地方統治와 對外交流〉, 《百濟硏究》55.
정경화, 2021 〈마한～백제 한성기 철기문화의 양상 -경기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최근 발굴성과로 본 경기도의 마한과 고대국가 백제 발표자료집》, 경기문화재단(경기도박물관)·중부지역문화재조사기관협회·한성백제박물관·한국문화유산협회.
정재윤, 2014 〈백제의 서산 지역 진출과 운영〉 《역사와 담론》72.
조가영, 2018 〈한성기 횡혈식석실분의 출현과 전개〉 《동아시아 고분문화와 백제 왕릉의 위상 발표자료집》, 서울특별시.
최장열, 2020 〈백제의 웅진천도와 세종 나성동 도시 유적〉 《백제의 계획도시, 세종 나성동》, 국립공주박물관.
최지훈, 2019 〈원삼국～한성백제기 오산천유역문화의 지역성: 주거와 분묘를 중심으로〉, 한신대학교 한국사학과 석사학위논문.
土田純子, 2015 〈考古資料를 통해 본 漢城期 百濟의 領域擴大過程 硏究〉 《제12회 매산기념강좌-중부지역 한성기 백제 주변 정치체의 동향》, 숭실대학교 기독교박물관.
한성백제박물관, 2014 〈종합토론〉 《백제의 왕권은 어떻게 강화되었나: 한성백제의 중앙과 지방》.
_____, 2020 〈종합토론〉 《삼국사기 초기 기록, 어디까지 믿을 수 있나》.
한지선, 2013 〈漢城百濟期聚落과 土器遺物群의 變遷樣相-서울과 경기권 편년수립을 위하여-〉 《중앙고고연구》 12.
한지수, 2010 〈百濟 風納土城 출토 施釉陶器 연구〉 《百濟硏究》50.
허수정, 2019 〈百濟 漢城期 地上建物의 展開樣相〉, 한신대학교 한국사학과 석사학위논문.

Abstract

Baekje's Advance into Hwaseong&Osan Areas and the Domination of the Region

Han Jisun

Department of Korean History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d Baekje's strategy of advancement into Hwaseong and Osan areas by comprehensively examining tombs and dwellings dating from the 2nd century to the 5th century. It focused on the eastern inland areas of Hwaseong and Osan for analysis, considering topography, its history, and the distribution·characteristics of ancient tombs. Sites of the Hwaseong and Osan areas can be divided into four groups: Hwangguji stream basin group, Balan stream basin group, Jinwi stream basin group, and and Osan stream basin group. These four local groups of Hwaseong and Osan areas were found to have different characteristics in terms of three aspects: whether or not the local culture was maintained, status, and amity with Baekje. The Hwangguji and Balan stream basin sites were found to be culturally diverse, indicating that the regional color of these two areas was relatively weak. On the other hand, the local

groups of the Jinwi and Osan stream basins maintained their own local color in building dwellings and tombs up to the 5th century. In addition, the status of the local communities of the Jinwi and Osan stream basins remained high, as can be observed from excavated artifacts, such as prestige goods. Meanwhile, the area of Bongdam-eup in the Balan stream basin was found to be characterized by its relatively low status, illustrated by its excavated artifacts, and a high affinity with Baekje.

From the 4th century, Baekje attempted to dominate the Hwaseong and Osan areas by using various methods, such as forming base settlements, reorganizing existing villages, building fortresses, and bestowing prestige goods. In the first half of the 4th century, Baekje advanced into the Balan stream basin first and formed a base settlement. The Balan-ri settlement site is similar to the base settlements operated by Baekje, in terms of location and structure. Therefore, the site can be considered as an original form of a Baekje local city. It appears that Baekje advanced into the Balan stream basin first due to the presence of the group responsible for the construction of Gilseong-ri Fortress in the Jinwi stream basin and the group responsible for the construction of earth-cut burials with surrounding ditches in the Osan stream basin.

From the mid-4th century, Baekje reorganized or relocated its central settlements and established new centers by building fortresses. In the Jinwi stream basin area, Gilseong-ri Fortress (which had been used up until the mid-4th century by the local groups of Gilseong-ri and Yeo-ri) was abandoned and the settlements reorganized. In the 5th century, the construction of a fortress engineered by Baekje took place. Sogeun Mountain Fortress was a central fortress, serving military and administrative functions, which the Baekje center

regarded as being highly important. In the process of reorganizing settlements and constructing Sogeun Mountain Fortress, attempts were made to establish a network of fortresses that enhanced Baekje's control over the region and made connections with the transportation routes of the southern region of Gyeonggi Province. In the Osan region, the phenomenon of settlement reorganization and relocation can be observed from the mid-4th century. Given that a central settlement site serving special functions, such as farming and storage, and evidencing storage pits was established by Baekje in the Osan stream basin, it is possible to infer that the line connecting Osan, Hwaseong, and Pyeongtaek was used as an important transportation route from the mid-4th century onwards.

As the reorganization of settlements took place in the Jinwi and Osan stream basins from the mid-4th century, prestige items came to be buried as grave goods in the tombs of Soocheong-dong, in Osan, and Yo-ri, in Hwaseong. Reflected in the prestige goods is Baekje's intention to reshuffle the social order of local communities by selecting groups that had cooperated with Baekje's central power. At Soocheong-dong, large tombs in which Baekje prestige goods were absent were situated in separate locations in the late 4th century, and their construction stopped altogether from the 5th century. On the other hand, key tombs with prestige grave goods came to be constructed in a different burial zone. Taking into the consideration the fact that Wooden Cist Tomb No. 1 at Yo-ri, which yielded a gilt-bronze crown cap and shoes, had a simple burial structure and featured otherwise plain grave goods, it appears likely that the deceased had not been a leader with high authority. The metal craft items recovered from the Yo-ri wooden cist tomb do not appear to have represented authority within the local community. Rather, they

appear to have been items received by an individual that had cooperated with the Baekje center or which had been used by Baekje for control over the region.

Baekje's advancement into the Hwaseong and Osan areas differed according to period. From the mid-4th century, the strategy of constructing new central settlements was replaced by actively reorganizing the settlements of the pre-existing local communities or by constructing central fortresses. The bestowing of prestige groups to local groups was also used as a strategy for restructuring the local internal order for Baekje's advantage.

keywords : Baekje, Hanseong Period, Hwaseong, Osan, central fortresses, prestige goods
Student Number : 2019-23928